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윤민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한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초빙연구위원)
- ▶ 위촉연구원 :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공론의 지평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설립 취지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여전히 다수의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교육 풍토 속에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 시켜 온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풍토 안에서 일반고 출신의 비진학 청소년의 존재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 졸업 후 1-2년이 안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 본 후 정책대상자로서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2차 자료 분석과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잠재적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하며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도와 좌절의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일반고 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진로교육 참여율(10명 중 1.6명) 역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고졸 비진학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을 얻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져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들 역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직업과는 관련되지 않은 단기근로와 소모적인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직장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현재 대학 비진학 청소년,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일반고,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실태, 역량개발 프로그램 모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와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음. 우선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된 비진학 개념 및 범주, 비진학 선행 연구 검토, 진로계획 및 진로교육 관련 연구, 최근 비진과 청소년 지원 정책 등을 파악하였음.
- 전문가 자문
이 연구의 방향 설정 및 내용 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상담가, 생활지도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이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 (2005-2015)와 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및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심층면접조사

심층면담 대상은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임. 심층면담 대상 선정은 서울 및 경기권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 지역, 성비를 고려하여 총 24명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선정하였음. 이들 중 12명의 청소년들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졸업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었음.

○ 정책분석 및 모형개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분석하여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이를 토대로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음.

3. 주요결과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 우리나라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2009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2008-2011년 사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 일반고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정부와 학계가 주로 사용해 온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 인구라는 문제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재수생 규모를 감안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 대상자로서의 비진학 인구 규모를 산출하였음.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현 정책 분석 결과 대학 비진학, 특히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중학생 중심이며 완성교육인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참여 형식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실태 (2차 자료 분석 결과)

-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하며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실제로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을 경우 또는 부모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타자’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고 입학 당시 대학 진학 계획 여부는 실질적인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고 재학 중 어떠한 진로 계획을 구축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방향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고 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진로교육 참여율(10명 중 1.6명)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들 역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현재 직장에서도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음.

4) 비진학 청소년 이행 과정 (심층면담 분석 결과)

-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임.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도와 좌절의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비진학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절대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함.
-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졸업장을 ‘비싼 자격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판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불안이 졸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보임.
- 면담대상자들은 일이나 노동을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이들은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며, 일의 내용보다는 일자리의 급여와 노동강도를 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었음.
- 많은 고졸 비진학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과 같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정책방향 및 비진학 프로그램

- 구체적인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앞서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포괄적 정책대상자 규모는 약 5만 7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비진학 청소년들은 약 5천3백 명으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요구됨.
- 구체적인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모형은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으로 한 『고등학생 방과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 및 직업인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제안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9
4. 연구추진 체계	12
II. 이론적 배경	15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개념 및 범주	17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선행 연구 검토	21
III.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29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과 실태	31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의 문제점	45
IV.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47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49
2.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 파악	59
3.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 규모	64
4.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소결	67
V.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통계 분석 결과	69
1.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실태 분석	72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	82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2

VI.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담 분석 결과	105
1. 서론	107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08
3. 실태	114
4. 소결	168
VII.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형 개발	173
1. 필요성 및 목적	175
2.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안)	176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185
참고문헌	191
부 록	197
Abstract	205

표 목차

〈표 Ⅰ-1〉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기준	10
〈표 Ⅲ-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정책 현황(2015) ...	32
〈표 Ⅲ-2〉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추진 일정 및 절차 사례	35
〈표 Ⅲ-3〉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36
〈표 Ⅲ-4〉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위탁 교육기관 현황	38
〈표 Ⅲ-5〉 방과 후 정책사업 추진 현황	43
〈표 Ⅲ-6〉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2014)	44
〈표 Ⅲ-7〉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2006-2014)	44
〈표 Ⅲ-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2006-2014)	45
〈표 Ⅳ-1〉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2005~2015)	50
〈표 Ⅳ-2〉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실태(%)	53
〈표 Ⅳ-3〉 지역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2011~2014)	54
〈표 Ⅳ-4〉 지역별 일반/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2011~2014)	55
〈표 Ⅳ-5〉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2011~2013)	58
〈표 Ⅳ-6〉 연도별 수능응시자 수	60
〈표 Ⅳ-7〉 순수 대학 비진학자 규모	61
〈표 Ⅳ-8〉 일반고를 졸업한 순수 비진학자 규모	62
〈표 Ⅴ-1〉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가족구성 특성	73
〈표 Ⅴ-2〉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 및 진학 계획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75
〈표 Ⅴ-3〉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들의 생활 실태 비교	77
〈표 Ⅴ-4〉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자아성숙도 비교	78

〈표 V-5〉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직업의식 비교	79
〈표 V-6〉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가 재학하는 학교 구조적 특성 비교 ..	80
〈표 V-7〉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학교생활 실태 비교	81
〈표 V-8〉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비교	84
〈표 V-9〉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대학 진학 청소년들의 부모 자녀 관계 비교 분석 ..	85
〈표 V-10〉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86
〈표 V-11〉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경험	87
〈표 V-12〉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88
〈표 V-13〉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로형태(고졸 후 5개월이 지난 시점)	89
〈표 V-14〉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무 환경 및 일자리 만족도	90
〈표 V-15〉 현재 미취업 중인 고졸 청소년의 구직 요건	91
〈표 V-16〉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5
〈표 V-17〉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표 V-18〉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9
〈표 V-19〉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1
〈표 VI-1〉 주요 면담 내용	109
〈표 VI-2〉 심층면담대상자: 지역별·성별 분포	110
〈표 VI-3〉 면담대상자 특징: 재학생	112
〈표 VI-4〉 면담대상자 특징: 졸업생	113
〈표 VII-1〉 고등 행복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안) 개요	177
〈표 VII-2〉 2016년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	180
〈표 VII-3〉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개정(안)	181
〈표 VII-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82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 계획	8
【그림 I-2】 연구추진 체계	12
【그림 I-3】 연구추진 절차	13
【그림 II-1】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20
【그림 III-1】 2013년 전국 일반고생 대상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비율(%)	37
【그림 III-2】 교육지원청 단위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체계도	40
【그림 III-3】 진로교육 추진 실적 중학교와 고등학교 비교	41
【그림 IV-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51
【그림 IV-2】 광역시도별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비율 변화	56
【그림 IV-3】 권역도시별 일반고 비진학 비율 변화 차이	57
【그림 IV-4】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61
【그림 IV-5】 일반고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63
【그림 IV-6】 취약계층에 속한 일반고 진로 미결정 상태의 잠재적 비진학자 규모	66
【그림 V-1】 잠재적 비진학 및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4
【그림 VII-1】 도심형 고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178
【그림 VII-2】 지역형 고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17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 체계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 및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일반고 중심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들의 사회이행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강영배, 김기현, 2004). 고교 졸업 후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외에도 창업, 군입대, 취업 등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모색하며 대학 비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로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약 3.5명 중 1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넘게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임금격차는 물론 내부노동시장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만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들로부터 ‘간파’되면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조한혜정, 2014).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조차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비진학 청소년 규모의 증가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조한혜정, 2014).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증가 속에 최근 높아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

1) 이 장은 윤민중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음.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성 확대에 집중 된 경향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특성화고를 설립하여 대학 진학을 억제하는 한편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조한혜정, 2014).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 분야 5대 개혁과제로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직업교육의 정상화’를로건 아래 도입된 ‘마이스터고 육성전략(2008.7)’,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5)’,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방안’(서울특별시청, 2013) 역시 특성화고 청소년들 중심의 원활한 진로 및 직업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분의 고졸 채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 속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대학 비진학 관련 연구 역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고졸취업자들의 취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고졸취업자들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된 비진학 관련 연구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 인력의 유휴화 및 장기 실업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취업 성공 요인에 주목한다. 고졸 학력 청소년들의 취업 실태와 취업 성공률 상승에 공을 들여온 국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이들 연구들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고용정책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공론의 지평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고의 설립 취지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여전히 다수의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히 하는 교육 풍토 속에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 시켜 온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풍토 안에서 일반고 출신의 비진학 청소년의 존재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달리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경쟁에서 뒤쳐진 후 뚜렷한 향후 진로계획 없이 무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이필남, 2014). 또,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직업과는 관련되지 않은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비숙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며 열악한 근로 여건과 직장 내 부당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이상준, 이수경,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고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위축감에서 비롯된 자존감 결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취업 탐색을 저해하며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를 지속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일반고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동기부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조한혜정, 2014).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형태의 직업반을 운영하거나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허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또 진로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 시키거나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위탁직업교육 역시 행정적인 정보 제공과 같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최동선, 박동열,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 졸업 후 1·2년이 안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다.²⁾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진학 결정 사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생각 없는’ 아이들로 치부하며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과정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사회 진출 이행 경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살펴봄에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2차 (원)자료를 분석하였고, 보다 엄격한 양적방법론을 동원해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결함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1)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진학 청소년들의 개념 및 범주를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비진학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진학자들의 의미와 성격이

2) 따라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 후 중도포기 한 청소년들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들 청소년들 역시 대학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 비진학과 관련된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범주화가 진행되었는지를 밝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잠재적 비진학자’와 ‘고졸 비진학자’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3) 대학 비진학 청소년 현황 및 실태 분석

대학 비진학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육통계연보(2005-2015)를 활용하였다. 학교 계열과 지역별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장에서는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 대상자로서의 비진학 인구 규모를 산출하였다.

4)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크게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로 구분하고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구성, 생활실태, 직업의식, 학교생활 경험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비진학 계획에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고교 졸업 후 취업상태, 근무조건, 직업의식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고졸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5)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담 분석

지금까지의 비진학 관련 연구들이 대체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집중해 온 것에 반해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유를 가지고 대학 비진학이라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대학이나 노동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6) 대학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성공적인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가칭) 고등 행복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모델을 기반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모형이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연구내용	·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파악 ·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파악 ·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사유 및 과정 ·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연구, 심층면담 · 정책자문회의, 문헌연구검토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연구내용	· 현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분석 ·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및 이행 경로 · 고졸 비진학 상태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연구, 심층면담 · 정책자문회의, 문헌연구 검토

【그림 1-1】 연구추진 계획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과 개념 및 범주, 비진학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비진학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들의 이론적 공헌을 파악하는 동시에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주제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이 연구의 방향 설정 및 내용 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상담가, 생활지도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이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구하였다. 또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현 정부의 정책 배경, 정책동향,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3) 2차 통계 자료 분석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진출 이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국가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2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애과정을 추적하는 종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의 특성상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2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단계별 사회진출 이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2005-2015)와 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및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교육통계연보를 통해서 지난 10 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및 이행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패널데이터(KEEP)를 분석하였다. 교육고용패널데이터의 다층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휴벨트-화이트 표준오차(Huber-White standard error) 추정방식에 기초한 로짓(Logit)분석 모형을 활용해 고교 졸업 시점부터 사회진출 및 이행 경로에 미치는 개인 및 구조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생활 실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4) 질적 연구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 연구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다.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에 4명의 비진학 청소년들과 2명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파일럿 (Pilot)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질문지 가이드라인을 2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I-1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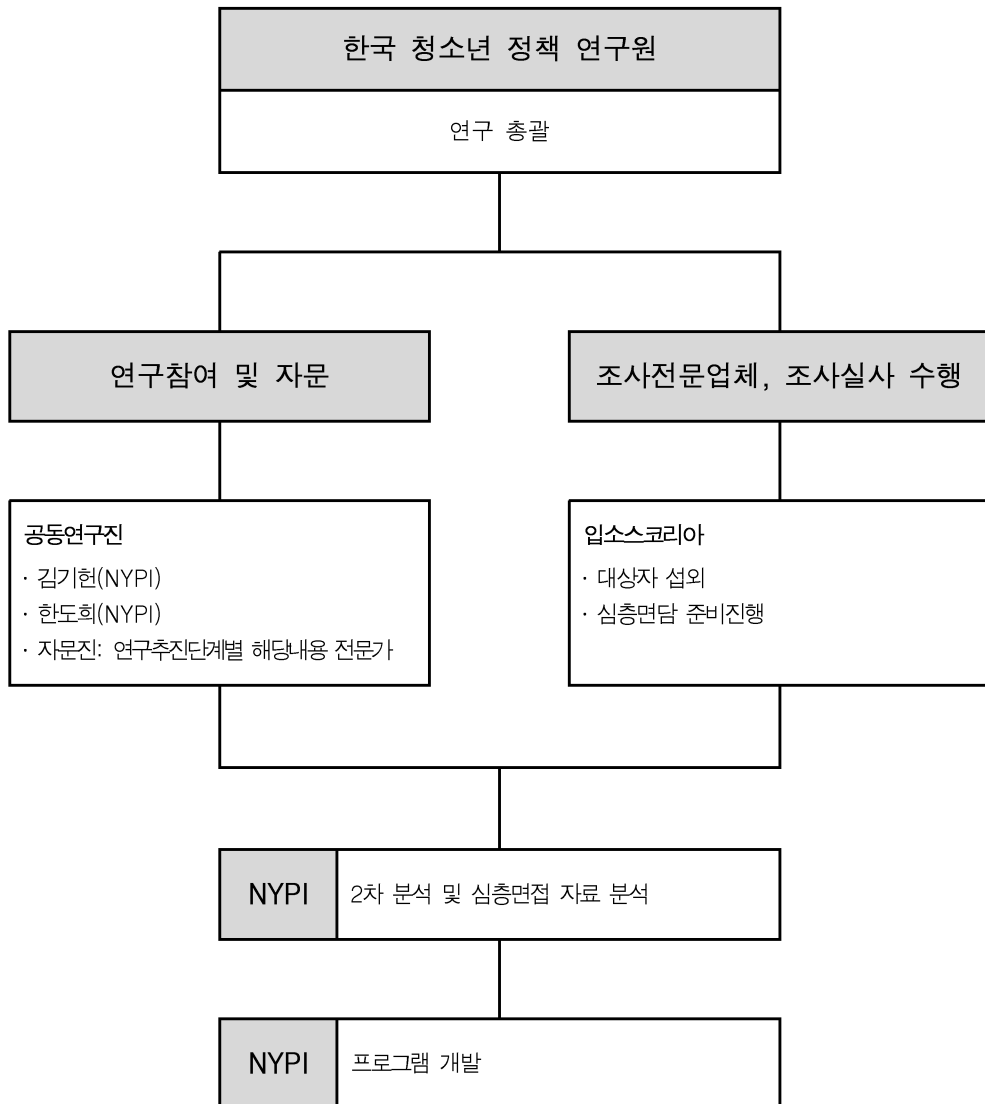
구 분		성별		내 용
		남	여	
잠재적 비진학자	서울	3	4	1) 학교생활 및 생활실태 2) 진로계획과 진로교육, 3) 대학의 의미와 미래의 삶 4) 정책욕구
	수도권(서울 제외)	3	2	
고졸 비진학자	서울	4	4	1) 비진학 사유, 2) 고교 졸업 후 생활실태 3) 사회이행 경로 4) 향후 계획, 5)정책욕구
	수도권(서울 제외)	3	5	
계	24	13	15	

심층면담 대상 선정은 <표 I-1>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울 및 경기권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지역, 성비를 고려하여 총 28명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12명의 청소년들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었으며 나머지 16명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졸업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었다. 면담방식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최소 1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약 60-85분 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녹화가 이루어졌으며 면담이 종료된 후 전사되었다. 면담내용 분석은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비진학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 속에서 비진학자들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행위를 재해석하기에 유용한 접근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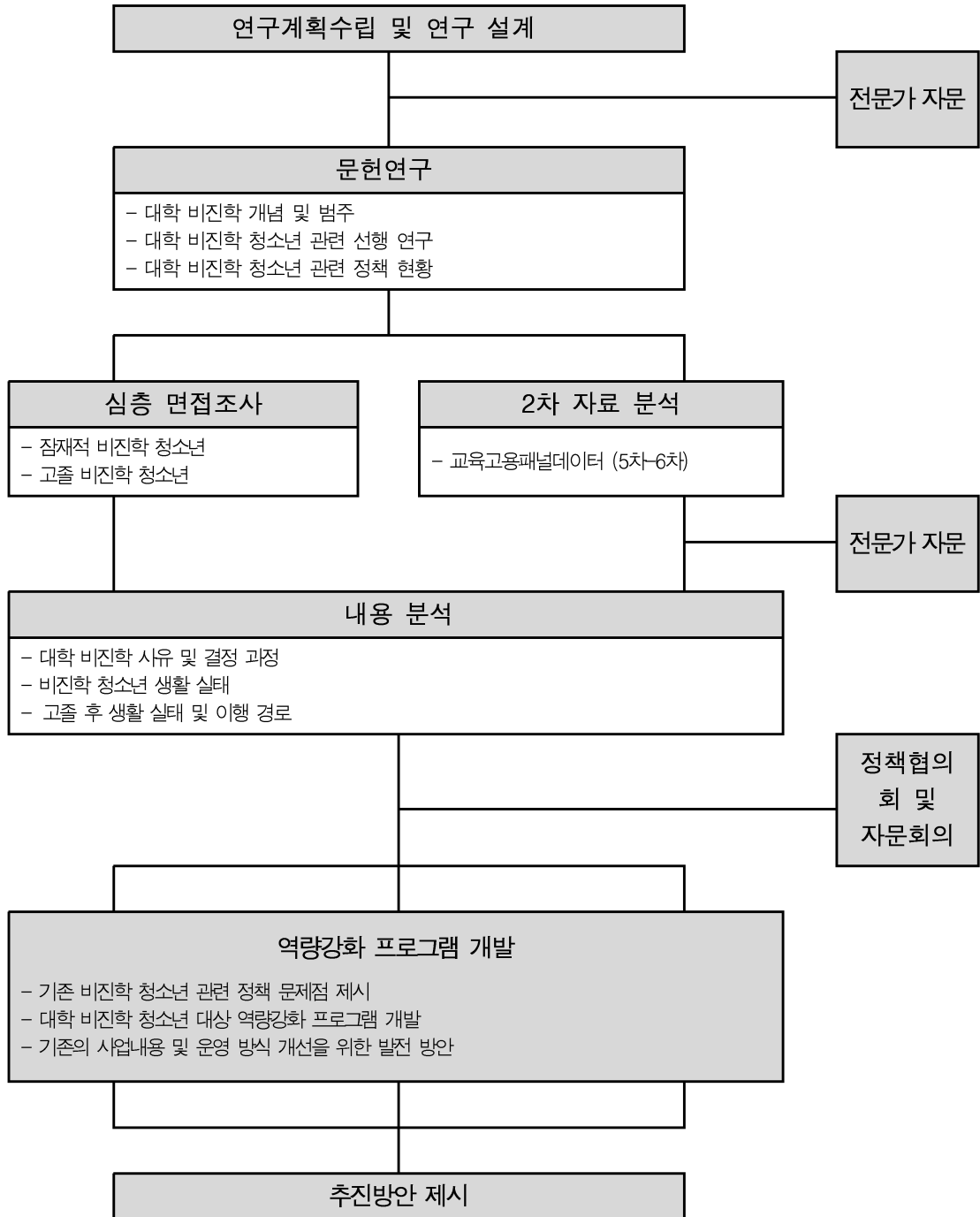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1)초중등 학교생활과 경험, 2)진로교육 경험, 3)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 4)비진학 사유 5)대학의 의미와 향후 계획 6)정책요구들을 파악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는 1) 비진학 사유 및 계기 2)고교 졸업 후 생활 실태 3)이행 경로와 향후 계획 4)가정배경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 5)노동시장 진입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욕구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연구추진 체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는 이 연구과제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그림 1-2】과 【그림 1-3】와 같다.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



【그림 1-3】 연구추진 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개념 및 범주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선행 연구 검토

제 II 장 이론적 배경³⁾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개념 및 범주

비진학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9~24세 청소년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사회진출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중등교육 팽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비진학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실제로 장석민, 서정화, 윤병희, 전현중, 안영수(1988) 연구의 경우 비진학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삼고 있다. 중등교육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중학교 진학률이 95%를 상회하는 오늘 날, 비진학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의미한다(신세호 외, 1991).

고교 졸업 후 해당 년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가리켜 ‘고졸 미진학자’(전병유, 이상일, 2003) 또는 ‘고졸 비진학자’(김지경, 이광호, 2013) 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 사실 비진학자와 미진학자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다소 혼용되 사용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 미진학 청소년은 대입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한편 대학 비진학 청소년은 대학 진학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학계에서는 ‘미진학’ 보다 ‘비진학’이라는 개념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 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대입 선발 경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지라도 학문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 역시 상이하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 중 청소년 취업실태를 분석하는 고용·노동 분야 연구들에서는 비진학 청소년이라는 개념보다 ‘고졸학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3) 이 장은 윤민중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음.

이 때 비진학자는 당해 년도에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청소년들과 재수생을 제외한 고졸 학력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전체를 범주로 삼고 있다. 청년경제활동인구의 비경활인구가 한국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 관심사인 고용·노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대학 중퇴자와 전문대학생을 포함시켜 순수한 의미에서 고졸 학력 청년들의 취업준비, 직장이행, 고용상태를 분석 한다(윤형한, 신동준, 2012).

이처럼 고졸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 비진학을 범주화하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고교 졸업 후 취업 할 의사 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비진학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구들도 있다(최종희, 1985; 김정명, 이광호, 노혁, 이해정, 1990; 함병수, 1990; 이은정, 2007). 구체적으로, 최종희(1985)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을 가리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비진학 개념 범주를 ‘경제활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고’(김정명 외, 1990, p.50) 있는 청소년들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기도 한다(함병수, 1990). 이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 중 취업여부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취업대상 고졸 청소년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최종희, 1985).⁴⁾

최근 연구들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포괄적인 범주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9~24세의 청소년 중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의해 다른 방식의 사회 진출을 모색하거나, 기타 사유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비진학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12, p.49). 이러한 정의 하에 비진학 청소년은 대입재수생, 입시를 준비 중인 한시적인 비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대학 자퇴자 등 까지 포함한다. 교육체제 밖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비진학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학교 체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체계적인 진로모색의 기회가 박탈되어 청년실업과 사회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점차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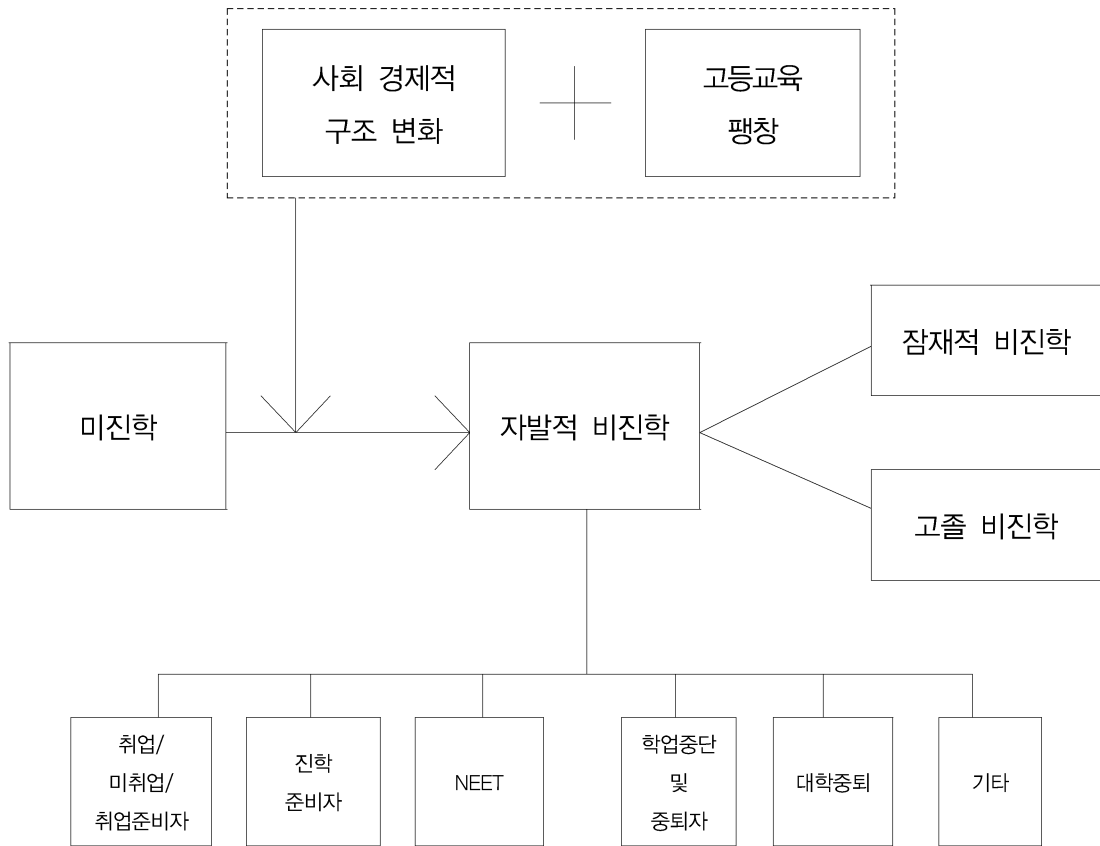
4) 고교 졸업 후 취업 여부를 대학 비진학 범주에 포함시킬 때 비진학 범주는 청소년 니트(NEET)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 실제로 이은정(2007) 연구의 경우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로 취업과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로 제한하며 니트 개념과 비진학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과 니트 청소년들의 유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적응력 부재, 생성되지 않는 자존감,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보이며, 부모에게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채창균, 2008; 박나연, 2014).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부족을 사회진출에 큰 걸림돌로 파악하는 비진학과 니트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와 자립의지 고취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정연순 외, 2008).

로 자립보다는 수동적인 의존 형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12).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에서 도입한 비진학 청소년 개념 역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김지경과 이광호(2013)는 고졸 비진학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하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집단별 특성에 따라 취업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그리고 니트(NET)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다양한 비진학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각 집단의 개별적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초기 연구에 속하는 신세호(1990)의 연구에서도 대학 비진학 집단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세호(1990)는 비진학 청소년을 미진학 청소년 실업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비진학 집단과 진학 의사가 있었지만 진학하지 못한 타율적 비진학 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은 비자발적인 미진학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석민(1990)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비진학 집은 대입 경쟁에서 뒤쳐진 후 ‘진로개척이 좌절된’ 상태의 ‘무기능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비진학 청소년들을 고교 졸업 후 무직 또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조한혜정(2014)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비진학 청소년들과 잠재적 비진학자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제도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국가의 대대적인 장려 속에 특성화고 또는 직업반과 같은 경로 선택을 통해 자기 의지에 의해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하며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잠재적 비진학자들은 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이면서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조한혜정(2014)의 개념 규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 안 청소년들의 문제로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범주 확대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 고졸 비진학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림 II -1】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이와 같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개념 정의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19-24세 비진학 청소년들 가운데 일반고에 재학 중이지만 당해 년도와 차년도에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주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켜 ‘미진학’이 아닌 ‘비진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대입선발 경쟁에서 뒤쳐졌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비진학 청소년들을 잠재적 비진학자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해 잠재적 비진학자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교 졸업 후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선행 연구 검토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적이던 80-90 년대 당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학 입학 경쟁에서 뒤쳐진 채 향후 진로를 준비하지 못한 ‘낙오한’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였다(장석민, 1990). 고등학교 졸업자의 65% 정도는 대학 입학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과정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 보다 선발 경쟁에서 낙오한 실패자들의 문제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진로개척이 좌절된 후 무직의 상태로 방황하게 되거나 취업을 해도 적응하지 못한 채 차선택으로 재수로 선회하는 비자발적 비진학 청소년들이었다(최종희, 1985; 김정명, 이광호, 노혁, 이혜정, 1990).

그러나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 대학입학 자율화 정책과 더불어 대학 설립 요건을 낮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장수명, 2009).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려던 정부의 정책은 적어도 산술적으로 모든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대학 정원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장수명, 2009).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한혜정(2014)은 오늘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대입 경쟁에서 뒤쳐진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구조적 원인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조한혜정, 2014).

기본적으로 조한혜정(2014)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등장은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대량생산-대량소비 국민국가 시대의 청소년 문화가 반학교의 특징’을, ‘대중소비문화 시대에는 탈학교적 특징’을 보인다면 ‘비진학은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체성의 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조한혜정, 2014, pp.159).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후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함께 지속되는 저성장/고실업의 출현 속에 대학 진학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사교육비 부담과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는 취직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 진학은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 ‘아까운 것’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일반고-대학-취업이라는 ‘생애사적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조한혜정, 2014;p.99-107).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재화를 감안했을 때 대학 진학에 투자하여 ‘갈 수 있는’ ‘아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조한혜정, 2014;p.106).

대학 진학이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국가의 정책방향과 관련 고용·노동 연구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청소년들의 원활한 고용실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아져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진 고졸취업자들의 취업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고졸취업자들의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진희, 2012;허영준, 2014;이상준, 이수경, 2013). 이들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고졸학력 청소년들의 무직 비율은 지난 10년 간 약 세 배 이상 급증 하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5), 고졸자 두 명 중 한 명은 고용이 되지 않은 무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렬, 강병식, 반정호, 손혜경, 홍영표, 2012). 특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긴 실업기간을 가지며,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제한된 기회가 주어져 고졸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선미, 오은진, 2014). 또, 취업에 성공한 고졸학력 청소년들일지라도 이들이 처해 있는 취약한 근로조건과 직장 내 학력에 따른 차별 대우는 고졸 청소년들의 잦은 퇴직으로 이행되는 사유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상현, 2012; 박진희, 2012; 이상준, 이수경, 2013). 구체적으로 박상현(2012)에 의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 비율이 국가의 대대적인 청소년 취업확대 정책 속에 약 26.8%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졸 청소년들의 취업상태와 고용안정성은 열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전체 고졸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의 청소년들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근로하며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근로조건, 승진과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영준, 2013).

이러한 고졸 학력 청소년들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크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방안과 청년고용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계획이 향후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근거해 고등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중심의 진로지도와 진로교육 추진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다(김혜원 외, 2009). 특히 교육부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운영 방안은 장기적으로 니트 청소년 예방과 함께 취업역량 강화 기반 구축, 학생취업 역량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진로설계 지원 방안 등을 목표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보다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장명희 외, 2012).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종합계획(2011)을 시작으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1), 진로교육활성화 추진 계획(2012),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활성화 방안(2013)등을 발표하며 학교 내 진로교육 강화와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활동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관 그리고 커리어 플래너와 같은 프로그램은 고교 졸업 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계획을 세우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졸학력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상준, 이수경, 2013).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단계로까지 확대하여 진로교사 배치, 진로교과목 도입을 추진하는 최근의 정부정책은 진로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 이은정(2007)은 영국의 직업교육 실태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발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은정(2007)은 비자발적 실망실업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체계의 개편과 함께 직업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원활한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진로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은정(2007)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근로이행 정책에 있어서 현장교육, 직업진로정보 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것은 교육과 고용의 관련 요소들 간의 연계가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은정(2007)은 교과정과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학교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은정(2007)의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는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이기 보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단순 정책 비교 연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강화 정책과 함께 정부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대책을 펼쳐왔다(장명희 외, 2012; 신선미·오은진, 2014; 관계부처합동, 2010).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추진 되어 온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취업교육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고졸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선취업-후진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고졸 취업확대 정책들이 확대되어 왔다(관계부처합동, 2013).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노동시장 일자리 미스매칭, 특성화고의 기능성 상실, 직업교육 기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이는 지속되는 기능 인력의 구인난 속에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공급 인력 대상으로서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고졸학력 취업 장려 정책 속에 고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고졸자 취업 정책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중차분 추정 방식(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모형을 적용한 정희진(2013)의 연구에서는 2011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 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고졸 채용 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정책이 시행 된 2011년 이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학률은 8.67% 가량 성장했으며 수능 응시율 및 대학진학률 역시 3.05%와 6.67% 가량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졸취업 확대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필남(2014)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 고졸자취업진로조사를 비교분석하는 접근방식을 도입한 이 연구는 2013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일자리 형태가 2011년에 졸업한 청소년들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통해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취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고졸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향상되었고, 실질임금도 증가했으며 일자리 규모와 고졸 취업자의 질도 향상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물론 취업성공률 역시 76.1%로 나타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취업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혜원, 이병희, 윤자영, 2009).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책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보다 정책이 도입된 해당 년도와 그 이후의 실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시계열적 추정방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추론하는 방법은 해당 년도에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들 중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효과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이 연구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2011년도에 고졸청년들을 위한 고용취업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2011년을 기점을 청소년들의 노동고용실태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졸청년정책의 효과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년도 또는 코호트의 차이를 전적으로 정책의 효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대한 통제와 함께 보다 미시적인 프로그램 효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고용·노동 분야의 연구들은 청소년 고용기회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지원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며 비진학 청소년들을 노동공급 인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연구들을 통해서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김지경, 이광호, 2013).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취업기회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비진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정책 대상자로서의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 연구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다양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와 의식,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연구는 초기 연구들과 달리 고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취업, 구직활동, 진학준비, 창업준비, 니트 등 다양한 이행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들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김지경, 이광호, 2013).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졸 학력의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흔히 20대 초반 ‘자기결정’을 강요받으며 사회진출을 온전히 홀로 맞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청소년들은 사회적응력은 물론 기초적인 업무능력이 떨어져 노동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잦은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경과 이광호(2013)는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취약계층의 삶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진학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자녀들은 수급권을 유지하고자 자발적인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고졸학력으로 취업했을 때의 임금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소년들은 의도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수강할 뿐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모색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고졸 비진학 연구는 다양한 비진학 청소년들을 분류하고

각 집단 비진학 청소년들의 특성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연구의 한계점 역시 분명하다. 우선 이 연구는 고졸 청소년들의 비진학 현상에만 집중함으로써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발생하게 되는 학교경험 및 이행경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지와 같은 가시적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비진학 이행 결정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그들의 연구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맥락 보다 비진학 청소년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다.⁵⁾ 또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닌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을 강조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고용정책을 비판하는 등 다양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김지경, 이광호, 2013; pp4-5). 물론 연구 내용 중 일부 분석들에서 고등학교 설립유형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학교 설립 유형 간 차이를 감안한 분석들이 있지만 이는 통계 모형에서 필요한 방법론적 장치일 뿐 고교 설립유형에 따른 비진학 경로 및 사유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고등학교 설립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사유와 경험이 다르다는 논의는 그들의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졸 청소년들의 비진학 사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이 부족해서’ (49.5%)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19.4)가 비진학 사유로 조사된 반면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가 (52.6%), ‘성적이 안되서’는 (4.8%)로 조사되었다(표 VI-1, p, 146).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지경과 이광호(2013)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진학 청소년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여러 범주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정의하는 그들의 입장과는 모순된다. 이는 즉,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일반고 청소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김지경, 이광호, 2014; pp.4).⁶⁾

5) 물론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연구에서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대학 비진학 사유를 여섯 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6) 이 외에도 김지경과 이광호(2013)가 제시하는 다양한 비진학 집단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들 연구에서 니트는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서 범주화되는 동시에 비진학 청소년들의 이행결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실태조사는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동원해 총 983명의 표본을 얻었지만 샘플 사이즈의 적합성 및 방법론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고졸 비진학 연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학 비진학 정책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자의 취

최근 비진학 청소년 관련 연구들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가 구분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비진학 사유 및 삶의 조건이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과는 상이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조한혜정, 2014; 이필남, 2014; 김안국, 신동준, 2007). 실제로 일반고 청소년들은 고졸취업에 대한 정보 접근 또는 학교 내 사회적·물리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특성화고 청소년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한혜정, 2014). 특히 취업경로가 제도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 요인들이(산학연계)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연구결과는 사적 연결망에 의존해야 하는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김기현, 2003; 최준호, 2007).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안국과 신동준(2007)에 의하면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경우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37.1%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 고졸 청년의 7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고교 졸업 후 5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일반고 청소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교 졸업 후 경로는 다양하지 않다(신세호 외, 1991). 특히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취업지향, 진학지향, 무직진로라는 비교적 단순한 경로를 보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수의 비진학 청소년들은 재수를 선택하는 등 소수의 청소년들만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세호 외, 1991). 또 취업에 성공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으로 취업하였으며, 취업 시 채용 시험이나 학교 추천 등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주위의 친지나 친구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세호 외, 1991). 이와 관련해 일반고를 졸업 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입증 해 낸 김안국과 신동준(2007)은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세호 외(1991)와 장석민(1990) 역시 대학 진학으로의 편중된 진로의식과 제한된 진로 선택의 기회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 기초직업기능 교육 강화 등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개척 역량강화에

업자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장석민, 199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 속에 변모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 고졸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고졸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특성화고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의 보고서들과 관련 논문들 역시 특성화고등 청소년들의 취업실태와 취업성공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대상자로서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졸취업 확대 정책에서 배제된 경향이 적지 않으며 이들과 관련된 연구조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일반고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유에서부터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고교 졸업 후 이행 경로와 같은 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사회 이행을 돕기 위해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진출을 위한 청소년 역량가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 III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정책 현황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과 실태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제 III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⁷⁾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과 실태

이 절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제시한 시행계획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각 부처별로 제시한 정책사업 계획이나 업무보고, 사업 추진 매뉴얼 등을 토대로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사업과 진로교육정책 사업, 그리고 방과후 서비스 사업 등 핵심적인 사업별로 정책 현황을 진단해 보고 이어서 정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분석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제시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표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 기본계획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과제 중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중점과제 3-3)이다.

7) 이 장은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정책 현황(2015)

(단위: 백만원)

시행기관	사업명	예산	
		2014	2015
교육부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2,400	2,400
	일반고-특성화고간 「진로변경 전입학제」사업	-	-
	일반고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	-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23,240	23,240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14,141	24,317
	학교기업 지원 사업	11,045	10,493
	방과후 학교	371,960	371,960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22,420	11,801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22,420	21,361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22,420	21,361
합 계		490,046	486,933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운영 지원	43,374	81,16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217,085	274,618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29,674	18,432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4,962	3,455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일반)	6,426	5,783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일반)	23,729	35,63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일반)	92,702	16,82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고용보험기금)	108,441	166,180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426	5,783
	차세대 HRD-NET 시스템 개편	-	40
	한국잡월드 운영	7,342	11,802
합 계		540,161	619,175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14,446	18,356
	청소년수련시설 직업체험 지원사업	384	384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600	8,300
	취약위기 청소년 취업 지원	4,249	11,316
합 계		24,928	49,672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73,675	285,850
	휴먼네트워크 사업	1,060	1,067
합 계		274,735	286,91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8,800	28,600
	청소년 비즈쿨	5,000	6,000
합 계		33,800	34,600
전체 합계		1,359,421	1,466,521

※ 출처: 여성가족부(2015),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로 작성 기타로 고용노동부(2014),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III-1)」, 교육부(2013a),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교육부(2014a), 「2015년도 교육 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교육부(2014b), 「2014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참고

여성가족부(2015)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과제번호 3-3에 해당하는 각 부처의 정책 사업들을 정리하였다. 각 부처에서 제시한 정책 사업들은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제출한 경우로 여성가족부에서 취합한 시행계획들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며 반대로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먼저 주거지원 관련 사업들은 제외하였고 대학생이나 20대 이상 성인 대상 사업들도 제외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표 III-1>에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사업 계획이나 업무보고, 사업추진 매뉴얼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관련 사업을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점과제 3-3인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들은 2015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6천 1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예산은 4천 8백억 원 수준으로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4백억 원, 중소기업청이 3백억 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점과제 3-3 정책 사업들은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천 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 이 분야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점과제 3-3 정책 사업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전자는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자립지원이나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고용노동부), 청소년 수련시설 직업체험 지원사업(여성가족부) 등이 해당되며 후자는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교육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글로벌 취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지원 사업(여성가족부) 등이 해당된다. 후자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사업(교육부),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고용노동부), 학교기업 지원사업(교육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사업(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사업(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해당된다.

정책 대상별로 보면 학생 대상과 비학생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정책 사업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의 정책 사업들은 학생보다는 주로 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들은 학생과 함께 학교 밖의 취약·위기 청소년들을 동시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 사업들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보다는 청소년들 전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및 역량강화로 좁혀서 정책 사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선취업-후진학 혹은 일-학습병행제도와 같이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사업 역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처럼 학생보다는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같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역시 직접적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만으로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정책 대상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로의사를 정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사업으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변경 전입학제와 일반고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 등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사업이 있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로교육정책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서비스 사업 역시 직접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학교에 불과하지만 정책 대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면 학생 대상 정책 사업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사업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완성교육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마에스터고 육성 등을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 비중이 높은 일반고 학생들은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계속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구체화된 것은 교육부에서 2013년에 발표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하 일반고 강화방안)」이다(교육부, 2013a). 일반고 강화방안은 총 4가지의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이며,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이고, 세 번째는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이다. 이 중에서 일반고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추진 일정 및 절차 사례

순	시행 업무	업무 담당	시행기간			방법
			1학년 1회	1학년 2회	2학년	
1	전입학 시행계획공고	교육감	2014.3.3.			교육청 홈페이지
2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 수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학교장	2014. 5.26~5.30	2014. 8.4~8.8	2014. 3.10~3.14	교육청으로 공문 시행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3	전입학 희망 학생 전입학신청서 (1~4희망고 기재) 작성·제출	전입학 희망 학생 소속 학교장	5.26~5.30	8.4~8.8	3.10~3.14	배정신청서 작성→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제출
4	전입학 신청 학생심사	교육감	6.2~6.9	8.11~8.16	3.17~3.24	전입학 허가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5	전입학 학교 배정	교육감	6. 10	8. 18	3. 25	공문 시행 (교육감→해당학교장)
6	허가 대상 학생 전입학 서류 제출	대상 학생 소속 학교장	6.10~6.13	8.18~8.20	3.25~3.27	배정된 학교로 공문 시행
7	전입학 처리	해당 학교장	6.13~6.16	8.20~8.25	3.27~3.31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운영매뉴얼」, p.142.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로 전학이나 입학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업반을 내설화하는 한편, 대안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3a: 9-12).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2014년 3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로 1학년에 한 해 추진되어 오다가 2학년까지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로변경 전입학제」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의 결원 상황을 공개하고 결원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이나 입학에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 전원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2014). <표 III-2>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매뉴얼로 제시한 내용 중 진로변경 전입학제 추진 일정 및 절차 사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표 III-3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추진내용	시기	업무담당 기관
담임회의	위탁과정 설명회 이전	단위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설명회	운영 이전 년도 학생 수요 조사 전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선발	운영 이전 년도 9월~12월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직업위탁반 편성 또는 일반학급 배정	신학년도 학급편성 및 학급배정	단위학교
예산편성	신학년도 예산 편성	단위학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편성	신학년도 업무계획	단위학교
학기 초 직업위탁 학생 NEIS 등록	신학년도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월말 출결상황 입력	익월 초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학기말 성적 입력	학기말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기타 업무	수시	단위학교, 위탁교육기관,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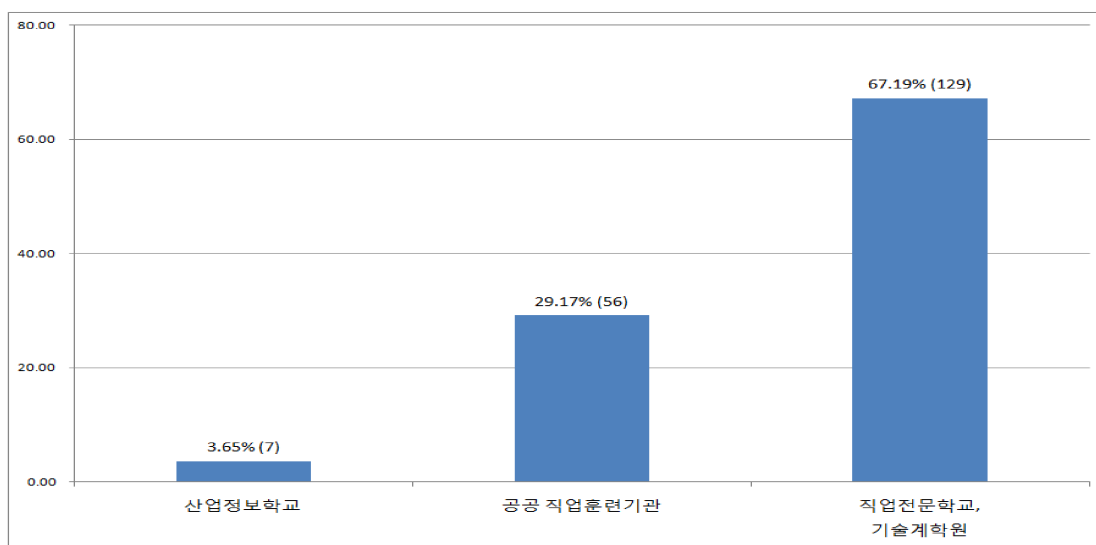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운영매뉴얼」, p.139-142.

이어서 일반고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위탁 교육기관 사업과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대안교육 위탁기관 포함) 사업,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교육부, 2013a: 10).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위탁 교육기관 사업이 세 가지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의 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3년도 전국의 위탁교육 기관 현황을 보면, 일반고 학생 중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8,993명) 중 37.7%(3,394명)가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다른 위탁교육 기관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 수의 경우에도 전체 위탁교육 기관(192개) 중 67.2%(129개)가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사설학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직업위탁 교육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직업위탁 교육기관은 같은 고등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 혹은 산업정보학교들과 공공 직업훈련기관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들, 기술계 학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출처 : 교육부(2013a),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p. 11.

【그림 III -1】 2013년 전국 일반고생 대상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비율(%)

표 III-4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위탁 교육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정원)	교육비	비 고
산업(문화예술) 정보학교 (5교, 2,288명)	서울산업정보학교(562명) 아현산업정보학교(794명) 종로산업정보학교(468명)	무료 (소속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의 50%를 위탁교로 지급)	공립각종 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232명)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232명)		
직업교육거점학교 (4교, 348명)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90명) 리라아트고등학교(90명)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78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90명)		사립 특성학교
기술교육원 (4개원, 335명)	동부기술교육원(38명) 중부기술교육원(53명) 북부기술교육원(128명) 남부기술교육원(116명)	무료	서울시 지원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강원경가인천) 한국폴리텍대학(강서캠퍼스)	무료	교육부 추진사업
	국제직업전문학교 대우직업능력개발원 한일직업전문학교	무료	고용노동부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사) 한국광전자산업전문인협회 (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무료	
고등기술학교 (1교, 90명)	한국제과학교	교육청에서 1인당 월 12만원 또는 월 14만원 위탁기관으로 지급(소속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의 50%를 위탁기관으로 지급)	서울시 교육청 지정기관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기술분야 학원		추후 선정
단기과정		무료	교육부 추진사업으로 국가기관전력 사업 분야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2014), 「2015학년도 일반고교 학생 직업교육 운영계획」, p.6.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정책 사업들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취약한 집단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취업 역시 고려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이해와 진로에 관한 것이며 향후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든, 직업훈련 위탁기관이든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들이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모교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기관들이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다수 기관들은 모교를 뛰어 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들의 효과가 높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진로교육정책 사업

학교의 진로교육정책은 직접적으로 취업을 연계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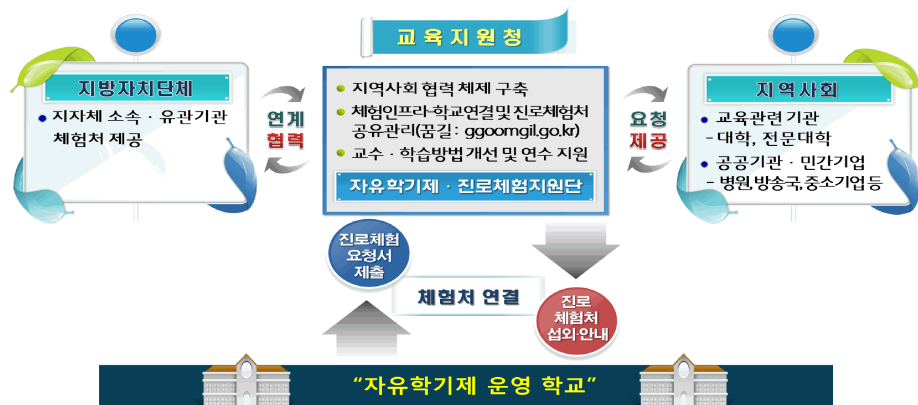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정책은 2010년에 수립된 「진로교육 종합계획」(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2010)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는 4년 만에 전국 중·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될 정도로 빠르게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는 5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과 진로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내에서 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진로활동실(career zone)이 절반 정도의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수업과 관련하여 「진로와 직업」이 많은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수업에 진행 중에 있고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가 수업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을 통합교과로 시행 중에 있기도 한데 국어, 수학,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통합교과수업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그 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의원입법(김세연 의원대표 발의)으로 추진된 「진로교육법」이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점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설립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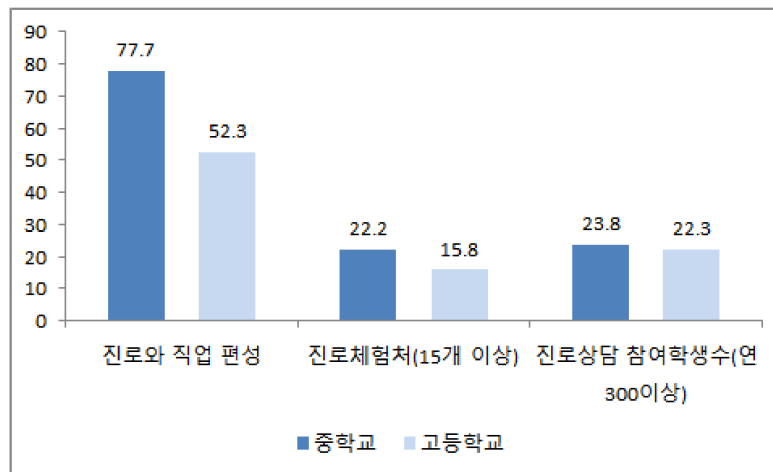
진로교육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진로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진로체험활동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시행과 맞물려 직업현장에서 직접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은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15년 10월 현재 38,558개소의 체험활동 자원이 올라와 있다.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직업체험처는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수집되고 각 급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교육부(2015a),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p. 12.

【그림 Ⅲ-2】 교육지원청 단위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체계도

체험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설치하고 이곳에 체험지원센터를 두어 단위 학교에 직업체험처를 연계하고 있다. 교육부(2015a)에서는 2104년 현재 158개인 지원단을 2015년 177개의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무지원센터는 절반가량이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주: 진로상담 참여 학생수는 중3과 고3 결과임.

* 자료 : 송창용 외(2014), 「2014년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그림 III-3】 진로교육 추진 실적 중학교와 고등학교 비교

진로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 III-3】은 진로교육 추진 실적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원래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출발했던 「진로와 직업」교과를 수업으로 편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77.7%로 고등학교(5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15개 기관 이상 진로체험처를 발굴한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5.8%로 중학교(22.2%)에 미치지 못한다. 300시간 이상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 비율 정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편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자유학기제와 같이 중학교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다른 한편,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경우 진로보다는 진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진로발달단계 상 고등학교 시기에 향후 진로를 정하고 진로설계에 따라 진로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진로발달단계 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체험 중심(Job touring, Job shadowing, Job fair)으로, 고등학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보는 직무수행 중심(Internship, Apprenticeship, cooperative education, school enterprise)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방식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4)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사업⁸⁾

방과후 서비스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수업 이후 양질의 교육서비스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방과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초등교육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발달이나 역량 지원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5>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사업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추진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발전시킨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초등교육을 넘어서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중학교 2학년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 중이나 2016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규모가 가장 크고 고등학생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와 참여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중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는 전체 학교의 99.9%인 2,320개교 이다. 참여 고등학생들은 1천 3백만 명 수준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74.7%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교과프로그램의 비율은 84.4%로 특기·적성 프로그램(15.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8) 이 절은 김기현(2015)이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일환으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국제세미나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2015년 5월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엄 볼룸C)에서 발표한 기조강연을 요약,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III-5 방과 후 정책사업 추진 현황

구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부처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법령	-	-	아동복지법 (제52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지원 대상	초·중·고교생	초등학생 (1, 2학년 중심)	18세 미만 아동 (고교 재학 포함)	만9~13세 (초4~중2)	만12세 이하
운영 주체	학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추진 체계	교육부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 단위학교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단위학교 돌봄교실	보건복지부 ↓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 시·군·구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 시·군·구 ↓ 수련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행 년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7년
운영 현황	'14년 11,686 학교	'14년 5,938 학교	'13년 4,061 개소	'14년 200 개소	'13년 215 개소
참여 현황	'14년 1,368천명	'14년 221천명	'13년 109천명	'14년 8천명	'13년 60천명
프로 그램	교과 및 특기적성 등	예체능, 놀이, 숙제 지도, 독서활동 등	돌봄 및 급식제공, 학습지도 등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지원 등	보육, 놀이, 간식, 등하교 동행 등
이용자 부담	자부담, 저소득층 무료	무료	무료	자부담, 저소득층 무료	자부담, 소득수준 차등 지원
운영 예산	'14년 3,719억 원 (자유수강권 지원)	'13년 2,921억 원	'14년 2,723억 원	'13년 160억 원	'13년 435억 원

* 자료: 교육부(2014b), 보건복지부(2015), 여성가족부(2014b).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김기현(2015)의 <표 1>을 재인용, p. 28.

표 III-6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2014)

구 분	초	중	고	계	전년도 현황			
					2013	2012	2011	2010
운영학교수(교)	6,148	3,218	2,320	11,686	11,397	11,361	11,307	11,226
비율(%)	99.9	100.0	99.9	99.9	99.9	99.9	99.9	99.9
참여학생수(천명)	1,992	1,109	1,368	4,469	4,678	4,840	4,559	4,573
비율(%)	73.1	64.6	74.7	71.2	72.2	71.9	65.2	63.3

* 자료: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

* 출처: 교육부(2014b), 김기현(2015)의 <표 2>를 재인용, p. 31.

표 III-7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2006-2014)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운영 개소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
지원 개소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이용아동(천명)	59	76	87	98	100	105	108	109	—
지원예산(억원)	225	552	901	1,299	1,549	1,857	2,138	2,485	2,723

* 자료: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출처: 보건복지부(2015), 김기현(2015)의 <표 5>를 재인용, p. 32.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조직의 명칭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주로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사업의 근거가 된 아동복지법이나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의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고등학생 역시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13년에 실시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별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전체 참여자들의 7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4,334명으로 전체 참여자들 중에서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2015: 32-33).

표 III-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2006-2014)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운영 개소수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참여 청소년	4,200	6,300	7,980	7,560	6,538	8,414	8,060	8,200	8,030
지원 일수	312	312	282	285	273	272	276	285	260
운영예산 (백만원)	7,696	12,034	15,831	12,873	12,133	15,471	15,471	16,051	14,446

* 출처: 강영배·김기현(2014), 김기현(2015)의 <표 6>을 재인용, p. 33.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는 달리 교과나 돌봄보다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개소수가 200개 기관에 불과해 너무 소수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복권기금 등의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 비진학,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직업교육은 진로변경 전입학제나 일반고 재학생 위탁교육 등이 시행 중이지만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중학생 중심이며 완성교육인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로발달단계 상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실무참여가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볼 수 있는데 인턴십이나 도제교육, 산학협동교육,

그리고 학교기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중학교 단계와 마찬가지로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서비스는 주로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진학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참여 형식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IV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2.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 파악
3.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 규모
4.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소결

제 IV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⁹⁾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통계연보자료를 활용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변화와 특성화고 출신 청소년들의 비진학(이하 특성화고 비진학) 규모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본 뒤, 지역 간 대학 비진학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의 순수 비율을 추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으로서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절에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 실수를 제외해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¹⁰⁾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자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중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은 2009년 22.2%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24.6%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자 수 산출방식이

9) 이 장은 윤민중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음.

10)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학 비진학 규모 산출 방식은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차년도에 대학 입학할 준비하는 재수생 규모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재수생 규모가 국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자 규모 추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비진학 청소년 인구 추정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발행하는 대학 진학자 수가 2011년 이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으로 발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격자 기준에 기초한 대학 진학률은 과장되고 비진학자 비율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11년 교육과정 변화와 고등학교 계열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교육통계연보는 대학 진학자 수를 합격자 기준이 아닌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1년 대학 진학자 규모는 2010년에 비해 급격하게 축소되는 동시에 비진학자 비율은 급증하는 것처럼 통계수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전후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비진학자 규모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비진학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에는 2011년 전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격자 기준에서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1년 이후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비진학자 비율을 산출했을 때 전체 고등학생 중 비진학자의 비율은 2011년 27.5%, 2012년 28.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29.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 현재까지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V-1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 (2005~201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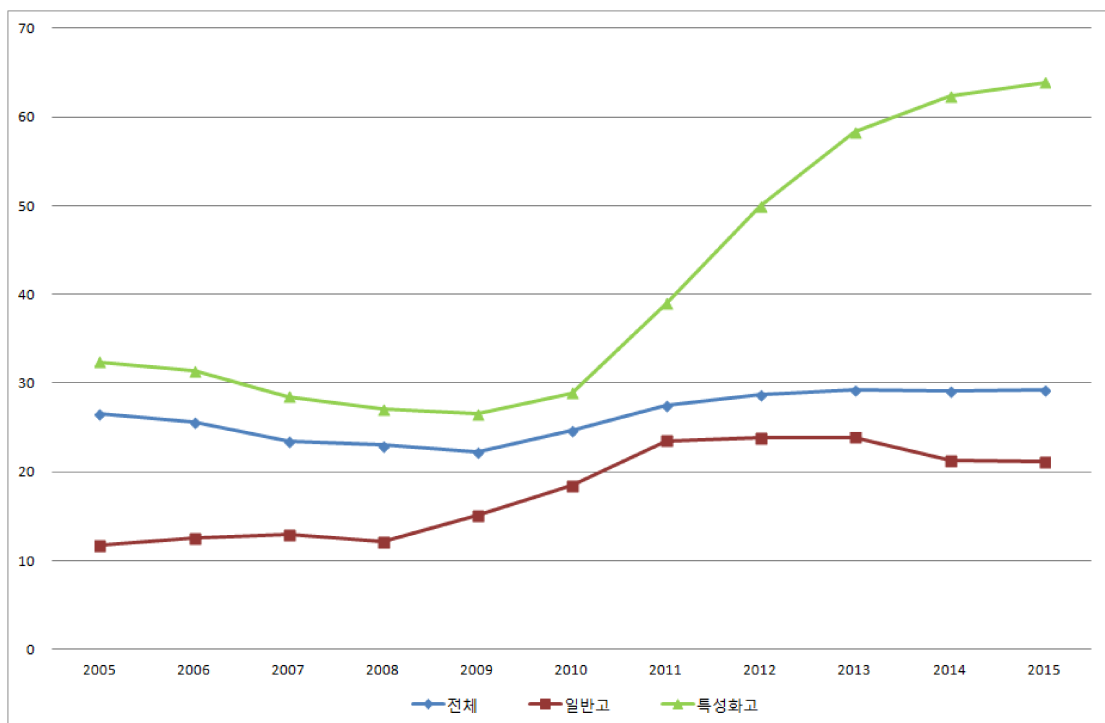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졸업자 합계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합계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합계	진학자	비진학
2015	615,462	435,650	179,812 (29.2)	442,590	349,250	93,940 (21.1%)	101,884	36,738	65,146 (63.9%)
2014	632,983	448,817	184,166 (29.1%)	453,046	356,752	96,294 (21.3%)	106,521	40,478	87,872 (62.1%)
2013	631,197	446,474	184,723 (29.3%)	449,975	379,290	110,133 (22.3%)	105,907	44,481	74,590 (58.3%)
2012	636,724	453,899	182,825 (28.7%)	453,242	373,431	116,771 (23.4%)	108,950	54,475	66,054 (50.0%)
2011	648,468	469,961	178,507 (27.5%)	470,605	372,561	123,083 (24.2%)	114,690	69,961	55,424 (39.0%)
2010	633,539	477,384	156,155 (24.6%)	477,470	389,241	88,229 (18.5%)	156,069	111,041	45,028 (28.9%)
2009	576,298	448,224	128,074 (22.2%)	424,888	360,895	63,993 (15.1%)	151,410	111,348	40,062 (26.5%)
2008	581,921	448,321	133,600 (23.0%)	423,513	372,102	51,411 (12.1%)	158,408	115,407	43,001 (27.1%)
2007	571,357	437,180	134,177 (23.5%)	412,649	359,478	53,171 (12.9%)	158,708	113,487	45,221 (28.5%)
2006	568,055	422,693	145,362 (25.6%)	405,455	354,647	50,808 (12.5%)	162,600	111,601	50,999 (31.4%)
2005	569,272	417,835	151,437 (26.6%)	399,013	352,344	46,669 (11.7%)	170,259	115,164	55,095 (32.4%)

* 출처: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이하 표 및 그림 동일), 2015년 10월 29일 추출.

*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1년 이전 자료는 실 등록자 기준이 아닌 합격자 기준의 수치임.

* 특성화고의 2011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수치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비진학 비율 증가 추세 속에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대조적인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도 12.1%, 2009년도 15.1%, 2010년도 18.5%를 보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약 3% 포인트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10년도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 11.7%에 비해 약 5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그림 IV-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11) 2008년을 기준으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시적인 요인으로는 2009년도 세계경제위기(서브프라임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들어닥친 경제위기 속에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고졸 청소년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 나타나는 고용불안은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졸업장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조한혜정, 2014).

그러나 【그림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4.2%에서, 2012년 23.4%, 2013년 22.3%, 2015년 21.1%로 줄었으며, 매년 약 6천 명에서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약 1만3천 명가량 감소해 2011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 진학자 수 산출 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도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규모 변화 추이는 일반고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래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 증가 시점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7%-29%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률은 2011년 39%, 2012년 50%, 2013년 58.3%, 2014년 62.4%, 그리고 2015년 63.9%까지 증가해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약 6%-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활성화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부 정책의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변화 추이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오늘 날 고등학교 졸업 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아래 <표 IV-2>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IV-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2011년 4.4%에서 2015년 10.1%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4.8%였던 일반고 취업률은 2014년 9.3%를 기록하며 약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지난 5년 간 이와 같이 약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¹²⁾ 반면, 특성화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률이 2011년 68.2%에서 2015년 72%까지 매해 꾸준히

1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실태는 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증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성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낮은 취업률은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표 IV-2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실태(%)

구 분	일반고			특성화고		
	취업	무직	군입대	취업	무직	군입대
2015	10.1	18.7	0.1	72.0	17.4	0.3
2014	9.3	14.3	0.1	72.3	13.6	0.4
2013	4.8	16.4	0.1	70.1	—	0.5
2012	4.3	18.0	0.1	77.8	—	0.7
2011	4.4	16.4	0.1	68.2	—	1.0

2) 지역 간 비진학 비율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이 지역 간 편차를 보이는지 교육통계조사 자료(2011-2015)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 간 대학 비진학 청소년 비율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서울 지역 청소년의 대학 비진학률은 평균 43.44%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경우 대학 비진학자 비율이 평균 30%를 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역시 대학 비진학자 비율이 2011년 22%로 나타나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 비진학자 비율은 25%를 넘는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대학 비진학자 비율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15.4%에서 21.3%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5년 기준 서울의 비진학자 비율 대비 약 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IV-3 지역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 (2011~2014)

(단위: 명, %)

지역	2015		2014		2013		2012		2011	
	졸업자	비진학 비율	졸업자	비진학 비율	졸업자	비진학 비율	졸업자	비진학 비율	졸업자	비진학 비율
서울	108,669	43.6	113,396	43.4	115,888	44.4	117,682	44.2	121,946	43.8
부산	39,934	25.7	41,845	25.0	42,524	25.1	44,506	24.2	46,405	22.0
대구	33,663	24.9	35,425	24.6	35,003	24.3	35,693	23.9	36,619	23.9
인천	34,006	30.5	35,550	31.4	36,080	33.1	36,611	31.9	37,791	32.2
광주	21,651	22.3	22,490	21.3	22,011	21.3	21,967	21.0	22,086	20.0
대전	20,434	25.8	20,893	24.4	20,566	24.4	20,899	23.7	21,369	24.7
울산	16,189	21.3	16,873	19.3	16,806	17.8	17,076	17.0	17,309	15.4
세종	1,179	33.1	1,118	31.5	991	32.3	—	—	—	—
경기	149,324	29.9	152,247	30.5	150,410	30.6	149,365	30.8	150,325	29.2
강원	18,319	22.0	18,501	20.9	18,211	20.5	18,225	19.2	18,568	17.8
충북	19,234	25.9	19,407	26.6	19,249	25.8	20,029	24.6	19,916	22.1
충남	24,638	26.6	24,805	27.0	24,311	25.8	24,956	24.8	24,831	23.7
전북	24,457	24.1	24,690	24.4	24,549	23.1	24,584	23.3	24,760	22.1
전남	23,390	27.2	23,764	25.1	23,243	24.0	23,430	22.7	23,853	20.9
경북	30,948	22.4	31,415	23.0	31,399	22.9	31,703	20.9	32,467	19.1
경남	41,744	20.5	42,752	19.3	42,167	19.8	42,268	18	42,517	10.8
제주	7,683	18.1	7,812	19.3	7,89	17.2	7,730	18.4	7,706	16.1

지역 간 일반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래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 비진학자 비율의 지역 간 편차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구분해 살펴봤을 때 분명해진다. 우선 특성화고의 경우 대학 비진학자 비율이 권역도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서울지역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약 71%를 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광역도시 역시 대체로 60% 전후반대로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지역 간 대학 비진학자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서울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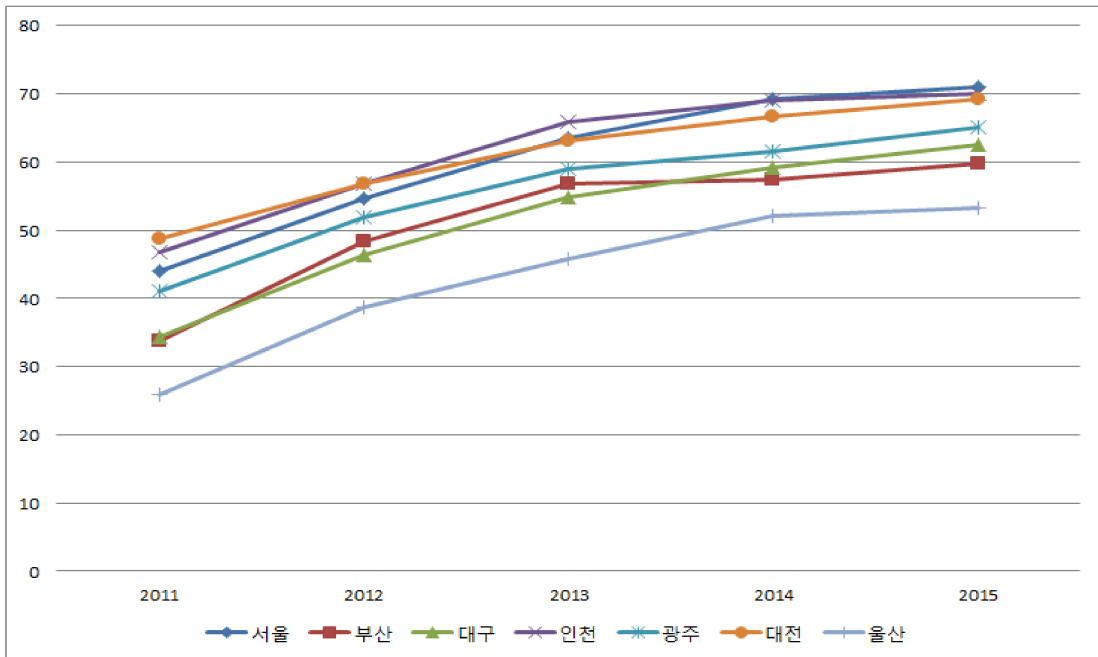
일반고 청소년 비진학 비율은 38.6%로 나타난 반면 부산 14.8%, 대구 15.1%, 광주 13.8%, 대전 14.7%, 울산 12.9%를 보여, 서울의 비진학자 비율은 다른 주요 광역 도시들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역시 일반고 비진학 비율이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인접 지역 또한 서울보다 대학 비진학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

지역별 일반/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 (2011~201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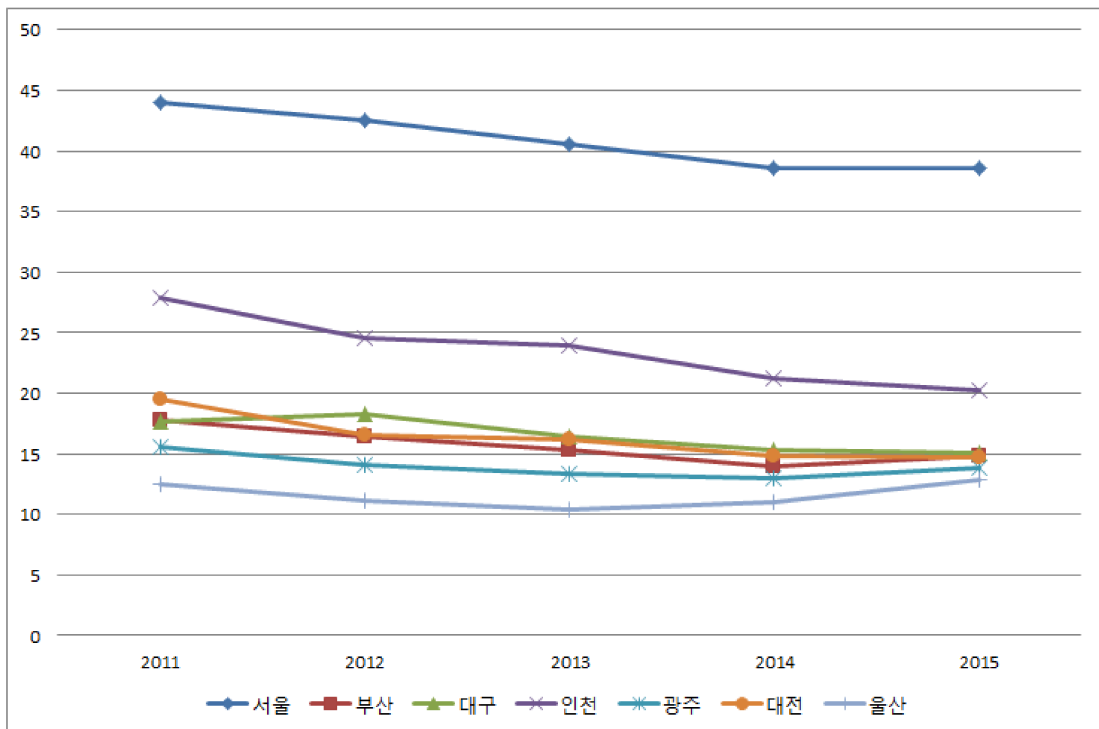
지역	일반고 비진학률					특성화고 비진학률				
	2015	2014	2013	2012	2011	2015	2014	2013	2012	2011
서울	38.6	38.6	40.6	42.5	44.0	71.0	69.2	63.6	54.6	44.1
부산	14.8	14.0	15.3	16.4	17.8	59.8	57.5	56.9	48.4	33.7
대구	15.1	15.3	16.4	18.3	17.7	62.6	59.2	54.9	46.3	34.3
인천	20.2	21.2	24.0	24.6	27.9	70.1	69.0	65.9	56.9	46.8
광주	13.8	13.0	13.3	14.1	15.6	65.1	61.6	59.0	51.9	41.0
대전	14.7	14.8	16.2	16.5	19.5	69.3	66.6	63.1	56.8	48.8
울산	12.9	11.0	10.4	11.2	12.5	53.2	52.0	45.7	38.7	25.8
세종	20.0	21.5	22.6	—	—	69.0	60.2	59.7	—	—
경기	24.4	25.1	25.9	27.4	27.3	62.9	60.7	58.0	49.4	38.5
강원	12.7	12.7	13.4	14.0	14.3	63.4	51.3	58.0	43.3	32.4
충북	13.1	14.4	13.9	15.2	15.5	59.0	58.0	58.1	45.5	36.9
충남	16.9	17.7	17.0	18.1	19.0	65.1	62.7	60.7	51.9	47.3
전북	13.7	14.3	13.5	16.1	16.1	58.7	59.2	58.7	49.6	41.2
전남	11.0	10.5	12.9	13.2	13.7	69.2	63.0	54.6	49.9	41.3
경북	11.0	11.5	12.5	12.0	13.1	62.7	63.5	58.9	51.5	37.9
경남	12.5	11.6	13.2	13.2	14.3	65.7	62.0	55.8	45.7	31.1
제주	15.5	15.3	12.3	15.8	14.4	32.2	39.4	39.2	32.2	22.1



【그림 IV-2】 광역시도별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비율 변화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비율 변화 추이는 지역 간 큰 편차가 없다는 것을 【그림 IV-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나는 특성화고 비진학 증가 추이 역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 간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비율 편차는 2005년도에 비해 미세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그림 IV-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는 달리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지역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아래 【그림 I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을 제외한 다른 주요 도시들의 일반고 청소년 비진학 비율은 2015년도에 들어 약 15%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지난 5년간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비율이 약 8% 가까이 감소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주요 도시들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비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3】 권역도시별 일반고 비진학 비율 변화 차이

그렇다면, 지역 간 대학 비진학자 비율의 편차는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해석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위 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자 규모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재수생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특성화고에 비해 일반고 출신 재수생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 간 비진학 청소년 규모의 차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재수 선택 비율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양분(2013)의 한국교육종단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재수생 비율 결과를 재구성한 아래 <표 IV-5>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재수생 비율이 약 26%에 달하는 반면 광역시는 12.5%, 중소도시 13.6%, 읍면지역은 7.4%를 보여 서울의 재수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계열 간 재수생 비율도 한국교육종단연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고 출신 재수생 비율이 16%인 데 반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수생 비율은 약 7.3%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특성화고 출신 재수생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아, 지역 간 특성화고 재수생 비율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지역 간 비진학 비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 역시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지역 간 재수생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의 높은 일반고 비진학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재수생 비율에서 비롯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IV-5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진학률 (2011~2013)

(단위 : 명, %)

구 분			재수생		전 체
			빈도	%	
학교특성 (고교)	지역 규모	특별시	177	26.0	680
		광역시	156	12.5	1,245
		중소도시	216	13.6	1,590
		읍면지역	49	7.4	664
	학교 계열	일반고	513	16.0	3,203
		전문계고	67	7.3	919
		특목고	18	31.6	57

* 출처 :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김양분, 2013)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대학 비진학자 비율 변화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비진학 청소년 비율 논의에서 더 나아가 지역 간 또는 학교 계열 간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 인구 추정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논의 대상이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소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규모 파악은 정책 대상으로서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다음 절에서는 우선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2.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 파악

지금까지 정부와 학계가 주로 활용해 온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인구라는 문제가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재수생을 포함한 비진학 비율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정책의도에 맞게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앞서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정책대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재수생 규모를 감안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 대상자로서의 비진학 인구 규모를 산출하였다. 재수생 비율을 제외한 정책 대상자로서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정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통계에 기초한 공식적인 대입 재수생 비율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수생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매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능시험응시자 수 이다. 수능응시자 수 자료에는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를 분류하여 수능응시자들의 구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응시자 정보에서는 수능 응시자들의 고교 계열 및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졸업생 구성이 재수 또는 삼수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온전하게 정확한 재수생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자료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능 응시자 자료는 전수조사에 기초해 재수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대학 비진학 인구 중 재수생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최근 5년간의 수능응시자료는 아래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수능시험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은 평균 21%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 약 22%에 육박했던 졸업생 비율은 2014년도 19.6%를 보이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도의 경우 수능응시자 중 ‘졸업생’ 구성비는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6 연도별 수능응시자 수

(단위: 명, %)

	재학생		졸업생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15	495,027	77.3	131,539	20.5
2014	509,081	78.2	127,634	19.6
2013	510,972	76.4	142,561	21.3
2012	526,418	75.9	151,887	21.9
2011	541,881	76.1	154,660	21.7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2015)

아래 <표 IV-7>은 연도별 수능응시자 중 졸업생 구성비를 활용하여 추정한 순수 비진학 인구 규모이다. 순수 비진학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교육통계연보에서 매년 제공하는 대학 비진학자 규모 가운데 해당 연도의 수능응시자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수생 규모로 가정하고 산출한 후, 이 규모를 대학 비진학 인구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순수 비진학 인구 규모를 추정하였다.¹³⁾ <표 IV-7>에 제시되어 있는 순수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비율이 29.2%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재수생 비율을 제외한 순수비진학자 규모는 23.2%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5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30%에 근접해 있는 반면 재수생 규모를 제외했을 때 나타나는 순수 비진학자 비율은 약 20% 초반 수준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수생 비율을 감안해 평균 순수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를 추정했을 때 재수생을 제외하기 전 비진학 인구 비율과 약 5~6%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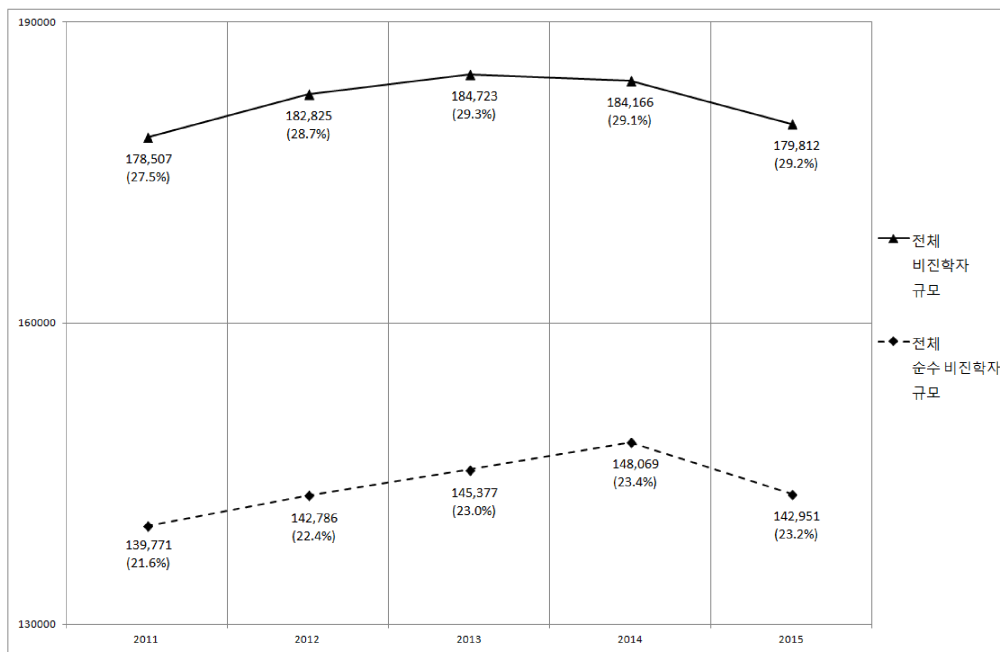
13)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 및 교육지표를 동원해 회귀분석에 기초한 재수생 인구 규모를 추정하여 순수비진학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복잡한 통계모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졸업자 및 대학 진학자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교육통계 연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해 재수생 인구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IV-7 순수 대학 비진학자 규모

(단위 : 명. %)

	졸업생	비진학(a)	재수생(b)	순수 비진학(a-b=c)
2015	615,462	179,812 (29.2%)	36,861 (20.5%)	142,951 (23.2%)
2014	632,983	184,166 (29.1%)	36,097 (19.6%)	148,069 (23.4%)
2013	631,197	184,723 (29.3%)	39,346 (21.3%)	145,377 (23.0%)
2012	636,724	182,825 (28.7%)	40,039 (21.9%)	142,786 (22.4%)
2011	648,468	178,507 (27.5%)	38,736 (21.7%)	139,771 (21.6%)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진학자 청소년 규모와 재수생 비율을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치를 【그림 IV-4】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4】에 나타나 있는 실선은 교육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비진학자 수이고 점선은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여 추정한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이다.



【그림 IV-4】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생(615,462명) 대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규모가 약 17만9천 명에 달하는 반면 재수생을 제외했을 때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약 14만2천 명으로 추정돼, 이 차이가 약 3만7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고를 졸업하고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재수생 비율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전체 고졸 재수생 비율을 이용해 일반고를 졸업한 순수 비진학자 규모를 산출하였다. 일반고를 졸업한 재수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래 <표 IV-8>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고의 순수 비진학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수생 규모를 배제한 일반고 비진학 규모 산출은 정책 대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표 IV-8>을 살펴보면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일반고의 순수 비진학 인구 규모와 일반고 졸업생 대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비율은 약 3~4%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재수생을 제외하지 않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이 약 20%~24% 수준을 보여 온 반면 재수생을 제외한 일반고의 순수비진학자 비율은 16%~2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이 21%를 보인 반면 재수생 규모를 제외했을 때 추정되는 순수비진학자 비율은 16.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8 일반고를 졸업한 순수 비진학자 규모

(단위 : 명. %)				
	졸업생	비진학 (a)	재수생 (b)	순수 비진학 규모 (a-b=c)
2015	442,590	93,940 (21.1%)	19,258 (20.5%)	74,682 (16.9%)
2014	453,046	96,294 (21.3%)	18,874 (19.6%)	77,420 (17.1%)
2013	449,975	110,133 (22.3%)	23,458 (21.3%)	86,675 (19.3%)
2012	453,242	116,771 (23.4%)	25,573 (21.9%)	91,198 (20.1%)
2011	470,605	123,083 (24.2%)	26,709 (21.7%)	96,374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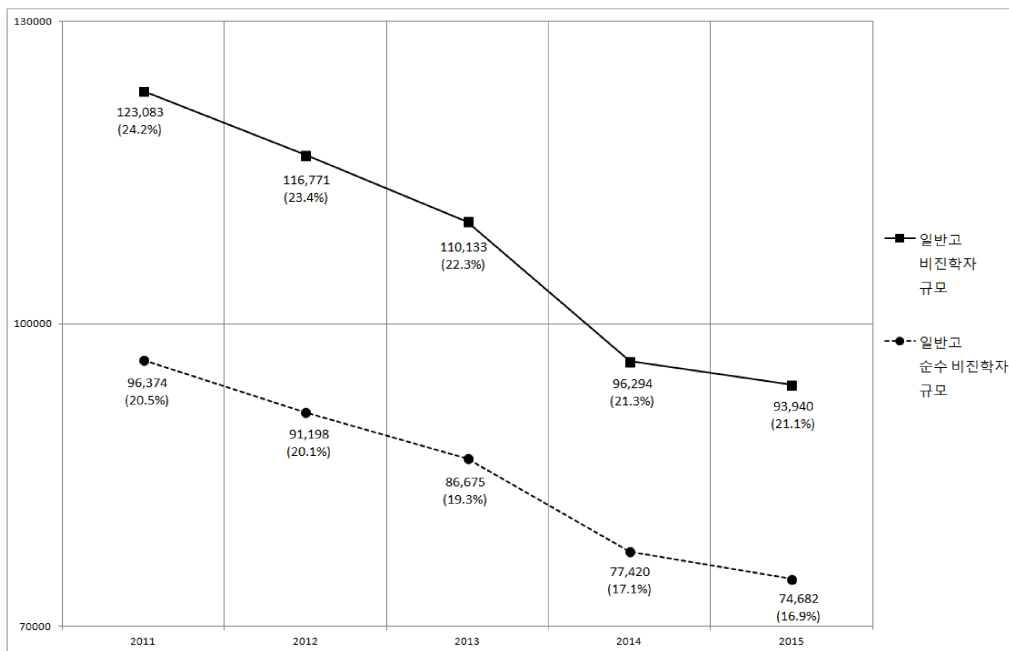
a. 교육통계연보 (2011~2015)에 기초해 산출하였음(고졸-대학 진학자/고졸)

b. 교육과정평가원 (2011~2015) 수능시험 응시자 수 중 '졸업생' 비율을 활용하여 비진학자 규모 대비 재수생 규모를 추정함

c. 비진학자 규모에서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추정 값

아래 【그림 IV-5】는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규모와 재수생을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나타난 순수 비진학자 규모와 재수생을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인구 차이는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고 출신 비진학자 규모는 약 9만3천 명으로 나타나지만,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순수 비진학자 규모는 약 7만4천 명으로 산출 돼 순수 비진학 규모와의 차이가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규모와 재수생을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평균 약 3-4만 명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의 경우 순수비진학 청소년 규모와 고졸 대비 대학 비진학 규모 간에는 약 2만 명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반고 출신 재수생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5】 일반고 순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파악은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정책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정책예산은 물론 정책방향, 프로그램 모형,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정책대상 규모 추정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인구를 재수생 인구를 제외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인구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수생 인구를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 인구로 추정해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비진학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1인에 할당된 예산비용이 15만원(201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안에 기초)이라고 가정했을 때 3·4만 명의 차이는 프로그램 예산규모에 있어 약 45·60억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책대상 규모 파악은 향후 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여기에서 추정된 순수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에 기초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 규모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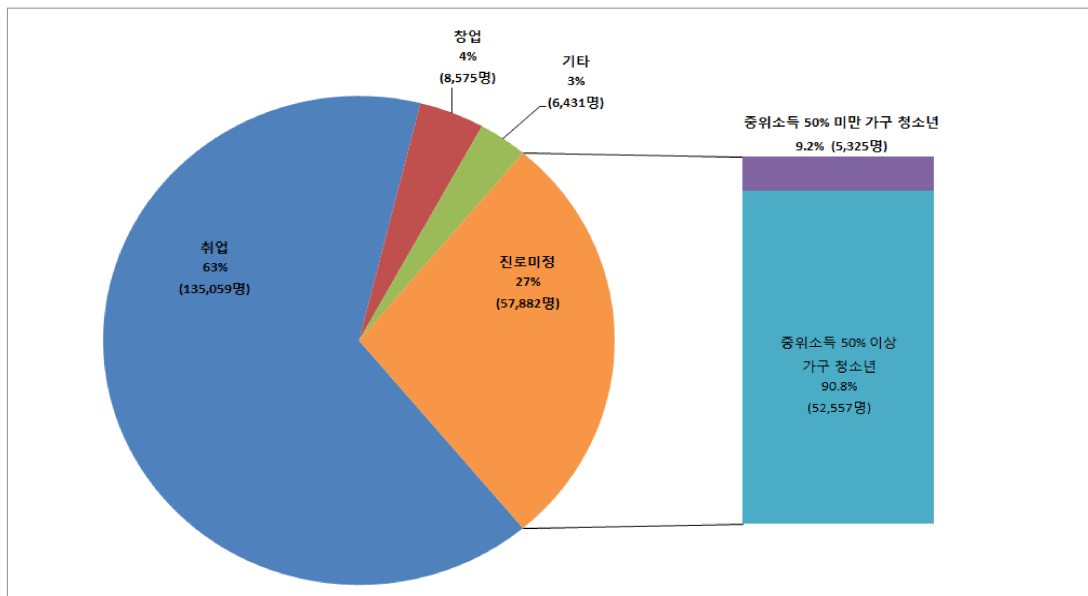
3.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 규모

이 절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기초해 프로그램 대상자로서의 비진학자 인구 규모를 추정하였다. 첫째,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대상자 규모를 산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의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이 대체로 특성화고 청소년들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일반고에 재학 중인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 중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을 주요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소년 스스로 향후 진로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역량개발과 함께 비진학 청소년들의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양분, 2013). 실제로 진로미정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비경제활동 인구 또는 청년 니트로 이행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기되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지경, 이광호,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는 고졸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을 우선적인 프로그램 정책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비진학 청소년 가구 중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우선적인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일 지라도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과 기회의 폭은 가정배경에 의해 제한되며, 이는 사회적 자립 과정에서 심각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향후 진로계획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정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일반고에 재학 중인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순수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를 토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 비율과 진로미결정 청소년 구성비를 활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향후 대학 진학 계획이 없으며 향후 진로 역시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일반고 청소년들 중 63%의 청소년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의 청소년들은 창업, 가업, 기타 등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약 27%의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 분석결과 결과에 나타난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인 청소년 비율을 반영해 포괄적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대상자 규모를 산출하였다.

진로미결정 청소년 규모 파악에 이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가정에 속한 청소년 비율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 보고된 만 12-17세 학생들 중 상대적 빈곤(소득기준 중위소득 50%미만) 가구 비율을 사용하였다. 전수조사에 기초한(일반고) 청소년 가정의 취약계층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만 12-17세 학생들 중 상대적 빈곤(소득기준 중위소득 50%미만) 가구 비율인 9.2%를 적용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되는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자의 규모는 아래 【그림 IV-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 출처 : 교육통계연보(2014) 자료에 기초한 일반고 학생 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에 근거한 일반고 진로미정 상태의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 추정값,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상대적)빈곤률에 근거한 일반고 취약계층의 진로미정 잠재적 비진학자 추정값임

【그림 IV-6】취약계층에 속한 일반고 진로 미결정 상태의 잠재적 비진학자 규모

교육통계연보(2015)에 의하면 현재 일반고(1학년-3학년 포함)에 재학 중인 총 학생 수는 1,278,008명으로, 이들 중 2015년도 재수생 비율 규모를 제외하면,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는 약 21만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약 27%에 달하는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이라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 분석결과를 적용했을 때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 중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은 약 5만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경제적 취약계층(상대적 빈곤률 9.2% 적용 시)에 속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약 5천3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에 재학 중이며 대학 진학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 중 향후진로를 구축하지 못한 약 5만7천 명의 청소년들을 포괄적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정하였으며, 이들 중 약 5천3백 명의 취약계층 가정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적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4.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소결

이 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05-2015년 동안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의 학교 계열 간,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재수생을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어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4)를 활용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향후 진로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규모를 추정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평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는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성화고의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약 6~10% 포인트의 증가 추이를 이어 온 반면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와 학계에서 사용해 온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는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해 온 대학 비진학 인구 규모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자 규모와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순수비진학 규모는 약 34만(5~6% 포인트) 명의 규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자를 산출한 결과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약 5만7천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정되었으며, 이들 중 약 5천3백 명의 청소년들은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로 우선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 변화 추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계열 및 지역을 구분해 비진학 청소년 논의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 대안 역시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비진학자 규모가 약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등학교 계열을 감안하지 않은 전체 비진학자 규모에 기초한 비진학 정책 대상 논의는 무의미 할 수 있다. 둘째, 비진학자 규모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비진학 청소년 정책 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학 비진학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약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돼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다른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수생 규모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진학 청소년 개념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수생을 비진학 규모에 포함시키는 접근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로서 비진학자 규모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V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통계 분석 결과

1.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실태 분석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 V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통계 분석 결과¹⁴⁾

1. 분석의 틀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와 증가 추이를 앞 장에서 살펴본 데 이어 이 장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실제로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이루어진 분석들이 지난 10년간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개인배경 특성, 학교 특성, 인식 등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대학 비진학으로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데이터는 고3 시기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학교경험, 학업능력 등과 같은 개인 및 소속 고등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고졸 후 청소년들이 직업세계로 이행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 (ie, 취업, 진로, 진학)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갖는 패널 데이터에 기초한 비진학 연구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은 일반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계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종단 데이터로서 2004년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고3코호트 조사 자료는 현재 2차 wave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대학 진학자, 비진학 청소년, 재수생 등을 포함한 종단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고3 청소년들을 추적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대학생활, 취업교육, 일상생활, 직업의식 및 노동진입 실태에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14) 이 장은 윤민중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음.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1:1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적으로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가구보호자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1:1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 규모는 일반고 3학년 청소년 2,000명, 학교 행정가 300명, 담임교사 1,112명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대비 2차년도 조사에서 확보한 성공 유효 표본 비율 역시 약 90.3%로 나타나 패널 데이터로서의 질적 완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관계 및 소통 여부(문화 및 사회 자본), 자아성숙도, 학교 특성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고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육훈련, 구직경험, 근무여건 등 노동시장 초기 진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반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실태 분석

1) 사회경제적 배경

우선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정의 소득 수준, 자산,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교육수준, 생활비, 사교육비와 함께 가족구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구성 형태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비교 분석해 대학진학계획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잠재적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조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서 차년도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군입대, 진로미결정 상태인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들은 일반고에 재학 중이며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칭한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가족구성 특성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소득 수준을 보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은 2,790만 원 인데 반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소득은 약 3,200만 원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구에 비해 약 2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역시, 자산규모를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약 34% 정도가 하위 집단에 속해 있던 반면 대학 진학 예정자 부모 가구의 경우 약 17%만이 하위 집단에 포함되었다. 또,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부모 가구의 3%가 상위

표 V-1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가족구성 특성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SD)	잠재적 진학자(SD)	차이
소득(만원)		2,790.56 (2,480.45)	3,230.07 (2,000.93)	1.74*
자산(%)	상	2.99	12.73	15.79***
	하	34.33	17.36	
경제활동 (%)	부	90.78	85.29	2.36
	모	67.65	59.85	3.45
교육수준	부	4.81 (1.19)	5.48 (1.29)	4.07***
	모	4.49(0.90)	4.96 (1.04)	3.56***
생활비(만원)		202.16 (105.01)	240.24 (130.39)	2.38**
사교육비 (만원)		24.58(35.12)	43.84 (49.93)	3.15**
가족구조	양부모(%)	76.47	90.56	26.57***
	형제 · 자매 수(명)	2.21 (0.70)	2.19 (0.66)	-0.20

* p<.10, ** p<.05, *** p<.01

집단에 속해 있었던 반면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 부모 가구 중 12%는 상위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생활비와 사교육비 지출 정도 역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정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으로 나타난 데 반해 대학 진학 예정인 청소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40만 원으로 확인돼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정에 비해 약 20%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가정의 경우 비진학 청소년 가정 (24만 원)의 약 2배에 가까운 월 4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대학 진학 예정 집단과 잠재적 비진학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비진학 청소년 가정의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교육수준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가구주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의 청소년 부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인 반면 잠재적 비진학 집단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머니 교육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약 9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양부모 (계부·모 포함)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잠재적 비진학 집단의 경우 약 76%의 학생들만이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한부모 가정 출신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제·자매 수는 잠재적 대학 진학과 비진학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부모와의 관계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이어 <표 V-2>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집단과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 집단 간 부모와 자녀의 대화 여부, 부모의 자녀 교육관심도, 자녀의 일상생활 대한 부모의 관심도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내용 (퍼센트)을 제외한 설문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점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보호자가 응답한 분석 결과이다.

<표 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는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가 비진학 집단 부모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와의 대화 여부’, ‘학업성적’, ‘친구관계’, ‘친한 친구의 부모 인지’, ‘학교 생활’, ‘생활습관’, ‘개인적인 고민’ 등 모든 하위 문항에 대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부모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부모에 비해 자녀의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 및 진학 계획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 (SD)	잠재적 진학자 (SD)	차이
부모 관심도	자녀와 대화		2.15 (0.89)	2.38 (0.90)	2.14**
	학업 및 성적		3.68 (0.76)	3.89 (0.73)	2.36**
	친구		3.32 (0.89)	3.53 (0.81)	2.00**
	친한 친구의 부모		2.52 (0.97)	2.70 (0.98)	1.48
	학교 생활		3.24 (0.88)	3.46 (0.81)	2.24**
	생활 습관		3.90 (0.81)	4.12 (0.76)	2.32**
	개인적 고민		3.04 (0.98)	3.27 (0.93)	1.93*
부모와의 대화	향후 미래(%)		75.00	78.66	0.55
	적성과 흥미(%)		72.22	85.11	8.86***
	직업, 학교, 학과 선택(%)		70.83	91.45	34.98***
	직업, 학교, 학과 정보탐색(%)		52.78	71.47	11.73***
부모의 교육관심도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3.02 (0.87)	3.46 (0.92)	3.91***
	자녀 향후진로 인지여부	모름(%)	8.82	3.31	43.67***

* $p < .10$, ** $p < .05$, *** $p < .01$

자녀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부모와의 대화 여부’ 역시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 85%의 대학 진학 계획인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데 반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약 72% 만이 부모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대화 경험 여부 역시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 약 91%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직업, 학교, 학과 선택’과 관련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약 70%만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부모와 상의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보 탐색 관련 문항에서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약 91%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진로정보를 같이 탐색한 경험이 있는 반면 잠재적 비진학자 집단의 경우 약 51%의 청소년들이 진로정보 탐색 경험을 부모와 공유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기대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이었던 반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자녀 교육기대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에 가까웠다. 자녀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잠재적 비진학자 집단의 부모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8.8%의 부모들이 자녀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앞서 잠재적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와의 관계 특성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비행경험여부를 분석하고, <표 V-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고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수면 시간, TV 시청 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대학 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약 1시간가량 많았으며, TV 시청 시간의 경우 약 30분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약 43%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약 19%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 역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표 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16%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실제로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 비율인 6%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생활 중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약 19%의 청소년들이 징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중 약 4명 중 1명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중 1명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들의 생활 실태 비교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 SD)	잠재적 진학자 (SD)	차이
비행	가출 경험 (%)	16.67	6.03	13.07***
	재학 중 징계 (%)	19.44	7.08	15.24***
	흡연 (%)	25.00	7.66	27.46***
	음주 (%)	58.33	41.01	8.57***
일상생활	수면 (시간)	6.38 (1.33)	5.57 (0.94)	-6.99***
	TV 시청시간(시간)	1.93 (1.03)	1.40 (0.69)	-6.26***
	컴퓨터 사용 (시간)	2.55 (0.88)	2.39 (0.73)	-1.54
	아르바이트 경험(%)	43.03	19.19	24.64***

* p<.10, ** p<.05, *** p<.01

4)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분석한 데 이어 아래 <표 V-4>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자아성숙도 설문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점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청소년들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아래 <표 V-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는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성숙도 세부 문항에 있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본인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의 중요한 부분’, ‘계획 수행 능력’ 등 대부분의 자아성숙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자아성숙도 비교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 (SD)	잠재적 진학자 (SD)	차이
자아성숙도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3.19 (0.91)	3.46 (0.87)	2.55**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52 (0.82)	3.88 (0.78)	3.75***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3.58 (0.92)	3.77 (0.80)	1.95*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3.08 (0.88)	3.25 (0.86)	1.57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2.93 (0.83)	3.14 (0.80)	2.1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6 (0.75)	3.49 (0.80)	2.39**

* $p < .10$, ** $p < .05$, *** $p < .01$

5)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살펴보았다. 직업의식 중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 선택 시 고려 1순위 요인, 직업생활의 성공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집단과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들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표 V-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은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65%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식한 반면 대학 진학 계획 예정인 청소년들의 경우 약 48%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 ‘자아실현’을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대학 진학 계획 예정인 청소년 비율이 약 31%로 나타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요인과 관련해서는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임금과 소득을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비율이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의식에 있어 두 집단 간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5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직업의식 비교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SD)	잠재적 진학자(SD)	차이
직업을 갖는 이유	자신과 가족을 위해	65.28	48.79	8.35**
	자아실현을 위해	18.06	31.48	
	기타	16.67	19.72	
직업선택요인 1순위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61.11	63.40	8.21
	높은 임금이나 소득	22.22	13.90	
	기타	16.67	22.70	
직업생활의 성공요인	돈(자본)	23.61	9.65	16.60**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	50.00	55.58	
	본인의 능력	12.50	19.51	
	기타	13.89	15.26	

* $p < .10$, ** $p < .05$, *** $p < .01$

직업생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개인의 노력 및 성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돈과 자본을 직업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의 비율은 약 23% 수준으로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약 25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본인의 능력을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 진학 예정인 청소년의 비율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약 7%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물질적 보상을 직업선택 및 직업을 갖는 이유로 꼽는 동시에 사회적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의 능력 및 성실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며 자아실현을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어 두 집단 간 노동 및 직업생활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학교 특성

앞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개인 배경 변인 및 인식 수준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생활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V-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비율(58.33%)이 사립학교(4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를 보면 시군구 43%, 읍면 지역 32%, 특별시·광역시 25%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표 V-6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가 재학하는 학교 구조적 특성 비교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SD)	잠재적 진학자(SD)	차이
설립유형	국/공립	58.33	44.36	5.47**
지역규모	특별시/광역시	25.00	48.72	17.96***
	시군구(동)	43.06	32.67	
	읍/면지역	31.94	18.67	
고교계열	문과	54.17	54.85	96.46***
	이과	25.00	37.76	
	예체능	5.56	6.40	
	직업반	15.28	1.00	

*p<.10, **p<.05, ***p<.01

학교 소재지는 특별시·광역시 48%, 시군구 32%, 읍면지역 18%를 보여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시군구 또는 읍면 지역에 더 높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 전공 계열 중 문과 비율의 경우 잠재적 비진학자 집단과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직업반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과, 이과, 예체능 계열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

학교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데 이어 <표 V-7>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집단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수업시간 흥미도 조사는 5점 척도도로 이루어져 1점 '만족하지 못한다' 부터 5점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적 비진학 집단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업 흥미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학교 생활만족도의 경우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이 잠재적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학교생활 실태 비교

구 분	잠재적 비진학자(SD)	잠재적 진학자(SD)	차이
학교생활 만족도	2.99(0.88)	3.31(0.80)	3.41***
수업 시간 흥미도	3.08(.80)	3.00(.100)	.88
일반고 선택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26.39	11.17	15.53***
적성 및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있음)	43.06	59.05	7.31***
친구와 미래진로에 대한 대화(있음)	34.72	63.40	24.31***

* $p < .10$, ** $p < .05$, *** $p < .01$

이어서 학교 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약 59%가 '있다' 라고 응답한 반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약 43%가 '있다' 라고 응답해 교사들의 진로 관심도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일반고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을 고려하여 일반고에 진학하게 됐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약 74%로 나타난 반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약 38%만이 일반고 진학 시 대학 진학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고졸 후 진로 방향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친구와의 대화 내용에서도 약 33%의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은 ‘미래 진로’ 관련 내용이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대화 내용 1 순위는 취미, 게임, 운동, 음악이 차지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과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8)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실태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하며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가족 구성 특성을 보면 한부모 가정 출신 비율이 높으며, 하교 시 가정에 보호자가 부재한 비율도 대학 진학을 가진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향후 진로에 대한 대화 여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 역시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물질적 보상이 직업선택 및 직업을 갖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생활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학교 만족도는 대학 진학 계획 예정인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역시 학교 내에 부족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

앞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본 데 이어 이 절에서는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삶에 대한 이해는 크게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일상생활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일반고를 졸업한 후 비진학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초기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일반고를 졸업하고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 즉 재수생이 아닌 순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또 이 분석에서는 대학을 진학했다가 자퇴한 고졸 청소년들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 고졸 재수생과 대학 자퇴 청소년들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이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 또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청소년들로 연구의 관심을 한정시킨다.

1)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간략하게 고졸 비진학 청소년 가정의 소득수준, 자산규모, 부모의 경제활동여부, 부모교육 수준, 가족구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아래 <표 V-8>에 제시되어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약 250만 원이었으며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은 약 310만 원으로 나타나, 고졸비진학자 가정에 비해 약 24%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규모 역시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규모를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가구 중 약 43%는 자산규모 하위 집단에 속해 있던 반면 대학에 진학 한 청소년 가구의 경우 약 17%가 하위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교육비 역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가구의 경우 비진학 청소년 가정에 비해 월 평균 2배 이상의 지출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도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비진학 청소년 부모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 수준인데 반해 대학 진학 청소년 부모의 경우 전문대 졸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약 64%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해 온 것에 반해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가정은 90% 이상이 양부모 가정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V-8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비교

구 분		고졸 대학 비진학자(SD)	대학 진학자(SD)	차이
소득(만원)		2,584.91(312.30)	3,108.84(49.96)	1.92*
자산(%)	상	7.55	11.14	21.71***
	하	43.40	17.96	
경제활동(%)	부	75.47	90.64	17.77***
	모	62.26	58.88	6.99**
교육수준	부	4.72(1.44)	5.42(1.28)	3.52***
	모	4.76(1.14)	4.89(1.01)	0.80
가족구조	양부모(%)	64.15	90.45	43.73***
	형제자매 수(명)	2.17(0.64)	2.20(0.68)	0.34

* $p < .10$, ** $p < .05$, *** $p < .01$

2)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을 살펴본 데 이어 아래 <표 V-9>에서는 부모들의 관심도, 부모와의 대화 여부,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관심도에 있어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업 및 성적을 제외하면 부모 관심도의 하위 영역들에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부모와의 대화 여부는 고졸 비진학 집단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향후 미래’에 대한 대화 여부 항목을 제외하고 ‘적성과 흥미’, ‘직업, 학교, 학과 선택’ 및 ‘정보탐색’등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집단에 비해 향후 진로와 관련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역시 고졸 비진학 집단과 대학 진학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향후 진로 여부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대학 진학 집단 부모의 경우 약 3.4%였던 것에 반해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 부모의 비율은 13.2%로 약 4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9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대학 진학 청소년들의 부모 자녀 관계 비교 분석

구 분			고졸 대학 비진학자(SD)	대학 진학자(SD)	차이
부모 관심도	자녀와의 대화		2.30(0.91)	2.37(0.90)	0.57
	학업 및 성적		3.60(0.88)	3.88(0.72)	2.69***
	친구		3.43(0.93)	3.52(0.81)	0.76
	친한 친구의 부모		2.57(1.08)	2.70(0.99)	0.97
	학교 생활		3.43(0.84)	3.44(0.81)	0.04
	생활 습관		4.00(0.83)	4.11(0.77)	0.99
	개인적 고민		2.94(1.08)	3.25(0.92)	2.32**
부모와의 대화	향후 미래(%)		75.00	77.90	0.26
	적성과 흥미(%)		71.43	85.21	7.94***
	직업, 학교, 학과 선택(%)		67.86	90.95	32.55***
	직업, 학교, 학과 정보탐색(%)		53.57	71.35	8.26***
부모의 교육관심도	과외비(만원)		20.09(29.43)	41.18(49.56)	3.08***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2.98(1.15)	3.41(0.89)	3.44***
	자녀 향후진로 인지여부	모름(%)	13.21	3.42	35.63***

* p<.10, ** p<.05, *** p<.01

3)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실태

이상의 논의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V-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약 26%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약 40%의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음주 횟수가 1회 이상인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주중 기준으로 하루 평균 수면 6시간,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4.8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5.7시간을 합산해 보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일과 중 2/3 (약 16.5 시간)를 수면, TV 시청 및 컴퓨터 사용에 할애하며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0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구 분			%
고민	공부	없음	46.43
		보통	37.50
		심각	12.50
		매우 심각	3.57
	진학, 진로	없음	35.71
		보통	37.50
		심각	19.64
		매우 심각	7.14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없음	26.79
		보통	44.64
		심각	21.43
		매우 심각	7.14
흡연 여부		예	39.29
		아니오	60.71
음주 빈도		전혀 마시지 않음	19.64
		일 년에 한두 번	10.71
		한 달에 한두 번	23.21
		일주일에 한두 번	33.93
		일주일에 세 네 번	7.14
		거의 매일	5.36
잠자는 시간		평균	6.11
		표준편차	1.25
TV시청 시간		평균	4.86
		표준편차	2.78
컴퓨터사용 시간		평균	5.71
		표준편차	4.21

4)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첫 일자리 특성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고등학교 졸업 후 지난 6개월간의 취업 경험 유무 및 구직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고 졸업 후 일자리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V-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고를 졸업하고 지난 6개월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약 66%로, 이들 중 유급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은 67%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약 60%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구직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6.6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횟수가 2번 이하라고 응답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도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가져본 비진학 청소년은 약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 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약 16%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경험

구 분			%	
일자리 경험여부	예	유급	66.07	67.57
		무급		32.43
일자리를 가진 횟수	2번 이하		70.27	
	3번 이상		29.73	
구직활동경험여부	예		60.71	
	아니오		39.29	
구직활동기간	평균(주)		6.58	
	표준편차		4.60	
교육경험여부	예		16.07	
	아니오		83.93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횟수	1번		84.00	
	2번이상		16.00	

이어서 아래 <표 V-12>에서는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V-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 84%의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험한 일자리는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것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월 평균 임금은 67만 원 (표준편차 23만 원)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이유로는 ‘기타’와 ‘적은 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망이 없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무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장기 근로를 가로막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2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구 분		%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 여부	예	84.00
	아니오	16.00
평균임금	평균(만원)	67.08
	표준편차	23.71
그만둔 이유	전망이 없어서	16.00
	적성에 맞지 않아서	16.00
	보수가 적어서	20.00
	근무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	16.00
	계약기간이 끝나서	4.00
	사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	4.00
	기타	24.00

5)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성(고졸 후 약 만 6개월 지난 시점)

일반고 졸업 후 6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경험여부를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현재 취업 중인 일자리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고 졸업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고졸 청소년은 약 47%였으며,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6%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일자리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16%), 숙박 및 음식점을 비롯한 오락(16%),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예:PC 방) 같은 서비스업 종사 비율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3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로형태(고졸 후 5개월이 지난 시점)

구 분		%
현재취업여부	예	57.14
	아니오	42.86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 여부	예	46.67
	아니오	53.33
직장규모	10인 이하	56.67
	11인 - 49인	16.67
	50인 - 299인	13.33
	300인 이상	13.33
현재 일자리의 산업분류	제조	26.67
	도매 및 소매	16.67
	숙박 및 음식점	16.67
	사업서비스	3.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6.6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67
	미분류	3.33

이어서 교육고용패널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무조건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V-1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주당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청소년 비율은 약 81%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평균 약 51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근로 소득을 포함한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8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중은 약 26~30%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4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무 환경 및 일자리 만족도

구 분			%
근무시간(시간)		평균	51.14
		표준편차	13.28
일주일 평균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이하	18.18
		40시간 초과	81.82
4대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예	30.00
		아니오	70.00
	국민건강보험	예	30.00
		아니오	70.00
	고용보험	예	33.33
		아니오	66.67
	산재보험	예	26.67
		아니오	73.33
현재 일자리 만족도	근무환경	평균	3.10
		표준편차	0.93
	근무시간	평균	3.27
		표준편차	0.9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평균	3.70
		표준편차	0.92
	임금	평균	2.97
		표준편차	1.10
	개인의 발전 가능성	평균	2.60
		표준편차	1.19
	복지 및 후생	평균	2.67
		표준편차	0.76
	직장의 안정성	평균	2.87
		표준편차	1.04

현재 취업 중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을 5점 척도 (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 현재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및 후생과 직장의 안정성 역시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근무시간, 근무환경, 임금과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미취업 중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구직 요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무실태를 살펴본 것에 이어 여기에서는 미취업 중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향후 취업의지, 구직활동 여부, 취업의사, 기대임금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V-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 중 지난 일주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약 69%로 나타났다. 미취업 중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약 54%의 청소년들은 취업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하고 있지 않은 많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니트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기대 임금 수준 역시 74만 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5 현재 미취업 중인 고졸 청소년의 구직 요건

구 분		%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 경험 여부	예	4.17
	아니오	95.83
지난 일주일간 구직활동 여부	예	30.43
	아니오	69.57
취업 의사	예	45.83
	아니오	54.17
기대임금수준 (만원)	평균	74.00
	표준편차	28.75

7)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실태 소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하며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역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첫 직장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로였으며 졸업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이들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에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율은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16%), 숙박 및 음식점을 비롯한 오락 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며 평균 월급은 67만원으로 나타났다. 약 80%이상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무직 상태에 놓이거나,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근로와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실제로 직업교육을 받아 본 청소년은 10명 중 16명 꼴로 다수의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단순 제조업 또는 서비스직에 근무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및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직장에서도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생활 실태, 노동환경 등 실태를 살펴본 데 이어 이 절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대학 비진학 계획과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의 경우 어떠한 개인 및 학교 관련 변인들이 일반고 3학년 청소년들의 고졸 후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 역시 고교 졸업 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 또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사전분석에 기초해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논의되어 온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도 또는 수능성적,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았다.¹⁵⁾ 또, 일반고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 및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업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Subgroup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분석은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인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단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표집을 선별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교육 수준, 양부모 가정 여부 변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만들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다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경제적 취약계층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취도 하위집단 역시 학급 석차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이들 중 하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성취도 하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아래 분석 모형에서 활용된 모든 독립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와 변인 설명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분변수가 종속변인일 때 사용하는 로짓(Logit) 모형 분석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짓 분석 모형은 교육고용패널 데이터의 위계적인 데이터 구조(학생, 교실, 학교)를 반영하지 못해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동시에 통계적인 유의도를 과장 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분석에서는 교육고용패널 데이터의 위계적인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휴벌트-화이트 표준오차 (Hubert-White Standard error) 추정방식을 도입한 로짓 분석을 통해 대학 진학계획과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5) 이 변인들 중 잠재적 비진학 모형과 고졸 비진학 모형에 활용된 독립 변인들은 각 모형분석의 취지와 선행분석 결과에 기초해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

1)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먼저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모형의 종속변인은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대학 진학 예정자들을 0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고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분석모형은 우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1차 모형에 이어 자아성숙도 및 미래계획 유무를 2차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의 구조적 특성 및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아래 <표 V-16>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배경을 1차 모형에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이와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표 V-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3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내신)는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과 가족구성 특성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도 비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대학 비진학 계획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구성 역시 비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일 경우 비진학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방과 후 보호자 유무,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부모와 미래 진로 대화, 사회적 자본)들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개인의 자아성숙도 및 향후 직업계획 유무를 추가한 모델 3의 경우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는 진학 계획 여부에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6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 (남성)	0.53(0.43)	0.42(0.44)	0.41(0.47)	0.38(0.38)
자산 규모	0.48(0.27)+	-0.37(0.30)	-0.44(0.30)	-0.61(0.33)+
부_교육수준	-0.33(0.16)*	-0.31(0.16)*	-0.24(0.16)	-0.19(0.16)
모_교육수준	-0.14(0.22)	-0.07(0.23)	-0.07(0.24)	-0.12(0.24)
양부모 가정	-1.34(0.63)*	-1.29(0.62)*	-1.21(0.65)+	-1.55(0.64)*
형제 · 자매 수	-0.30(0.19)	-0.30(0.19)	-0.28(0.21)	-0.24(0.21)
학업 성적	0.04(0.01)**	0.04(0.01)**	0.04(0.01)**	0.03(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		0.55(0.36)	0.61(0.39)	0.41(0.45)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19(0.22)	-0.19(0.22)	-0.04(0.20)
미래진로대화		-0.08(0.14)	-0.00(0.15)	0.08(0.17)
사회적자본		-0.21(0.22)	-0.15(0.22)	-0.03(0.18)
미래직업계획 (있음)			-0.47(0.37)	-0.44(0.38)
자아성숙도			-0.42(0.18)*	-0.32(0.20)
고교유형 (공립)				0.64(0.40)
고교계열 (문과)				0.11(0.33)
지역 (특별시/광역시)				-0.10(0.71)
지역 (시군구(동))				0.02(0.74)
일반계 진학이유 (대학진학)				-1.07(0.37)**
학교만족도				-0.16(0.2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				-0.79(0.36)*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0.57(0.36)
절편	-1.11(1.26)	-1.08(1.49)	-1.07(1.57)	0.82(1.72)

+p<.10, *p<.05, **p<.01

마지막 모형에서는 학교의 구조적 변인들과 함께 일반고 진학 이유, 학교만족도, 친구와의 대화 우선순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와 같은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대학 진학 계획에 미치는 학교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학교의 구조적 특성(고교유형, 고교계열, 학교 소재지)에 따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반고 진학 이유가 대학 입학 목적이 아니었던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학교 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의 유무는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에 따른 진학 계획 확률비는 .45배($=\exp(-0.79)$)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45배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대학 진학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교 내 의미 있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비진학 계획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형 분석이 일반고에 재학 중인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래 분석 결과 V-17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아래 <표 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부모 가정구성 변인들은 다른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 계획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양부모 가정일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집단일지라도 집단 내 성취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학업성적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하위 집단 내 학업성취도 역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수준이 낮은 집단 내에서도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의 구조적 특성 및 학교경험 변인들이 대학 진학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사립학교 학생에 비해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학업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고교계열, 학교 소재지, 학교만족도, 동료들과의 대화 우선순위 같은 요인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 당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대학 비진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수록 청소년들은 비진학 보다 대학 진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7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성취도 하위 집단 모형 (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 (SE)
성별(남성)	0.70(0.50)	0.80(0.71)
자산 규모	-0.76(0.44)+	-
부_교육수준	0.09(0.24)	-
모_교육수준	-0.36(0.34)	-
양부모 가정	-2.01(0.67)**	-
형제·자매 수	-0.02(0.23)	1.24(0.50)*
학업 성적	0.04(0.03)	.029(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	-0.18(0.53)	1.96(1.03)+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07(0.32)	-0.09(0.29)
미래진로대화	0.09(0.20)	-0.24(0.39)
사회적 자본	-0.18(0.21)	0.17(0.62)
미래직업계획(있음)	-0.45(0.51)	-0.18(0.73)
자아성숙도	-0.18(0.23)	0.01(0.38)
일반고 진학 목적(대학진학)	-1.90(0.46)**	-2.25(0.95)*
학교생활 만족도	-0.24(0.25)	-0.41(0.92)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있음)	-0.99(0.42)*	-1.66(0.7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0.40(0.42)	0.81(0.95)
고교유형(공립)	0.87(0.50)+	0.57(1.16)
고교계열(문과)	-0.43(0.40)	1.00(0.83)
지역(특별시/광역시)	-0.37(0.71)	-0.40(1.02)
지역(시군구(동))	-0.09(0.82)	-0.95(1.24)
절편	0.17(3.27)	-5.27(3.05)+

+p<.10, *p<.05, **p<.01

그렇다면 과연 대학 진학 계획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고3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아래 <표 V-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배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형제자매 수와 방과 후 보호자 유무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자매 수가 많고 방과 후 집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 변인들은 전체모형 분석 결과 <표 V-16>와는 달리 대학 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배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학교 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졸 비진학 이행 요인 분석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데 이어 아래 <표 V-18>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로짓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형을 분석하였다. 대학 진학자들을 0 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았고,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능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구성 변인들을 포함한 모델1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고 청소년들의 수능성적은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비진학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반면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 형제자매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은 수능성적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보다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8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남성)	0.33(0.48)	0.16(0.50)	0.16(0.51)	0.22(0.48)
자산 규모	-0.38(0.51)	-0.28(0.51)	-0.27(0.51)	-0.29(0.55)
부 교육수준	-0.23(0.29)	-0.21(0.31)	-0.24(0.30)	-0.23(0.30)
모 교육수준	0.47(0.42)	0.57(0.45)	0.57(0.45)	0.44(0.43)
양부모 가정(친부모)	-1.33(1.24)	-0.84(1.27)	-0.81(1.30)	-1.19(1.16)
형제·자매 수	-0.26(0.20)	-0.33(0.22)	-0.31(0.21)	-0.14(0.21)
수능 성적(백분위)	-1.41(0.30)**	-1.51(0.36)**	-1.50(0.36)**	-1.72(0.36)**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		0.43(0.58)	0.43(0.58)	0.56(0.59)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26(0.29)	0.25(0.29)	0.16(0.34)
미래진로대화		-0.35(0.19)+	-0.37(0.19)*	-0.35(0.17)*
사회적 자본		0.47(0.28)+	-0.51(0.27)+	-0.54(0.32)+
미래직업계획(있음)			-0.04(0.51)	0.22(0.56)
자아성숙도			0.22(0.22)	0.32(0.23)
일반고 진학이유(대학진학)				0.63(0.59)
학교만족도				-0.23(0.29)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있음)				-0.30(0.5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0.28(0.47)
잠재적 비진학				1.42(0.73)+
고교유형(공립)				-1.19(0.57)*
고교계열(문과)				0.59(0.39)
지역(특별시/광역시)				2.64(1.18)*
지역(시군구(동))				2.37(1.29)+
절편	-3.69(2.01)+	-5.93(2.25)**	-5.85(2.22)**	-7.31(2.23)**

+ $p < .10$, * $p < .05$, ** $p < .01$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 및 대화 여부를 추가한 모델2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지의 여부와 사회적 자본이 대학 진학 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수학능력 점수가 동일하다면 부모의 자녀 관심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과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일 수록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독립 변인들이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것에 반해 고졸 후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들의 진로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청소년들의 고3 재학 시절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를 추가한 모델

3의 분석결과에서는 자아성숙도나 고교 시절 직업계획 여부가 고졸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구조적 특성과 학교경험 변인들을 포함한 마지막 모형에서는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대학 진학 계획이 없었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 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계획을 갖는지의 여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 학교만족도,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유무,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등의 변인은 비진학 이행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V-19>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결과는 수능성적 하위 집단(하위 33%) 청소년들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학 결정요인을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V-19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수능 하위 집단 모형(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SE)
성별 (남성)	0.46(0.62)	-0.12(0.64)
자산 규모	0.01(0.76)	-
부 교육수준	-0.26(0.36)	-
모 교육수준	0.62(0.57)	-
양부모 가정 (친부모)	-1.85(1.30)	-
형제 · 자매 수	-0.14(0.25)	-0.60(0.35)+
수능 성적(백분위)	-2.15(0.80)**	-1.95(0.57)**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	0.60(0.65)	0.47(0.92)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35(0.46)	0.61(0.64)
미래진로대화	-0.36(0.20)+	-0.55(0.28)+
사회적 자본	-0.54(0.43)	-0.43(0.51)
미래직업계획 (있음)	-0.15(0.67)	0.38(0.66)
자아성숙도	0.11(0.25)	0.32(0.42)
일반고 진학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1.02(0.53)+	0.31(0.99)
학교만족도	-0.33(0.46)	0.05(0.4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	-0.90(0.70)	-0.37(0.87)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0.03(0.53)	0.02(0.71)
잠재적 비진학	1.78(0.82)*	1.51(1.15)
고교유형 (공립)	-1.97(0.94)*	-0.78(0.76)
고교계열 (문과)	0.42(0.48)	1.73(0.79)*
지역 (특별시/광역시)	2.45(1.12)*	2.64(1.00)**
지역 (시군구(동))	1.36(1.36)	2.29(1.41)
절편	-8.20(2.96)**	-9.68(2.52)**

+ $p < .10$, * $p < .05$, ** $p < .01$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부모와 향후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면 비진학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낮더라도 부모와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화가 부족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반고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른 개인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외에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3 시기 대학 진학계획에 유의미한 영향(표 V-16 참조)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종 대학 비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진학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V-19>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일 지라도 수능성적이 좋은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구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형제·자매 수가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일지라도 자신의 진로 계획을 부모와 상의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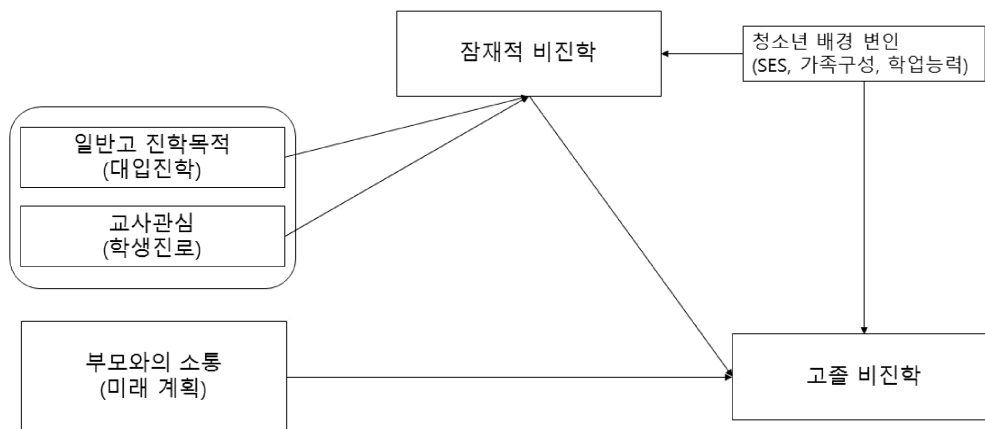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의 구조적 특성 역시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 중 문과 계열 출신 청소년들은 이과 출신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경험은 사회구조적 특성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소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적, 가족구성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업성적이 낮았으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고 입학 당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고3 시기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일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의 존재 유무는 청소년들이 대학에 비진학할 계획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을 경우 청소년들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학교효과 논의에서 강조되어 온 학교 내 ‘의미 있는 타자’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청소년들의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능성적은 일반고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확인된 반면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3 시절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고 재학 중 어떠한 진로 계획을 구축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진로교육과 학교생활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대학 진학 계획은 청소년들이 고졸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잠재적 비진학 및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아래 【그림 V-1】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V-1】 잠재적 비진학 및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와의 대화 정도로 나타났다. 고3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향후 대학 진학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의사소통 여부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수능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능성적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 가정의 청소년들이라도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경우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가정 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의사소통 여부는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 부모,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통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일반고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3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계획이 학교 내 교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고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 여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관심 정도와 미래 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상의 모형분석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VI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서론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3. 실태
4. 소결

제 VI 장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담 분석 결과¹⁶⁾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일반고(흔히 인문계고)에 진학 한 후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선택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여전히 대학은 갈 수만 있다면 가야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가 다수이다. 한국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그런 생각을 대변한다.¹⁷⁾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에 뛰어들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청소년들조차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는 형국에서, 우리 사회는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을 대체로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였다. 그 실패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고 출신의 비진학자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이루어진 몇 연구에 따르면, 대학진학 이외의 진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은 졸업 이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불투명한 미래 설계로 불안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여러 사유로 뚜렷한 미래 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이들의 불안 상태는 장기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지경, 이광호, 2013; 이상준, 이수경, 2013; 이필남, 2014; 조한혜정, 2014). 이들의 불안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와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넌리 알려져 있듯이, 대학 비진학이라는 결정에는 가정배경과 학교경험, 그 이외의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¹⁸⁾. 또한 이런 조건들은 한 순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16) 이 장은 김영미와 김진경(공동집필진)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17) 2014년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은 전국 평균 78.3%였다(2년제 전문대학 포함). 2011년 75.2%, 2012년 75.9%, 2013년 77.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4년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에서 서울시는 6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기 74.7%, 인천 78.2%로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참고).

18)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이 대학 비진학 결정에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는 Paul Wills의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학교와 계급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이다.

여러 경로로 대학 비진학의 결정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이 일회 혹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비진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비진학 결정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그 결정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 생활실태와 더불어 그 결정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의 배경과 과정은 단순히 대학을 가지 않겠다, 혹은 공부가 흥미에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들의 삶 전반에 얽혀있으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다른 조건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비진학의 사유와 과정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는 일은, 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방법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8명의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심층면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사유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지, 더불어 그 결정의 과정과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은 면담대상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회고적 경험과 가정이나 학교와 관련된 현재 생활, 진로 계획이나 준비, 대학과 노동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주요 면담대상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일반고 3학년 재학생들과 같은 지역 일반고 졸업 후 1~2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가 잠재적인 대학 비진학자로서 일반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반고 재학 중에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이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일반고 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의 성패와 다소 무관하게, 대학 비진학을 둘러싼 사유와 과정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또한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이들이 졸업 후 1~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일반고 비진학자들의 진로 계획 혹은 실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

는 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면담대상자들은 조사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다. 대학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면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냈고, 이들 중 학년(혹은 나이)와 성별, 수도권이라는 지역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1차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전에 2차로 대학 비진학 여부, 수능 시험 응시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심층면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구진이 연구설계에 적합한 이들로 최종 결정하였다. 면담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이어지는 절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표 VI-1 주요 면담 내용

구분	주요 면담 내용
비진학 결정 사유와 과정	• 가정배경 • 초등~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회고 • 대학 비진학 결정 시기 • 대학 비진학 결정의 배경 • 대학에 대한 인식 • 일, 노동에 대한 인식
현재 생활 실태	• 재학생: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별도의 진로 관련 활동, 여가 • 졸업생: 학교에서의 경험, 아르바이트, 진로 관련 활동, 여가
앞으로의 계획	• 단기(2~5년 내) 계획 • 대학 진학 계획 여부 • 장기(10년 이후) 전망
정책욕구	• 현재 정책적으로 필요한 도움: 아르바이트, 취업, 대학진학 관련 • 과거, 특히 학교 다닐 때 받았으면 좋았을 도움(예: 현실적인 진로지도, 진학지도 등)

심층면담은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7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질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에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1~2년 이내의 졸업생 각 2명씩, 총 4명을 만났다. 본 조사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각 10명씩, 총 20명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졸업생들에 대한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생활 실태가 다르다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면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고 졸업 후 4~5년이 지난 졸업생 4명을 추가로 면담했다.

면담은 개별로 1회씩 하였으며,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조사전문업체의 면접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면접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면담대상자들에게

사전에 구두 동의를 받고, 면담참여 확인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내용을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녹음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크게 비진학 결정의 사유와 과정, 현재의 생활 실태, 앞으로의 계획, 진로 관련 정책 욕구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후 영역별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은 대체로 개방형이고, 질문지의 순서나 문항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¹⁹⁾.

2) 연구대상

연구방법에서 기술했듯이, 주요 심층면담대상자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1~2년 이내의 졸업생이다. 여기에 일반고 졸업 후 4~5년 후의 졸업생들을 추가로 면담하였다. 예비조사 차원의 면담과 추가 면담까지 모두 합쳐서 28명의 청소년을 심층면담하였다. 이들의 지역별·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VI-2 심층면담대상자: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지역	성별		계
		남	여	
재학생 (고3)	서울	3	4	7
	서울 제외 수도권	3	2	5
졸업생	서울	4	4	8
	서울 제외 수도권	3	5	8
계		13	15	28

심층면담대상자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한정된 것은 심층면담 진행상의 한계 때문이다.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가 서울을 벗어나 면담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읍면 지역(혹은 읍면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의) 청소년들은 면담 장소로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면담대상자들의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제한되었다²⁰⁾. 다만 수도권으로

19) 심층면담 질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0) 지방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면담하지 못한 측면은 이 연구의 한계이자 다른 사실을 간접적으로

한정되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면담자를 선정하였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비율이나 서울 내에서라도 거주지의 분포를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고 재학생이나 졸업생, 일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대학에 대한 정서, 교육에 대한 기대와 투자 정도, 노동시장 구조 등이 수도권과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후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 연구의 심층면담을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할 또 하나는, 면담대상자들의 모집과정이다. 심층면담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사전문업체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모집 공고를 내고, 연구진이 인터뷰에 지원한 청소년 중 나이·성별·지역을 고려하여 최종 면담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면담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이들이 대학 비진학자들 중에서도 진로설계나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연구에서 면담대상자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업체들을 검색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면담대상자 모집 과정은 조건에 부합하는 면담대상자를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동시에 이들의 특성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예컨대 대학 비진학자들 중 일부는 이미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무기력한 상태·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할 의지도 없는 상태·로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면담 대상으로 선정된 비진학자들은 그 중간 즈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히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돈을 모으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거나 설계하려는 노력을 놓지 않는 비진학자들이 주로 이 연구의 면담대상자로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담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담대상자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면담대상자들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담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도권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다른 점은 소위 ‘지집대’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다. 수도권의 청소년들은 일부 지방의 사립대학들을 갈만한 대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별 대학 진학률이나 앞 장의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주요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진학 포부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면담대상자들은 서울수도권지역 출신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대학 진학 포부가 지방 출신 학생들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추후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예비조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12명이다(표3참고). 이들의 성과 지역별 할당은 남녀 6명씩, 서울 거주자 7명과 그 외 수도권 거주자 5명이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배경은 다양했으나, 대체로 매우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 재학생 12명 중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3명 정도였다. 그 이외의 재학생 면담대상자들도 부모 학력과 직업 면에서 여유 있는 형편이라 보기 힘들다. 면담대상자들은 면담 당시 대학 비진학 결정을 모두 한 상태이다. 다만 수능을 보겠다고 한 이들은 있었으나²¹⁾, 일단 대학입학지원서는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 중 비진학을 확고하게 결정한 경우도 있었고, 대학 진학을 유보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다수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4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표 VI-3 면담대상자 특징: 재학생

이름*	성별	학년 (졸업연도)	거주지	부모직업 ²²⁾		현재하는 일
				부	모	
이서경	여	3학년	성남	공장운영	가정주부	주말 백화점
김대현	남	3학년	서울	일용직(지방거주)	가정주부	주말 출장뷔페
박준수	남	3학년	부천	(이혼)	(기초생활수급)	주말 호텔뷔페
박기원	남	3학년	인천	자영업	가정주부	-
최수원	남	3학년	서울	(이혼)	식당 서빙	(자격증 준비 중)
이은지	여	3학년	인천	(사망)	마트 계산원	-
정다진	여	3학년	서울	-	-	주말 마트주차안내
장도연	남	3학년	남양주	자영업	-	-
최윤혁	남	3학년	서울	무직	치과기공사	(직업반-항공정비)
이선미	여	3학년	서울	회사원	중고의류도매	(직업반-미용)
조은혜	여	3학년	서울	여행사 운영	세무서 사무직	(자격증 준비 중)
최유리	여	3학년	서울	회사원	가정주부	-

* 보고서에 사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

21) 이들이 수능을 보려는 이유는 ①이제까지 일반고에서 공부한 게 아까워서, ②수능 이후, 음식점이나 쇼핑물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③고등학교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으로 추려진다.

22) 면담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사례들의 경우 부모의 직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 표에는 하이픈(-)으로 표기하였다.

일반고 출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졸업 이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16명의 졸업생 면담대상자들을 만났다. 그중 12명은 2014~2015년에 졸업한 이들로 졸업 후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반년 정도 시간을 보냈다. 나머지 4명은 2010~2011년에 졸업한 이들이다. 졸업 후 4~5년이 경과한 졸업생을 추가로 만난 이유는 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표 VI-4 면담대상자 특징: 졸업생

이름*	성별	학년 (졸업연도)	거주지	부모직업		현재하는 일
				부	모	
오수빈	여	2014년	서울	(이혼)	일함(확인 안 됨)	현재는 쉬고 있음
김정호	남	2015년	서울	(이혼)	에어로빅 강사	음식점
이미영	여	2015년	부천	회사원	보험설계사	편의점
이지호	남	2015년	파주	건축하청	병환	(자격증 준비 중)
이수영	여	2014년	서울	사진관 운영	가정주부	식당 서빙
박민국	남	2014년	부천	자영업		9월 군 입대
고은미	여	2015년	수원	배송기사	일함(확인 안 됨)	-
김지훈	남	2015년	수원	안경점 운영	만두가게 운영	피자가게
윤수정	여	2015년	남양주	인테리어	아르바이트	백화점 판매직
한주희	여	2014년	광명	정육점 운영	(가출)	-
정진우	남	2015년	서울	자영업(지방거주)	(이혼)	호텔 알바 중
정이슬	여	2015년	서울	자영업	가정주부	(워킹홀리데이 준비 중)
강태양	남	2011년	서울	미상	미상	편의점
이영수	남	2011년	서울	미상	미상	술집(바) 서빙
박민아	여	2010년	인천	자영업(전기)	가정주부	피아노 반주
최정원	여	2010년	서울	자영업(전기)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 보고서에 사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

졸업생 면담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7명, 여자 9명이었고, 지역은 서울과 그 외 수도권이 동일하게 8명씩이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 대학 비진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강태양의 경우 2016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내년까지 군대로 유예시켜놓은 대학입시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 외 졸업생들은 잠정적인 대학 진학 유예 상태이거나, 대학 비진학을 최종 결정한 상태가 섞여있었다. 이들의 가정배경은 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졸업생 부모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례가 적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졸업생의 수는 재학생보다 많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의 종류는 거의 유사한 단기 아르바이트였다.

3. 실태

여기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졸업생과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살펴보고, 비진학을 결정한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게 된 대학과 일자리(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1) 비진학 결정 과정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과정,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과정에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데에는 가정의 경제형편, 학교 경험, 대학 및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면담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가정의 경제형편이 가장 기본적인 비진학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경제형편은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애매한 성적권의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큰 관심이나 현실적인 조언을 얻지 못한 채 부유하게 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라도 등록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등록금 부담 뿐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도 했다.

여기에 ‘대학에 진학하려면 적어도 소위 인서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과 자신의 대학 진학 이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일반고에 진학했으니 무조건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대학에 진학한다

면 적어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 대학이어야 하는데 내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로는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요즈음에는 대학 학위가 아니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나 신화들을 대중매체, 주변 지인들로부터 접하면서 이들의 비진학 고민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처한 조건과 대학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비진학 결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가정배경에서 파생되는 낮은 성적수준, 등록금에 대한 부담,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들이 비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배경들이 대학의 효용, 고졸자의 사회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맞물리면서 비진학을 선택하게 하는, 혹은 진학을 유예하게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배경의 영향

학생들이 처한 다양한 가정배경은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다. 면담을 통해 만난 학생들의 가정배경은 다양했지만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며 경기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하다거나,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등 비교적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정배경은 학생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데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원, 과외 등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는 낮은 성취이다. 이런 낮은 성취는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둘째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다. 수시로 진학할만한 스펙이나 정시로 진학할만한 성적을 갖춘 경우에도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사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비롯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인식이 대학에 진학해서 4년을 버리는 것보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부모님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얼른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책임감을 떠안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가정배경들이 학생들의 비진학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면담대상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먼저 낮은 성적을 꼽았다. 최근 대학 입학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공부 뿐 아니라 학생부나 특기 등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적이다 (강태중 외, 2013). 하지만 불리한 가정배경이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꾸준히 밝히고 있는 바(김정근, 2005; 김현주, 2007; 백병부, 김정근, 2007; 성기선, 2010; 장상수, 손병선, 2005), 면담대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학교 재학 당시 면담대상자들의 성적 수준은 다양했다. 공부와 아예 담을 쌓은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까지 무난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성적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가정배경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혁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알콜 중독 문제로 가정이 화목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꾸준히 학원에 다녔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직전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부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공부는 꾸준히 못했어요. 이사 오고부터 확 점수가 떨어졌으니까요. 이사 왔을 때는 1년 동안 안 하고 친척 집에서 있고 그때부터 점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흥미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재학생²³), 최윤혁)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도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을 받기도 어렵다. 정다진 역시 초등학교 때까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곧잘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 어려워진 경제형편 때문에 학원을 끊으면서 성적이 떨어진 사례이다. 어머니는 필요하면 학원에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정다진은 집안 사정을 감안해 혼자 공부해보려고 했다. 성적은 다시 오르지 않았다.

중1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어디 다니고 싶다고 얘기 못해 보고요?) 그냥 혼자 공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보내겠다고 했는데.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중1 때 경제가 어려워서 이사를 하니까 어렵다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해서 안 되면 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공부해봤던 것 같아요. (재학생, 정다진)

23) 제시의 편의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면담대상자들은 ‘재학생’으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면담대상자들은 졸업연도와 무관하게 ‘졸업생’으로 표기함.

고은미는 원래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 후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놓친 부분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이를 메우기 위한 사교육은 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빵집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버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 고은미의 언니가 재수를 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한테 학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 봤을 법도 한데 왜 혼자 공부하기로 선택을 하셨는지요?) 언니가 일단은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좀 재수를 했을 때여서... 네.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인강 같은 거 듣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겠다는 거를 느낄만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언니 과외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들고 인강도 듣고 독서실도 가고 식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졸업생, 고은미)

이렇게 성적이 낮아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동안 뒤쳐진 성적을 따라잡을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일반고에 진학한 직후에는 대학진학을 염두에 뒀던 면담대상자들도 결국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실망하고 결국 비진학을 선택했다. 예컨대 장도언과 이선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들 역시 낮았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학교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3학년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받아본 후 이 성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고3 때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때 대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고3 선생님들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기계 같은 느낌이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애들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애들만 챙겨주고 저처럼 수능 그런 애들은 잘 안 챙겨주는 거 같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제가 수능 공부하면서도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적은 그대로고, 진짜 내가 해도 안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6월달 그때 보고 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도 그랬는데 지금 해 봤자 네가 좋아하는 대학 못 간다고.(재학생, 장도언)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기 때 안 하다가, 제 친구들도 방과후를 했거든요.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2학기 때는 방학 때 듣고 그랬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중

략)... 수학은 아예 7등급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거라서, 국어가 4, 영어도 4등급 그 정도. 탐구과목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1, 2등급 받았는데 3학년 오니까 애들 다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2학년 때는 안 하는 애도 있는데.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문제가 엄청 쉬웠거든요. 1, 2학년 때 다 하잖아요. 3학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해야 3등급 나오고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재학생, 이선미)

게다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진로, 진학 상담도 대부분 교내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적이 낮은 면담대상자들에게는 ‘무조건 공부해라’는 등의 비현실적 조언을 해 주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면담대상자들은 학교나 교사들로부터 대학 진학이나 대학 외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지원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요즈음 가끔 애들 불러서 너 대학 갈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저 대학 안 갈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들어가라고 그 얘기 끝났는데. 요즈음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반 담임선생님이 각 반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인지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재학생, 김대현)

(학교 진로상담) 선생님이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이상해요. 제 친구 상담 받았는데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랬다고.(재학생, 이선미)

그러니까 교탁 앞으로 불러서 상담 하는데 신경을 안 써줘도 괜찮은 거냐 얘기 하다가 갈 생각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뭐라셨어요?) 알겠다고 하셨어요.(재학생, 정다진)

이렇게 일반고 진학 이후 나름대로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봤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교사들이 초점을 맞추는 집단에서도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면담대상자들 중 일부는 일반고 진학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거는 저희 엄마가 무조건 인문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당연히 가는 거라는 생각이 아예 집안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후회를 해요. 실업계로 가면 직업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도 시켜주는 곳도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인문계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되고 못하는 애들은 이도 저도 아닌 거 아니예요. (재학생, 이미영)

(실업계 갈 걸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즈음 들어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고 옆에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산업고가 있었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그 학교를 다녀서 바로 고3 때부터 취직을 했어요. 차라리 저도 이렇게 어영부영 될 것 같았으면 취직을 해서, 그 친구는 지금 돈 잘 벌고 있거든요. 물론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실업계를 가서 했을까 싶은데 저는 딱딱한 사무직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졸업생, 한주희)

요컨대 불리한 가정배경은 가정의 불화나 어려워진 경제형편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자녀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지원(사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 즉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 결정이나 진학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집단임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리한 가정배경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한주희의 경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혼자 정육점을 운영하며 남매를 키웠다. 한주희는 진학하고 싶었던 학과도 미리 결정했었고, 서울 시내 유명 전문대학에 합격 통지까지 받았으나, 당시 광우병 파동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가 대학진학을 미루자는 권유를 했다.

(합격한 대학에 왜 안 갔어요?) 제가 그때 미련했던 게 국가장학금 이런 거를 하나도 몰랐고 주변에서도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갔을 텐데 그때가 저희가 아빠가 정육점을 하시는데 광우병이다, 고기값이 자꾸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장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밤에 오시더니 ‘대학 내년에 가면 안 되냐?’ 그 말에 그냥 안 갔죠.(졸업생, 한주희)

이은지의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마트에서 계산일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어머니는 2년제까지는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이은지는

그 돈을 받기 죄송하다고 했다. 비진학을 선택한 이은지는 대학진학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안 형편이기 때문에 형편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만 달랐다면 (대학에) 갔을 것 같아요. ...(중략)... (집안형편과 낮은 내신성적 중) 집안형편이 1순위. 왜냐하면 집안형편만 됐다면 저는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재학생, 이은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동생이 있는 경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한다.

네. 그래도 (공부를)할 만큼 했는데 안 된 거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운데, 또 대학을 가자니까 집이 그렇게 잘사는 것도 아닌데 완전 못사는 것도 아닌데 저까지 대학을 가고 동생도 2년 터울밖에 안 나는데 동생은 또 예체능을 했어요. 미술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저까지 대학을 가면 집이 좀 많이 어려워질까 봐 일단은 대학을 안 갔어요. (졸업생, 김지훈)

마지막으로 열악한 경제형편은 면담대상자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도 지게 한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평균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열악한 배경을 가진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등록금 이전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거나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오수빈의 경우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와 오랫동안 살다 최근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수빈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엄마는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압박감 줘요. 일 좀 하라고. (일의 종류는 상관없고요? 엄마가 원하는 일?) 엄마가 원하는 일은 없고 그냥 일하라고. (매달 얼마 씩 주셨으면 좋겠대요?) 30만원이요.(졸업생, 오수빈)

최윤혁의 아버지는 악기레슨을 하시다가 현재는 일을 쉬는 중이고, 어머니가 치과기공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윤혁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빨리 취업해서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일찍이 직업반에 지원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중이다. 박민국 역시 현재 형편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는 집에 빨리 보탬이 되고 싶어요(집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만 맨날 새벽까지 일하시니까 엄마가 힘들죠. 집안은 일단 인천은 집 살았을 때 그 집은 저희 명의로 된 게 있고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버시니까. (재학생, 최윤혁)

뭔가 빨리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남동생한테 드는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돈 벌어서 그런 것도 대줄 생각도 있고요?) 일단 부모님 먼저. 남동생은 잘 모르겠어요. ...(중략)... (그런데 왜 자꾸 돈 걱정을 하죠? 지금 되게 궁금해요.) 그런 게 티 안 나는 게 더 괴로운 거 아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 해주시면 ‘아빠,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 나 잘 하고 왔어’ 이러는데 맨날 밤마다 앓으시니까. 맨날 제가 주물러 드리지 않으면 못 주무실 정도로. (졸업생, 박민국)

요컨대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불리한 조건의 가정배경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면담대상자들에게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과 열악한 경제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함으로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과 미래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배경 특성들이 면담대상자들로 하여금 대학 비진학을 고려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이 절에서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인식을 다룬다. 특히 이들이 대학, 고졸자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인식이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낮은 성적, 등록금에 대한 부담,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 등-과 어떻게 맞물려 비진학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 대학에 대한 인식: ‘서울대 나와도 그 정도인데 지방대는...’

면담대상자들은 대학을 간다면 소위 ‘인서울’ 4년제 이상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년제 전문대학이나 유명하지 않은 지방대학에 갈 거라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에 맞추어 아무 대학에나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학해도 괜찮은 대학의 최저수준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으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나름의 계산을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냥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못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경기권에 소재한 희망대학²⁴⁾에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런 인식은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들 중 대학에 진학하고도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휴학하는 사례들을 발견하면 더 강화되기도 한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권,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학들을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서라도 진학할 가치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하로는 ‘그 돈을 주고 가기에는’ 부족한 대학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을 가는 이유는)남들 다 가니까. 보험이니까. 그리고 학력사회다. 솔직히 제 이 등급으로 학력이라고 해 봤자 대학 나오는 거나 고졸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력서를 넣으면 걸린다는 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지잡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가던데요 어디는 갈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죠. 너무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요. △△대였던 것 같아요 (△△대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가기에는 너무. (졸업생, 박민국)

박민국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서울 시내 소재한 서울외대 정도는 되어야 갈만한 가치가

24)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의 면담대상자들은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학포부에 있어서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당연히 대학은 인서울로 가야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인서울’에 대한 선호는 서울지역 고등학생에 비해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있는 대학이라고 했으며 이는 앞으로 번역일을 하고 싶었던 정다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박민국과 정다진 모두 성적이 충분치 못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 했던 박민아 역시 서울대급의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지방대나 2년제 대학에 가는 건 대학을 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진학을 선택했다고 했다.

(지방의 모 대학) 그런 데는 피아노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대는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니까. 집이 가까운 데 다니는 게 나옴에 힘들니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고 솔직히 요즘 시대는 2년제 나오나 대학을 안 가나 제 생각에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뭔가 내가 학원을 차리든 아니면 1 대 1 레슨을 하든 어디든 그런 거는 대학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대를 갔으면 뭔가 그냥 맡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2년제 아니면 지방대 갔다 하면 어쨌든 간에 맡겨주지 않아요. 어느 학원도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졸업생, 박민아)

김지훈도 마찬가지로 집근처에 있는 경기대 이하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지훈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학교 선배의 사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던 형이 유명하지 않은 대학, 비인기 학과에 진학한 사례를 보면서 이럴 바엔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초에 경기대 이하로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일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가도 열심히 한다 해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높은 데를 가야 된다.) 네. 높은 데 갈 거면 가지 낮은 데 가서 어영부영 해서 하면 나와도 안 간 애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냥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전교 1, 2등 하던 아는 형이 있었는데 되게 안 좋은 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 형이 철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가봤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졸업생, 김지훈)

이렇듯 주변의 사례들 때문에 대학 비진학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면담대상자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이다. 고은미는 대학 진학에 성공했지만, 입학 후에도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에 가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도연과 최윤혁은 각각 작은 누나와 직업반에서 만난 강사의 사례를 통해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학교를 잘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배들도 좀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갔으면 과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졸업생, 고은미)

작은 누나가 전문대 나와서 거기서 장학금도 타고 그랬어요. 그만큼 거기서도 공부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어서 전문대 갔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대 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고 지바엔 가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일하다가 나중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인생도 재미있고. (재학생, 장도연)

제가 직업반 오자마자 서울대 중퇴 하신 분이 강의 했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즈음은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래서 일단 중퇴를 하셨고 강사를 하시면서 다닌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와도 그 정도인데 지방대는... (재학생, 최윤혁)

② 대학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 ‘실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면담대상자들은 앞으로의 사회적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력만 있다면, 혹은 특정 자격증을 통해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학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주로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얻은 정보나 주변 친척이나 친구, 선배들, 혹은 이전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해 강해진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은 대학 비진학을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말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시점에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대학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비진학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가까운 주변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경우 비진학 선택은 더욱 쉬워진다.

면담대상자들은 주로 TV나 인터넷, 주변 사례 등을 통해 반드시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은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었다. 하지만 이은지의 경우 어머니가 2년제에 진학한 후 안정적 직장(공무원)에 취직하라는 권유를 꾸준히 해왔고, 이은지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다. 정다진 역시 공부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대학 가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인터넷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등-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고 비진학을 결정하게 됐다.

무조건 대졸 이렇게 있었는데 고졸이라도 일단 공무원 들어가는 거면 그런 학력이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공무원 못 되더라도 다른 자격증이나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꼭 대졸만 찾는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학생, 이은지)

(2학년 후반부에 대학을 안 가겠다 하고 확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마음을 딱 먹게 된.) 그냥 공부 안 하고도 기술 같은 거 하면 잘하는 일 연습 계속 하면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냥 대학 안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보다 보니까 나도 저런 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대학을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재학생, 정다진)

고3 올라가니까 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격증 따서 잘사는 거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고 싶은 과도 아닌 과를 가서 돈 버리는 거보다 그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졸업생, 이미영)

장도연과 오수빈, 강태양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주변의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비진학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도연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매니저 형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돈을 열심히 벌어 꽤 많은 돈을 모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보다는 돈을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수빈 역시 면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멋지게 살고 있는 이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강태양의 경우 다른 사례와 달리 현재 재수를 준비 중이고 올해 실패한다면 내년에도 재수를 할 예정이지만, 첫 수능 시험을 크게 망친 후 군에 입대하여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일하면서 같이 일하던 형한테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이 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더 해서, 지방대나 갈 거면 나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뭔가 지방대 가서 그렇게 등록금 받아가면서 하면 어차피 나중에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남들 다닐 때 알바 해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때부터 대학에 그렇게 꼭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재학생, 장도연)

저희 이모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모가 ‘딱히 대학갈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래요. 진짜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손재주나 배워서 그런 거나 해.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한 학기 몇 백만원 그렇게 내잖아요. 그 돈 주면서 아깝게 왜 다니냐?(졸업생, 오수빈)

그런데 군대에서 대학 안 가고 잘사는 사람들 많아서 약간 생각도 바뀌었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필수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장장이나 공장주인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케이스니까 동기인데 나이가 많은 형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돼서 들어왔는데 회사 하나 하고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수입 대충 물어보니까 천만원 넘게 번다 이런 식으로.(졸업생, 강태양)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을 접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다. 박민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을 보인다. 오수빈 역시 TV에서 봤던 서울대 나와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례, 지방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모두 대학을 휴학하거나 중퇴한 현실을 지적하며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학을 나오고 나서 그냥 집에서 노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주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아세요?) 좀 잘 나가는 연대 영문과였어요. 그 형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하고 아는 형인데, 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누나는 서울대 정치외교 나와서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외무고시가 계속 떨어져서 좌절해서 그냥 집에 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예전에 고대 법대 나왔던 분이 과외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졸업생, 박민국)

애들하고도 얘기 하면서 ‘너는 그 돈 주면서 (대학에) 갈 거야?’ 내가 이랬더니 ‘요새는 가야지.’ ‘나는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러니까 ‘TV에서 못 봤어?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취업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공부도 못하고 그딴 지방대 가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제 주변 애들 보면 다 대학 다니다가 다 휴학했어요. 아예 자퇴를 해버리거나. 안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졸업생, 오수빈)

이런 인식들 속에서 면담대상자들은 대학의 효용성에 의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인식이 실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낮은 성적, 가정형편 등-과 맞물리면서 이들은 대학 진학 외에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 이들이 대학 진학 대신 선택하는 대안적인 직업, 진로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실력’이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진로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자신의 연습과 경력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혹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불리함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일반 회사에) 갔을 때 학벌 더 높으면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번역가는 실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력은 많이 쌓으면 나름 뽑아줄 것 같아요. (재학생, 정다진)

학위보다는 항공사 봤었어요. 취업공고를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면장 자격증이랑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따고 토익점수 750점 이상은 우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력제한은 딱히 없고요?) 학력은 제한이 없더라고요. 자격만. 그런데 면장을 따려면 학력이 필요해요. 산업기사 면장을 따려면 어디 기관에서 몇 개월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실무능력이 중요하네요. 그게 있어야 면허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재학생, 최윤희)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은) 저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맨날 밤새가면서 일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의 보상. 제 심리적인 보상인 것 같아요. (졸업생, 이영수)

이들에 비해 앞으로의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먼담대상자들도 하게 될 일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대학에는 앞으로도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때 처음으로 (이모가 일하는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모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실적도 괜찮은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괜찮겠구나. 괜찮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같이 있었던 직원 분들이 있었는데 ‘잘하네’ 하면서 ‘여기 들어와’ 이러면서 정직원으로 면접만 보면 되니까 ‘면접만 보고 빨리 들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중략)... (직원이) 옆에 있으면서 일을

막 하는데 그분도 너 잘 한다고. 정직원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모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일이 나한테는 괜찮구나. 사람 대하면서 하는 일이 나한테 괜찮은 일이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이때부터 서비스업을 해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재학생, 이서경)

박민국은 군대에 다녀온 후 친한 친구와 의류 관련 사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자신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좋아하고, 친구가 패션에 대한 센스가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구상이 있다고 했다. 이서경의 경우 그동안 해봤던 아르바이트 경험상 자신이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서경의 경우 면담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확고하게 앞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대학에 진학한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봐도 대학 진학 후 여전히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느라 수업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운 등록금과 4년을 버리느니 빨리 취업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성공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잘 비취져서 올라가는 게 낫지. 대학 등록금 천만 원씩 거기다가 쏟아 붓고 눈물 찔쩍 흘리면서 알바 해가지고. 낮에는 공부해. 밤에는 찔쩍 알바 해. 이러면서 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찔쩍 찔쩍 이려고. 8년 내내 나는 언제 공급하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 해가지고, 빨리 빨리 일 배워서 손 빨리 빨리 해가지고 나 이 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서 ‘나는 대학 이렇게 있는 애들보다 나는 이 만큼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졸업생, 이서경)

요컨대 이들의 사례는 진로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대학 비진학의 근거로 대학 졸업장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로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고등학교 3학년, 특히 수능 성적을 받아본 이후에 결정한 학생들이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 일찍 비진학을 결정했던 다른 사례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좋은 편이었으나 수능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강태양은 재수를 해서라도 가까운 미래에

대학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강태양은 1년에 5천만원-6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수능 실패 후 바로 군대에 다녀온 후 현재는 재수를 준비 중이며 올해 실패하면 내년엔 더 본격적으로 재수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지금은 수능 준비 이외에 다른 어떤 거는 생각이 없네요.) 네. 일단은 다시 먼 길을 돌아왔으니까 다시 수능 준비하자 이런...(중략).... (그런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대학 가는 게 가장 우선이고 (졸업장이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정규회사니까. 아르바이트는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우선순위고 여러 가지 그거에 달려서 자격증이나 토익이라든지 이런 거.(졸업생, 강태양)

또한 김지훈 역시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새벽 4시까지 공부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수능시험 결과 자신이 희망했던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턱없는 등급이 나오면서 진학을 미뤄둔 상태이다. 김지훈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현재는 작은 피자집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수준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김지훈은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히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재수를 해서 이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재미가 없다기보다 너무 반복되는 일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을 계속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일이지 계속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졸업생, 김지훈)

김지훈은 어쩔 수 없이 당장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지만, 계속되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앞으로 대학에 가야 할 것인지, 간다면 어느 수준의 대학으로, 어느 전공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 학생들의 비진학 결정 과정에서 내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때 더 확고하고 쉽게 비진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성공’의 의미가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고졸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교적 빨리 비진학을 결정하고 대학 졸업장 대신 나의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일찍 현장에 뛰어들어 경력을 쌓는 등의 적극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부족한 경우 일단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설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학 비진학에 대해서도 더 많은 아쉬움을 가진 채 머뭇거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면담대상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에는 우선 대학진학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기에 충분치 않은 가정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대학에 다니는 데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가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담대상자들의 가정배경은 대부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양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의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정배경은 첫째로, 면담대상자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이미 떨어져 있던 성적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주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성적 중하위권-주로 수능, 내신 등급 3~4등급 이하-에 속해있었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들은 관심 밖의 소외된 대상이 되었다. 둘째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대학진학보다는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나라든 빨리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만한 사람이 자신뿐인 사례도 있었다. 가정배경에서 비롯된 이런 요인들이 모든 면담대상자에게 중요한 비진학 사유는 아니었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상 대학 비진학 외에 다른 결정은 하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니느라 성적이 떨어졌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 이런 학습 결손을 메울만한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는 이미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먼 지방대학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이만한

비용을 치르면서 이름 모를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기 쉬워진다.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주시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분 모두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학 비진학은 두 번 고려할 필요도 없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 면담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에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특히 면담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첫째, 서울·경기 소재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에 가서 연간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시간을 버리느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첫 번째 인식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면담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상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에서 비진학을 선택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들을 찾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TV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대학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대학 졸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단시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이나 경력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이나 특수분장의 경우 대학학위보다는 얼마나 연습을 해왔는지,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이런 종류의 일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25)

25)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면 면담대상자들은 대체로 이 장에서 서술한 과정을 통해 비진학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면담대상자들이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 정리한 비진학 결정 과정과 요인들은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작동한다.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면담대상자들 자신 역시 일관되지 않은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혼란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졸업 후 2-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결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고, 스스로도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였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행위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학(혹은 소위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야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리잡혀 있다.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은 개인의 목표를 넘어서 집단의 목표인 것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개인의 선택은 고려나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고 재학 중에 혹은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결정을 한 이들을 대체로 ‘낙오자’²⁶⁾로 읽고 이들의 일상을 ‘무기력’으로 설명하려던 경향이 있었다. 이 설명들은 여전히 한편에서 유효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일반고 출신 청소년들이 말하는 대학 비진학의 주된 사유 중 하나는 ‘낮은 성적’이고 학교 내에서의 ‘성공경험’이 많지 않았다. 또한 학교생활과 학교 밖 일상에서 ‘널브러진’²⁷⁾ 모습들을 보인다.

다만 우리는 면담대상자들을 통해 이들의 무기력해 보이는 일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일상 안에는 진로를 구체화하는 시도들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점치는 과정이, 무기력에 대한 자책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일반고 고3 재학생과 졸업 후 1~2년 이내의 졸업생이라는 면담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외연적으로는 의미 없이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고 3학년과 졸업생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면담결과 고3 재학생의 하루는 학교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이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 혹은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졸업생의 경우 생활의 중심이 경제활동의 유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하루가 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비진학자의 일상을, 재학생은 학교생활과 그 이외의 활동으로 나누어, 졸업생은 경제활동과 그 이외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26) 여기에 사용한 ‘낙오자’라는 말은,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8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 「대학거부 그 후-졸업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따왔다. 이들은 ‘수능거부’ 혹은 ‘대학거부’ 이후, 세상으로부터 ‘낙오자’, ‘패배자’, ‘루저’라는 시선을 받아내기가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27) 여기에서 ‘널브러진’은 ‘무기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엄기호(2013)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고등학교 교실을 소수의 ‘공부하는 애들’과 다수의 ‘널부러진 애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묘사했다. 이는 1990년대까지 ‘날나리-범생이’였던 학생들의 구도가 2000년대 들어서 학교성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을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고3 재학생

① 학교생활: ‘잠만 자는 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학교생활은 진로를 결정한 이들과 결정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진로가 불투명한 학생은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직업반이나 위탁교육, 혹은 학교 밖에서 직업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는 그 전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고3 재학생인 면담대상자들 중 다수는 대학 비진학을 선택했으나 뚜렷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을 동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조건의 면담대상자들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은 대체로 ‘자느’ 혹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만 보는’ 시간이다.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후 수업시간에) 계속 잤어요. 아예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계속 자고. 그때(3학년) 초반에 무단지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각을 하면 보통 몇 시에 학교에 가는 건가요?) 처음에는 10분씩 늦었는데 나중에는 1, 2교시 끝나고 그때 가곤 했어요. (재학생, 정다진)

(집에서) 많이 자도 (학교에서 또) 졸려요. (무슨 시간이 제일 졸려요?) 골고루요. (아침부터요?) 아침 1교시부터요. (재학생, 김대현)

(대학은 안가도 수능은 볼 생각이지만) 수업시간에 듣는 척하고 잘 안 들어요. (듣는 척하면서 뭐 생각해요?) 그냥 시계만 보고 있어요. (재학생, 이은지)

(대학 비진학 결정 이후, 해외취업을 원해서) 지금 외국어를 저 혼자 공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외국어 같은 거 원어민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그나마 흥미 있는 게 외국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듣기 싫으면 외국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재학생, 이서경)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졸업생들도 재학생과 다르지 않게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면 수업은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시간은 어땠어요?) 사회과목 윤리나 이런 것만 하고 수학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국영수 시간에는 주로 뭐 했어요?) 잘 모르니까 멍 때리거나 자거나 했죠. (졸업생, 정진우)

(수업시간에) 오목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듣기만 하거나, 잠도 많이 잤어요. (졸업생, 정이슬)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 면담대상자들의 내신과 수능 등급 모두 3-4등급 이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수업태도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이들은 ‘잠자기’와 ‘멍 때리기’로 수업시간을 버티고, 친구들과 놀거나 맛있는 음식 등에서 학교생활의 재미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학업에 무관심한 학생들 대한 우리 사회의 주된 설명방식은 ‘무기력함’이며²⁸⁾, 특히 일반고 안의 이 학생들을 생각없는 아이들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태도를 무기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듯하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일반고 공동의 목표에서 벗어나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자각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잠만 자는 애. ..(중략).. (지금 행복해요?) 네.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때 공부를 포기했을까 할 것 같은데. (재학생, 김대현)

(저는) 수능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들 수능 공부하고 3학년 공부 책이 아예 수능이더라고요. 수능 안 볼 건데 이거 왜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재학생, 이서경)

(비진학을 선택했는데 국영수 해야 하는 학교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재학생 이은지)

28)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무기력은 최근 일반고의 위기 담론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기사 참고)

‘일반고 슬럼화’ 진행 중, 경향신문, 2013년 3월 31일자.

“커닝할 필요도 못느껴” 일반고 무기력증 팽배, 서울경제신문, 2015년 6월 17일자.

학교에서 ‘버려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과 달리,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반이나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고2 말경 항공정비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직업반에 지원한 최윤희는 한 학기를 직업반에서 보냈는데, 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자격증 공부하는데 항공기체정비 그런 거나 아니면 납땜, 전자정비나. 저희 직업학교에서는 그 두 개 자격증 밖에 안 따가지고요 기체랑 전자하고, 조그만 부품 결합하는 거나 납땜이나 연결하거나 조립.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이론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반에서 1등 했어요. 여기서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영어가 아니라 새로 하는 거라 같이 다 새로 하는 거라서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또 항공 관련된 부품 이론 그런 공부는 재밌더라고요. (재학생, 최윤희)

(직업반과 연계된 학교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는 미용과 말고도 다른 과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얻어가지고 어디서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재학생, 최유리)

28명의 면담대상자들 가운데 직업반 경험을 가진 이는 최윤희와 최유리뿐이다. 최윤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업반에 지원하면서 선택하게 된 항공정비 전공에 꽤 만족하고, 자격증 준비와 학교 공부 모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최유리 역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에 대한 불안이 덜 한 상태이다. 미용 관련 일을 계속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직업반과 연계된 위탁교육기관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 데 만족을 드러낸다. 이들의 경우를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이지만, 직업반은 일반고 안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학교 밖 생활: ‘대학 안가면 돈이라도 벌어야’

재학생 면담대상자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담 시기가 고3 여름방학 막바지여서, 재학생 면담대상자 대부분이 대학 비진학 의사를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이후였다. 담임교사와 일정 정도 합의하에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아르바이트, 여가 보내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비진학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행과 같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간혹 가정형편으로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진로 준비의 과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알바는 왜 시작하게 됐어요?) 용돈 같은 거 벌고 싶어서요. (용돈이 부족한가요?) 네. 부족해서요. (무슨 일로 시작했어요?) 버거킹에서 (고1 9월부터) 다음 해 1월 달까지 일했어요. ...(중략)...(알바로 모은 돈으로 뭐했어요?) 용돈으로 좀 쓰고 한 100만원쯤 남았었는데 (이) 교정하는 데 썼어요. (재학생, 정다진)

(알바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고2 겨울방학 때, 많이 놀고 그러니까 놀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략)... 그리고 제가 패딩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해서 알바하면 20만원 정도 모인단 말이에요. 그거로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학생, 장도연)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니까 돈이 없어서, ‘일일 알바나 할까?’ 이러다가 알바가 다 장기적인 거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인 거는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시급도 너무 짜고 이러니까, 호텔 알바가 괜찮은 거 같아서. (재학생, 이서경)

(고1때 주유소 알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친구랑 단기알바(를 계속했어요). 호텔에서 서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주유소나 돌아다니면서 (하는) 단기알바. 그런데 1개월 이상 되는 그런 장기알바는 많이 안 했고 거의 주말마다 하는 단기알바로 했는데, 2학년 말부터 주말마다 단기알바 식으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제 용돈벌이 정도. (재학생, 박준수)

재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그러다보니 일회성 아르바이트나 주말 근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말마다 나가는 아르바이트라도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길어지면 장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여겼다. 이들이 말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통상 1개월 미만으로 일이 많거나 급할 때 ‘땀뽕’하는 일회성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의 일자리는 많지 않다. 재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주유소, 주말 호텔 뷔페 서빙, 음식점 아르바이트, 단기 백화점 판매직, 택배 상하차, 주차 안내, 음식점 서빙,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근무시간은 짧게는 매일 3~4시간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8~11시간 정도였다. 급여는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부터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5~9만원 사이의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업체(알바몬이나 알바천국)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다. 다르게는 친인척의 사업장이나 일터, 지인 소개로 연결된 일터, 이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어간다.

재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무엇보다 일자리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면담대상자들이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할 때, ‘힘들다’라는 말을 동반한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종류와 조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어떤 알바들을 해봤어요?) 물류, 마트에서 카트 끄는 것도 하고, 파인애플 새벽에 파는 거나. 공장에도 잠깐 내려갔다 오고 힘든 거 찾아서 했었어요. (왜 힘든 거를 찾아서 했어요?) 그런 게 일이 잘 구해지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학생, 최수원)

이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들의 특징은 ‘쉽게 접근’ 가능한 일이면서, ‘저임금’에, 육체노동의 강도가 강해서 ‘오래 하지 않는’ 일이다. 말 그대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몸은 힘들고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적어서 또 금세 그만두게 되는 일들인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 해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이 있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어떤 면이?) 계속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진상손님도 힘들었고 의외로 카운터하고 햄버거 만드는 거 말고도 잡일이 많았어요. 후라이 튀기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고 소스 짜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어요?) 학교 끝나면 평일에 5시간, 주말에 많이 하면 8시간 정도. (급여는 어땠어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적었죠. 힘든데 그때(고1) 시급이 4,860원인가 그랬어요. 엄청 낮았어요. 일의 강도에 비해서. (재학생, 정다진)

(고2때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요?) 막내니까 청소라든지 설거지 같은 거 다 시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졸업생, 고은미)

(알바는 어떤 거였나요?) 국수집 서빙. (몇 시간씩 일했어요?) 주말 알바 11시간. (일은 할만 했나요?) 힘들기는 힘들었는데 그때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하고, 주말에 빠지게 하면 13만원, 15만원 쫘단 말이에요. 그거로 풍족하게 놓고. 하고 나면 힘든데 돈 받으면 좋죠. (재학생, 장도연)

다만 장도연의 이야기와 같이, 일이 힘들어도 보수가 높은 일은 그나마 나왔다. 몸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진 택배 상하차, 호텔이나 출장 뷔페 등이 그런 일에 속했다. 남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이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는 1일 근무시간이 길어서 주말에나 가능하고 그마저도 몸이 힘들어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일에 가능한 아르바이트에 속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서빙 등 여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도 장기적이지는 않았다. 대체로 3~5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1~3개월만 지속적으로 해도 소위 ‘짬밥’을 인정받는다. 보수도 약간 높아지고 일도 조금은 쉬워진다.

(물류 알바는) 한두 달 하면 짬밥이 생기는 거예요. 제 위에도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시키고 저는 창고에 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저도 조금씩 하고. (재학생, 최수원)

아르바이트를 해 본 재학생들은 ‘돈이 되는’ 좀 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학생들은 다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다니기 전 1년 동안) 택배 쪽으로 (알바를 했어요). 공장도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알바는 힘든 거는 구해지는데 다른 거 쉬운 것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재학생, 최수원)

게다가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고 나니, 공부도 안하는 데 ‘돈이라도 벌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다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용돈이나 벌자는 마음으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하다가 쉬다가 일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고3인 현재 대형마트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너무 고되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공부할 필요할 필요가 없어지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쉬다가 다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고3) 여름방학 때 일단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차라리 돈이라도 벌자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뭐라도 하면 좋겠다?) 일본어 번역가 하고 싶기는 한데 확실하게 정한 거는 아니라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실하게 정하면 나중에 알바하면서 학원비 벌면서 다니고 지금은 용돈이나 벌려고 (다시 알바를) 시작했어요. (재학생, 정다진)

다른 재학생 면담대상자들도 정다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리하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일반고 재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아르바이트의 조건이나 노동의 강도가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약간의 돈을 벌고 나면 쉬고, 돈이 아쉬워지면 단기로 다시 일을 하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그러다가 대학 비진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르바이트뿐이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진로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재학생들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은 졸업생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한편 일부 재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알아채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가려내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서경은 보컬리스트를 꿈꾸며 관련된 대학 학과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건강상의 문제로 노래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시작하게 된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확신을 갖게 된 경우이다. 이서경은 면담이 이루어지던 고3 중반까지 면세점 판매직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대학 비진학을 결심하고)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라고 있다가 이모 면세점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 나는 서비스업이 되게 괜찮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전에 사람 대하는 일이 나한테는 활기찬 일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는 10분 만에도 지쳐 죽겠는데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은 발 아프고 다리 아픈 데도 집에 딱 왔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재미있다. 침대에 눕는 순간까지도 재미있다, 또 하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공부는 언제 끝나나? 5분이 지나면 10분 언제 지나가나 이러는데 그 일은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재학생, 이서경)

면담대상자들 가운데 이서경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이가 많지는 않다. 재학생 중에서는 직업반 2명을 제외하면 이서경만이 즐겁게 아르바이트 하는 축에 속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졸업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재학생 이든 졸업생이든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적성을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비슷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이나 하는 ‘사무직’은 자신에게 맞지 않고,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일’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체로 판매, 서빙과 같은 서비스직이 거기에 속한다.

반면 다른 재학생들은 고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대체로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일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야 하는 일 이외의 굳은 일들을 도맡게 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현재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찾는 것보다 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주로 자영업이었다. 즉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관리하는 일, 혹은 타인의 간섭 없이 혼자 하는 일을 꿈꾸고 있었다. 앞 절에서 살펴듯이 이런 진로 희망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라는 노동시장의 실전 경험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이외의 생활

면담대상자들 중 재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TV 시청, 컴퓨터 게임이나 웹서핑 등이다. 친구들과는 주로 커피숍,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논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간 다음에 진짜 심심할 때 친구 만나러 가고 아니면 거의 집에 있어요. (재학생, 최수원)

학교에서 어영부영 지내고 (대학은 안가도 수능을 볼 거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 조금 하고 집에 가면 9시쯤. 엄마랑 저녁 먹고 12시까지 는 그냥 TV보고 놀다가 자요. (재학생, 이은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집에서 놀았죠. 컴퓨터 하고 그러면서. (대학 걱정은 안 됐어요?) 걱정은 됐었어요.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들?)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대학을 안 가면 무슨 일을 하지? 갈 거면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학생, 정다진)

(하루에 무슨 생각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대표적인 게 4교시에 저희가 밥을 먹거든요. 오늘 뭐 나오나? 수업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다가 5, 6, 7교시 되면 학교 끝나고 뭐하지? 친구들한테 연락이나 해 볼까? 그런 생각. ...중략...(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뭐해요?) 친구들이랑은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요. 당구장 가요. (재학생, 김대현)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재학생들이 여가를 보내면서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따로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진학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놓이자, 재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친구들을 만나도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다. 말 그대로 친구들과는 유흥을 즐겼다. 같은 학교 친구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 친구들(주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친구들)은 이미 취업과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대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친한 친구들 중에 대학 안가는 친구들 있어요?) 다들 공부를 안해서(웃음). 한 명은 진짜 수능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한 명은 △△△△에서 일하는데 이 친구는 잘하면 정직원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험보고 단계 올라가고 그러든대. 한 명은 생각이 없는 친구고, 한 명은 춤추고... 정말 친한 친구들은 다 실업계예요. (그 친구들은 뭐해요?) 두 명은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고. 학원에서 알아서 취업 시켜준다고 그러고, 한 명은 이미 농협으로 취업 나갔고. 한 명은 답이 없고, 좀 우울한 친구고. 한 명은 지금 승무원 준비하고. (재학생, 이서경)

대학 비진학의 결정은 동일하지만, 면담대상자들은 같은 결정한 또래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 속에 있다.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과 달리, 이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한다. 대학 비진학 결정 이후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진로 준비: ‘지금 급할 거는 없잖아요’

면담대상자들 중 재학생들은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후, 대체로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지’를 고민한다. 대학입시에서 벗어나면서 여유 시간이 늘어나지만, 미래 계획이나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은, 대학 비진학 결정과 진로계획 사이의 선후관계이다.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진로계획이 명확하여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이들도 있지만-직업반과 위탁교육생-,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다수의 대학 비진학자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들-가정형편이나 학교 성적-을 고려하여 비진학을 결정하고 나서 진로를 고민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면담대상자들의 진로 계획과 준비는 ‘탐색’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면담대상자들 중 진로 탐색의 수준에 있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대체로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를 때까지 대학 진학 이외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형편상 가족이 적극적으로 진로 계획이나 탐색을 지원하지 못했다. 또한 일반고의 속성상 진로상담은 철저하게 ‘진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진로에 대한 다른 정보를 얻을 통로가 부족해보였다.

갑자기 학교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불러서요?) 그러니까 교탁 앞으로 불러서 상담 하는데 신경을 안 써줘도 괜찮은거나 얘기 하다가 (대학에) 갈 생각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뭐라셨어요?) 알겠다고 하셨어요. (재학생, 정다진)

(진로상담실이 따로 있다거나 상담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대학 가는 애들만 가는 정도고, 아니면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이 가거나. (본인은 가본 적 없어요?) 그냥 놀러. 게임. 게임 하라고 해서. (재학생, 이서정)

일반고 안에서는 심지어 음악이나 체육 등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고 여겼던 이들조차 목표는 대학입학이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니, 그런 소질과 재능은 쓸모가 없어졌다. 면담대상자들 중 가수가 되고 싶어했지만 건강 상의 문제로 중도에 포기한 이서경이나, 체대에 가고 싶어했으나 부상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이지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미래 설계가 막막한 이들은 주로 주변 인물과 인터넷이나 TV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물류창고 관리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격증 뭐 있지? 딸 거 있나 하면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TV에서는 자격증 많이 판 사람 나오고 그거 보다가 자격증 따면 든든하겠다 해서 찾아봤어요. (재학생, 최수원)

(학교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주조기능사가 되길 희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다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지금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재학생, 최수원)

(친구와 의류 제작·도매를 하고 싶어서) 요즘 자습시간도 많고 그래서 네이버에도 사업 그런 거 찾아보고 괜히 나중에 돈 될 거 있나 생각도 해보고, 점심시간마다 같이 (사업하기로) 얘기했던 친구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즈음 지내는 거 같아요. (재학생, 장도연)

(이모 면세점 일을 배우거나, 아빠 회사 일을 돕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알바하면서 해외에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네. 사촌오빠가 대학은 안 다니고 요리 자격증만 땀는데, 자격증 있으니까 한국에서 빙스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제의가 들어와서, 이래 가지고 직접 미국에 가서 거기서도 배우면서 대회에 나가고 하면서 한 5년 동안 일하면서 배우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쳐주는 거죠. 지금은 호텔에 들어가서 서울 높은 데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자격증만 따서 해외 나가서 그렇게 일 하다가 들어와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촌오빠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해외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서비스업쪽일 것 같고. ...(중략)... 거기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공부만 하면서 알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은 알바하면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차라리 서비스업쪽에서 알바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학생, 이서경)

이들은 진로 방향을 몇 가지로 추려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나름 가늠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말 그대로 정보만 수집하고, 제한된 정보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면밀히 살펴야하겠지만, 면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은 진로 준비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 때문이다. 자신이 할 만한 일을 찾아 주변에도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수집하지만, 당장에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막막하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면담을 통하여 이들인 구체적인 진로 계획과 준비를 수능이나 졸업 이후, 혹은 군 제대 이후로 유보시키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자격증은) 20살 되면 준비하면서 하려고요. 지금 급할 거는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준비해야죠. ...(중략)... 일단 졸업하면 술을 먹겠죠. 술을 좋아해서. 다 놓고 (얼마나?) 2~3달이면 되죠. (그 다음엔?) 군대 준비하면서 군대 안에서 자격증 준비할 수 있게 생각해두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겠죠. (재학생, 최수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1년 지나면 성인이잖아요. 그때부터 좀 놀고 술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애들 다 대학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알바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창업 준비 같은 것들은 당장에 진지하게 생각할 계획은 없어요?) 일단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자금부터 마련해 보자. 그러면서 일 배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자금을 모으는 것은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해요?)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대학 간) 다른 애들 졸업하기 직전. (한 4년?) 네. 3~4년. (예상하는 사업자금은 얼마예요?) 한 1억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1년 정도는 진짜 남들 놀 때 일하면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 하기 전에 가족들한테도 물어보려고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냐고. (재학생, 장도연)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계획과 준비가 구체화된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은 고1~고2사이 일찌감치 직업반이나 위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들이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과정은 진로계획이 모호한 면담대상자들과 유사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돈벌이 되는 안정적인 일을 찾았고, 할 만하다고 판단이 서자 바로 구체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최윤혁은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하여 직업반을 선택해 다니고 있다. 최윤혁

은 현재 직업학교에서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와 관련된 교육기관, 군대, 취업처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고 있었다. 그는 희망하는 직업이 명확해지자, 그와 연결된 다양한 진로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스스로 혹은 도움을 받아서 진로정보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는 다른 면담대상자들과 달리 매우 상세하고 현실적인 진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3때까지는 직업학교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 이후의 계획은요?) 졸업해서 공군을 갔다가 4년 6개월 공군 마치고 나와서, 장기는 안하고 나와서 경력이 쌓이니깐 그거로 정비사 취업을 (하려고요). (그런 정보는 진로상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검색도 해보고 지식인 그런 것들. 상담도 해 보고, 직업반에서도 상담을 해 보고. (재학생, 최윤희)

(수능은 응시 안 해요?) 수능은 봐요. 수험표 할인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수능 끝나면 (미용)학원에서 연결해주는 게 있거든요. 삼으로요. 얘기해서 바로 일을 할고요. (재학생, 이선미)

미용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선미도 최윤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직업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도 윤곽이 잡혀서인지 다른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안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애들은 일단 대학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저는 이미 미용하기로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위 친구들 보면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단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가 놓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한다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제가 약간 이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득이라고 하면 어떤 점?) 먼저 하고 싶은 거 정했으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취업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일찍 시작하니까 그게 좀 더...(스스로 대견한?) 약간. (재학생, 이선미)

면담대상자들 중에는 최윤희이나 이선미의 수준은 아니지만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이들이 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빨리 돈부터 벌어야 하는 조건에 있었다. 박준수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되길 원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서 가게에 보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진학이든 자격증 준비든 진로와 관련된 준비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 비켜났으며,

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은지는 공무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시험 준비에 필요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먼저 벌어서 공부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학원비나 교재비 같은 거는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시나요?) 아니오.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중략)... 일단 2월 달에 졸업을 하니까 3개월 동안 공장에서 적어도 3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하니까 3개월 정도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해서 18년도 시험은 보고 싶어요. (재학생, 이은지)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형편상 미루어놓았지만, 이들의 진로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혀 계획을 갖지 않은 재학생들보다 상황이 나아 보인다. 소수의 재학생 면담대상자들은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은 졸업 이후로 모두 유예시켜놓았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반고 재학생들이 진로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진로 정보, 그 정보대로 실행에 옮길 용기나 추진력,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조건들이 부족하거나 갖추어지지 않으면 진로계획이나 준비는 불투명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면담을 통해 만난 일반고 재학 중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결국 시간과 몸이 학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비진학의 사유였던 가정형편이나 학업성적과 같은 조건들이 대학 이외의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명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직업이나 취업 정보를 막연하게 찾는 수준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2) 졸업생

일반고 졸업 후 1~2년, 길게는 4~5년의 시간을 보낸 졸업생들의 생활도 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면담대상자 중 자신의 일을 가진 이는 졸업 4년차인 이영수뿐이었다²⁹⁾. 다른 이들은 여전히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중이었다. 대부분의 면담대상자

들은 평일 혹은 주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지냈다. 진로를 확정짓지 못한 면담대상자들의 가장 적극적인 진로준비 활동은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관련 학원에 다니는 것이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재학생과 유사한 수준에서 막연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졸업생들의 일상에서 중심이 되는 아르바이트 실태와 그 이외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진로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① 경제활동: ‘제가 평생 할 일은 아닌데’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간혹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생들은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업체를 통해서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편의점, 음식점이나 호프집 서빙, 주말 호텔 뷔페, 택배 상하차, 주차장 안내, 단순한 반복 작업을 요하는 공장 등에서 일했다. 급여 수준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달랐으며, 최저 시급을 받는 수준부터 최고 월 140~190만원 정도를 받는 수준까지 다양했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기간은 역시 사례마다 달랐다. 어떤 이는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1개월 미만으로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5개월~1년 이상 한 곳에서 일하기도 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육체노동의 강도에 따라 일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노동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일은 근무기간이 긴 편이고, 호텔 연회장이나 택배 상하차와 같이 그 강도가 센 일은 주말 아르바이트나 돈이 급할 때 찾는 경우로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알바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가끔씩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되게

29) 면담대상자 이영수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1년에 일반고를 졸업하였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 메이크업을 전공한 친구의 영향으로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영수는 미용관련 기술을 배우던 중 특수분장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졸업 후 국내의 특수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도제로 기술을 전수받았다. 당시부터 만들어진 인맥으로 현재 영화와 연극, 광고 등과 같은 분야에서 특수분장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수의 경우, 일의 특성상 일하는 기간이 집중되어 있어서 일을 쉬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향후 특수분장 전문업체를 창업하는 것이 목표이다.

많이 해 봤어요. 제 생각 자체가 모든 일은 일주일 정도면 대충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알바를 다 오래 안 해요. 그래서 해 본 거는 되게 많아요. 편의점도 해 보고 고깃집도 해 보고 술집도 해 보고 뷔페도 하고 공장도 여러 종류 다니고 상하차도 하고 웬만한 거는 다 일주일 정도씩은 해 봤어요. (졸업생, 이지호)

(요즘은 어떤 일해요?) △△△△이라고 한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면서 일 끝나고 밤에 술 먹고 일 갔다가 하루에 12시간 하니까 아침에 9시 반까지 갔다가 9시 반에 끝나면 와서 술 먹고 자고 일 갔다가 술 먹고. (힘들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며칠 가요?) (일주일에) 3번, 4번. (졸업생, 김정호)

상하차 같은 거는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면 상하차 밤 새고 하루 하면 하루에 9만원, 10만원 받으니까 밤샘 상하차 주말에 하고 아니면 고깃집 불러주면 가고. (졸업생, 이지호)

(졸업하고 좀 쉬다가)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뷔페에서. 그런데 엄청 힘들어요. 이거는 아니다. (얼마 동안 했었어요?) 5개월 정도 했었어요. ...(중략)... 5개월 정도 하다가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한 친구랑) 저희가 스카우트 됐어요. ○○백화점 지하에 전골집예요. 주 6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로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월요일마다 쉬었거든요. (백화점이면 급여는 좋았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도 안 줬어요. 한 160. (졸업생, 박민국)

면담대상자들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성실하게 하자 안정적인 직위를 제안 받거나 혹은 더 나은 보수의 일로 이직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면담대상자들은 자신이 했던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었다. 고은미와 김지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은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간, 3학년 수능 이후 12월부터 5개월 정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다. 일을 그만두기 전 해당 매장의 매니저직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고은미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제의를 거절했다. 김지훈도 군입대를 기다리면서 1년 계약직으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다. 1년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정규직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 6월에 김지훈은 부점장으로 승진하고 월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피자집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3 몇 월 달부터 다시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12월 달부터 다시 한 거예요. (수능 보고 나서요?) 네. 원래 주말에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평일에도 같이 (일했어요). (거기는 얼마나 일을 하신 거예요?) 5개월 정도. 거기서 매니저 권유가 들어왔었어요. 매니저 하라고. 그런데 쉬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쉴까 말까 정도. 그래서 그냥 일은 편한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둔 거예요. (졸업생, 고은미)

(피자집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은 있는데요.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면 저는 계속 이 일밖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점장으로) 올라도 덤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군대 가면 그만 할 일이다?) 네. 제가 평생 할 일은 아닌데 만족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할 일은 지금 구체적으로 직업을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건데요. (졸업생, 김지훈)

고은미와 김지훈에게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일 뿐이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고, 그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했다. 다른 면담대상자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면담대상자들은 이미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에서 다시 하고 싶은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보다 쉽고, 편하고, 보수가 높으며, 안정된 것이다.

(해봤던 아르바이트 중에 이게면 계속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있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제가 했던 일 중에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졸업생, 오수빈)

(오랫동안 일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았는데, 매니저면 그래도 꽤 괜찮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매니저 다음에 지점장으로 가나요?) 네.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고 사무직 해도 일주일에 2번 쉬는데 거기는 한번 쉴까 말까인데 14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편히 일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미 씨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정시에 퇴근하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월급 외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너스. (졸업생, 고은미)

하지만 면담대상자들을 원하는 일은 통상 아르바이트보다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가진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졸업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 이지호의 이야기가 이를 대변한다. 체육대학을 준비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이지호는 이력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전화나 면접을 통해 즉각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유사한데, 이는 별다른 자격증이나 기술을 갖지 않은 고졸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력서 내는 거는 거의 잘 안 넣고 전화나 직접 얼굴 보고 면접 받는 거 주로 하는데
하면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졸업생, 이지호)

그러다보니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이들이 당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앞서 언급한 서비스업이나 육체노동의 강도가 세서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이 기피하는 단기적인 것들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면에서 면담대상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때로는 힘든 아르바이트가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안정적인 사무직에 취업하기 위하여 다시 대학에 도전해야 할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나만의 사업체를 갖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졸업 이후 일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르바이트가 졸업생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고르는 기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기준은 뭐예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나 쉬워 보이는 거. (졸업생, 이미영)

(알바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알바는 해야겠고 하니까 어플로 가깝고 시급 많이 주고 그런 데. 주위에서 찾다가 제일 괜찮은 데 같아서 하고 있어요. (알바 구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요?) 시급이요. (좀 멀어도 시급이 좋으면?) 멀면 안 돼요. (1순위는 거리인 것 같은데요?) 네. 거리. (졸업생, 김지훈)

면담대상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돈’과 ‘거리’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급여와 접근성이 만족스럽다면, 그 다음은 ‘몸이 편한’ 일을 선호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거의 모든 면담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당연하게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거리나

노동강도보다도 돈이 우선시 되었다.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생 면담자들도 고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② 그 외 일상: ‘놀고먹고 싸고 그거예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졸업생들의 주요 일상은 아르바이트였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시기나 시간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다. 면담대상자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술집, pc방, 당구장을 주로 가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혼자인 시간에 TV 시청, 게임, 책 읽기, 웹서핑 등을 하는데, 스스로 이 시간을 소모적이라고 인식했다.

(영화 보고, TV 보고, 또 뭐해요?) 게임하고. (게임은 혼자 해요?) 애들하고요. (낮에는 뭐해요?) 낮에 자요. (일어나서 자다가 TV 보고 밥 먹고?) 진짜 놀고먹고 싸고 그거예요. (졸업생, 오수빈)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일 시작한 지 오래 된 거는 아니지만 그냥 나와서 친구들 만나거나 요즈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영부영 살고 있어요. 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한 번에 터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졸업생, 김정호)

(평일에 일어나는 시간은) 12시요.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러면 2시 정도 되면 그때 책 같은 거 읽다가, 그런데 읽다 보면 읽는 장르 같은 소설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꼬적이다가 그거 괜찮으면 계속 쓰고, 그냥 계속 써요. 이어서 반복해요. (졸업생, 이미영)

저희 아버지가 7시 40분쯤 나가시는데 그 전에 아침 같이 먹고, 밥 먹고 자요. 그 전에 자는데 아버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눈치 보다가 가면 몰래 자고 그렇게. 9시쯤 되면 눈 떠져요 그러면 9시부터 운동할 수 있으면 집 안에 운동기구들 제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한 3, 40분씩. 저는 매일같이 거의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한 번씩 페이스북 보다 보면 어느 새 점심이에요. 점심 먹고 학원이 2시에서 6시라서. 그 전에 애들 만나면 보다가 놀고 있으면 학원 갔다가 또 놀고.

(주로 뭐하고 놀아요?)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술마시고. (졸업생, 이지호)

졸업생들은 고등학생일 때보다 여유로워진 시간을 방만하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생활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학교에 다닐 때가 더 나았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때 인터넷소설을 쓴 경험으로 소설가나 방송작가를 꿈꾸는 이미영은 졸업 이후 도리어 글 쓰는 양이 줄었다고 한다. 주말에 7시간씩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가끔씩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외하고, 그녀는 거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계획했던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미영만이 아니라 다른 면담대상자들도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학교 졸업하니까 일상이 똑같고 일어나서 집에 있고 가끔 가다 약속 있을 때만 밖에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학교에 있는 거는 똑같아도 매일 (경험이) 다르니까 (소설을) 쓰는 게 고등학교 때가 더 많았어요. 집에 와서 쓰는 게. (졸업생, 이미영)

그냥 학교가고 싶어요. 등교하고. 지금은 저 혼자 일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래서 그게 밤낮도 완전히 바뀌고 옛날에는, 살도 엄청 많이 찼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살이 15키로 정도 쪼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조금이라도 규칙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 생활이 뒤틀렸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라도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졸업생, 오수빈)

(본인 생활 10점 만점에 10점 주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아쉬운 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아쉽다 이런 거는 없을까요?) 늦잠 자는 거. (시간을 잘 못 쓰는 거?) 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 시간을 빼고는. (졸업생, 이지호)

면담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졸업생들의 시간활용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려있다. 특히 재학생들 면담에서는 이런 종류의 자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졸업생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재학생들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미래 계획이 단기적으로라도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군 입대나 자격증 준비 중-이거나 아예 졸업하고 시간이 꽤 흐른 이들에게서는 시간 활용에 대한 자책이 확인되지

않았다. 3명의 졸업 4~5년차 면담대상자들³⁰⁾은 졸업 후 1~2년 이내의 졸업생들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와 여가를 반복하는 생활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미루어 짐작컨대 개인차가 있겠지만, 졸업 1~2년차에서 졸업 4~5년차로 넘어가면서 불안한 미래 계획과 버려지는 시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걱정은 익숙함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³¹⁾

③ 진로 준비: ‘아직 딱히 없어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졸업생들의 진로 계획과 준비는 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업할 분야나 직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등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사업을 구상하거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우선 졸업생 면담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위하여 자격증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이는 2명이었다. 이들은 자의 혹은 타의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었다. 고은미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나서, 사무직으로 취업을 원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무직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고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은미는 졸업생 면담대상자들 중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편에 속했다.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일단 사무직으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실업자 대상으로 학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 받을 때 전산회계도 같이 해 보라고 하셔서 두 개 다 같이 들었어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일단 엄마가 말씀해 주셨던 학원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실업자 대상으로 해 준다니까 그거로 (졸업하고 언제부터

30) 졸업 4~5년차 4명의 면담대상자 중, 강태양은 201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는 1~2년 안에 대학 합격을 원하고 있어서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양이 인식하는 시간 압박과 다른 졸업생들이 느끼는 그것은 다를 것이다. 다른 졸업생들은 구체적인 미래 계획 없이 허망하게 버려지는 시간들에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31) 이때 남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즈음 남자와 여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졸업 후 4~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내게 되는 여자와 달리, 남자들은 군 제대 이후 심리적으로 다른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성별에 따라 사회의 요구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고 졸업 후의 생활과 인식의 실태를 남녀로 구분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전산회계 자격증이나 공부들을 시작하셨어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시험을 봤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졸업하고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3월에는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대학 안 간 친구랑 같이 놀고, 3월 말쯤에 노동부에 가서 상담이 꾸준히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5월 달부터 학원에 간 거예요. (졸업생, 고은미)

이지호의 경우는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지호는 집을 지어서 파는 일이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이든 건축에 관련된 자신의 사업체를 일구는 것이 이지호의 최종 목표이다. 그 목표의 사전 단계로, 그는 집 짓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 카드자격증도 건축 분야의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게 되었다. 이지호는 아직 자격증 시험에 응시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시험 결과가 좋지 않거나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군대를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건축 하시다가 망해서 내려왔다가 이모부 일 도와드리면서 하다가 계약 따시는 일. 저도 건축 쪽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일자리 마련 해준다면서 군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격증 배우는 것도 카드가 건축에 쓰인다고 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카드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돼요. (안 해 봤던 거라서. 공부하기 괜찮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지 않는데 그림 그리니까. (졸업생, 이지호)

면담대상자들 중 일부는 하고 싶은 일의 윤곽은 대략 잡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관련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경우에 속했다. 이들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 비하여 진로계획이나 준비가 모호한 편이며, 공통적으로 하려는 일을 위하여 돈을 모아야한다고 했다. 창업자금이든 학원비든 간에,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한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현재 돈이 없어서 진로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학생을 포함한 면담대상자 중 상당수가 창업을 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업종을 정한 이들도 있었고, 막연하게 사업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변 인물들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모호하게 얼어둔 상태이다.

(하고 싶은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저는 일단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래에는 옷 있잖아요. 옷의 원재료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마진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인천 쪽에 □□□라는 매장을 제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쪽은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패션에 대해서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가 그 센스가 되게 좋아요. (옷 입는 센스가?) 네.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유통 쪽으로. (원단을 제공하는 일. 친구가 패션 감각이 있으니까 고르는 감각들을 살려서?) 네. (언제쯤 그런 일을 해 보고 싶다 시기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일단 저희가 군대 갔다 와서 일단 돈이 좀 많이, 자금이 필요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졸업생, 박민국)

제가 앞으로 만약에 대학을 안 가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카페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창업을 해 볼까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 28살까지 진짜 뻥세게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가정이 되더라고요. 대충. ...(중략)... 그런데 8천만원으로는 창업을 못하더라고요. 적어도 1억은 있어야지. (28살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25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때까지 좀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모은 게 8천만 원이고 28살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나머지는 청년창업 그런 거 해서 국가에서 대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나 요즘은 핸드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카페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 정도 드냐? 그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생, 이수영)

몇몇 면담대상자들은 원하는 직종의 취업에 필요한 학원이나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있었다. 혹은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작가를 꿈꾸는 이미영은 방송작가 전문학원을 알아보았지만,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작가가 하고 싶어서)그래서 MBC아카데미 이런 것처럼 다 해 알아봤는데 다니려면요. 한 학기 다니는데 백 2십 얼마, 2백 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내가 알바를 해서 여기라도 다닐까? 알바를 하는데 20살이니까 술도 마시고 놀게 되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2백 얼마 반 학기 동안 쓰면서.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봤어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어요. 엄마가 학원 다니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네가 더 생각을 해 보든가 돈을 더 벌어서 뭐라도 되면 말하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오면) 보내주겠다고 그러셔서. (졸업생, 이미영)

이미영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의 수준에 있는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자신의 꿈에 대해서 깊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 혼자서 막연하게 꿈꾸는 것들이 실현가능 한지를 점쳐보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현가능성을 접어두더라도, 창업이든 학원이든 결국 자신이 필요한 돈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고 대학 비진학자들의 다수는 졸업 후 1~2년 동안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계속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고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유지하는 생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 설계는 현재보다 더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남자들은 이 시기에 군대를 잠깐의 도피처로 삼기도 했다. 졸업 1~2년 이내의 남자들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와 유흥(혹은 여행)을 번갈아 하면서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여자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 그대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자격증을 판다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즐기면서 자격증을 따자. 따 놓으면 좋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심리 그쪽 말했잖아. 일단 심리상담 자격증이나 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쪽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 일단 그 3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자. (컴퓨터하고 사진 자격증) 네. (그리고 심리 쪽?)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어영부영하고 있죠. (졸업생, 김정호)

(이후 계획 혹시 있어요?) 아직 딱히 없어요. (뭐가 제일 불투명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알바만 하면서 살기는 싫거든요. 알바만 하면서 사는 거는 제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제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알바만 계속 한다는 게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졸업생, 김지훈)

(자기 생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만족도는요?) 60점. (40점은 뭐가 아쉬워요?) 일어나서 한심한 거 같기도 하고. (왜?) 한심해 보여서. 다른 어른들이 보기에 애는 대학도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보내고. 한심해 보일 때는 있어요 (스스로?) 네. (언제 제일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일어났을 때.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한심하다.(졸업생, 이미영)

현재 하고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은 방만한 일상에 대한 자괴감을 갖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학생과 비교하여 진로계획이나 준비의 막연한 정도는 비슷했지만,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졸업생들이 낮아보였다. 졸업을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기의 몇몇 재학생들이 보여준 자신감이나 성공에 대한 확신을-불안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졸업생들에게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수의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자들은 ‘버려지는’ 시간에 대하여 초초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진로 방향과 진로준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의 불리함 속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와 ‘널부러진’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1~2년 이내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이들의 생활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진로고민으로 채워진다. 재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상당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또래에 비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한다. 그 시간에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졸업생들은 스스로 모든 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었다.

진로준비나 실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막연하게 진로를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져다주는 불안정한 생활과 일자리에 대한 상념들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게 한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조건-가정형편, 학력,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파생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로계획을 낳지 못한다. 게다가 일반고 재학 혹은 졸업이라는 배경은 이들에게 대학 이외의 진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이 막연하게 창업을 희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희망사항을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다. 이들은 나름의 방식과 수준에서 진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정리하면, 면담대상자들은 돈이나 성적 때문에 자의반타의반으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고 다른 삶을 꿈꾸지만, 다시 돈이나 성적-공부나 기술-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면담대상자들 중에서 학교나 주변으로부터 적절하게 도움을 받은 이들이 진로와 미래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 인식

이 절에서는 현재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면담대상자들이 대학과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정리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하기 힘든 선택으로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담대상자들의 대학과 노동에 대한 생각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과 노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 면담대상자들의 현재의 비진학 결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1) 대학에 대한 인식: 대학졸업장은 비싼 자격증

면담 과정에서 면담대상자들이 ‘대학’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대학은 증서, 즉 졸업장을 받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엄청난 거를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아요. (대학을 가는 이유는) 학벌 때문이죠. 솔직히 졸업장 따려고 가는 것 같아요. 수업이 막 그렇게 많은 돈 내고 갈만큼 대단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혼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재학생, 정다진)

(그러면 일단 대학은 앞으로도 가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돈만 들잖아요. (요즈음 전문대 같은 데서 분장이나 이런 학과들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봤는데요. 제가 그 선생님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뭐를 배우지? 돈만 주고서 그냥 증서 받는 거 별로. (졸업생, 이영수)

이들의 면담 내용을 참고하면 대학 졸업장은 비싼 자격증이다. 대학은 내가 낸 등록금을 비싼 증서로 바꾸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는 것이

거의 모든 면담대상자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하더라도 이 자격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졸업장 소유 여부에 따라 임금 차이 뿐 아니라 승진 가능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³²⁾

(대학 학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격증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졸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애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돈을 더 받고 애는 조금 시키겠지. 저는 고졸이니까 돈 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킬 것 같은. (졸업생, 고은미)

그래서 이번 년도가 아니면 대학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대학을 안 가자니 대한민국에서 대학 기준이 엄청 높은 거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원하는 과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가자니 등록금 몇 천씩 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가 심하니까. 회사를 예로 들어도 연봉 차이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는 그 말도 들었거든요. 승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진짜 아무 데라도 가야 되나? 전문대라도 가야 되나 싶고. (졸업생, 한주희)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대학은 ‘무조건 가야하는 곳’이지만, 모든 대학의 졸업장이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 대학 진학 결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즉 현재의 형편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결과로 얻는 대학 졸업장이 언젠가는 임금이나 승진 등의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는 반드시 진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각 대학의 사회적 서열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높은 성적, 등록금과

32) 모든 면담대상자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고졸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이었고, 졸업생의 경우 그래도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졸업 후 짧게나마 사회 경험을 해본 결과 갖게 된 인식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진학을 결심한 재학생들과, 졸업 후 아르바이트나 취업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 간 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차이가 정말로 졸업 후 노동 경험에서 생겨나는 차이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가정 형편을 꿈꿀 수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미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권에 속해있는데다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 지출해야 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면담대상자들은 성적에 있어서도, 가정 형편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성적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지방대학교에는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지만 서울·경기권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등록금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면담대상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이런 경우라면 대학에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더욱 더 치열한 손익계산의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장은 내가 투자해야 하는 비용-등록금, 생활비, 용돈, 심지어 지방대에 진학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까지-에 비하면 그다지 큰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명 지잡대) 그거는 저도 갈 수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방대 갈 수야 있겠쥬. 등록금 내면 다 보내주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딱히 그러면서까지 그 돈도 아깝고 그러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졸업생, 오수빈)

(주변의 사례에서 보니) 정말 대학 다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진짜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가서 배우는 것도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고 배우는 것도 없고 거기에 돈 투자만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대 이런 데 경기권 대학 가도 좋은 거 없고,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별거 없고 교수님 수업만 듣다가 나오고. 졸업장 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천만원씩 주고 따야 되나? (재학생, 이서경)

오수빈과 이서경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명하지 않은 지방대의 경우 이런 손익계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항상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회적 쓸모가 없는 자격증을 ‘뭐 그렇게 천만원씩 주고 따야 되는지’ 반문하게 된다.

이렇듯 대학 졸업장을 내가 낸 비용과의 ‘교환’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비진학 결정 과정에서 ‘인서울 대학이 아니면 대학에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표현되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이런 생각은 면담대상자들이 비진학을 결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은 단순히 무기력하고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즉 ‘나는 대학에 못 갈 거야’ 혹은 ‘대학엔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이 고등학교 입학시기부터 비진학 결정 시점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를 제외한 면담대상자들은 고등학교 입학시점부터 비진학을 결정했던 마지막 시점까지 나름대로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하고 수정해왔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성적이 낮았다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울 경우 무료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어보기도 했다. 혹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교내 대회에 출전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소위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해보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이 좌절로 바뀌기도 하고,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다시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대학 졸업장의 가치에 비해 내가 투자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결론에 이르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따져보게 된다. 그 계산에서 내가 손해라는 판단이 서면 학생들은 비진학을 ‘선언’한다³³⁾. 이런 맥락에서의 결정은 이후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도 ‘돈’이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면담대상자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내 삶의 미래 전망을 밝혀줄 수 있는 방도들을 고민하지만,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가 가장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 노동에 대한 인식: 일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

대학에 대한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 면담대상자들이 ‘일’이나 ‘직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이 ‘좋은 일자리’의 조건 중 1순위로 꼽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다. 노동 강도나 복지, 노동의 즐거움 등을 희생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돈도 잘 버는, 둘

33) 여기에서 ‘선언’의 의미는 ‘마음 굳히기’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비진학이라는 결정에 계속 불안을 느낀다. 각자 나름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비용의 가치를 치밀하게 계산한 이후 내린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가 부모와 학교에 공개적으로 비진학이라는 자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는 양태를 보인다. 그리고는 비진학을 지지할 만한 근거나 사례들을 수집한다.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안 좋아했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네. (재학생, 장도연)

(어떤 조건들이 그 일을 좋은 일로 생각하게 해요?) 돈. 그게 제일 돈 잘 벌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중략)... 복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저는 거의 된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택해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냥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경력이 쌓이면 저절로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냥 경력이 좀 쌓이고 해가지고. (재학생, 최윤희)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면 성공했다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잘사는 거는 어떤 거예요?) 돈 많은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어디 틀에 안 박혀 있고. (졸업생, 이영수)

졸업생 박민국은 성공적인 롤모델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학교 선배를 꼽았다. 이 선배는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곧 휴학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차고 사고 골프도 치러 다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국은 이 선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선배) 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형은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지금까지 안 다녀요. 그 형은 차도 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하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몰라요. (졸업생, 박민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용(네일아트)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선미 역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해외에 나가고 싶다고 했다. 해외에 나가서 네일아트 일을 하면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한 5년 후에는) 저 여기서 (네일 아트를) 하다가 해외에 나가서 돈 엄청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일아트, 미용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고 그래서 해외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 좋아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자잘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중략)...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벌면 하나 차렸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는 보통 얼마 정도 번대요?) 우리나라 못해도 2배 이상은. 2배도 아닌 것 같은 게 제 친구가 아무래도 미용고다 보니까 미용 쪽에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아는 언니가 잠깐 일하고 왔는데 돈 엄청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학생, 이선미)

이런 면담 내용들은 모두 면담대상자들이 앞으로 선택하게 될 진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노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 즉 일은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대학은 내 돈을 졸업장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관된다.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도 철저한 손익계산이 개입한다. 돈은 많이 벌수록 좋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 즉, 관련 자격증 취득, 학원 공부 등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한 후 견뎌야 하는 힘든 육체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일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면담대상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일의 노동 강도이다.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것은 곧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비교적 배타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시각은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선미의 경우 미용을 배우기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천만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직업반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딱히 후회 되지 않아요. 학원에서도 인문계 친구 중에 미용 하는 애가 있는데 개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2학년 때요. 개도 어차피 그런 데 가도 기초적인 거 배우고 심화된 거 안 배우니까 어차피 학원을 다니는데 뭐 하러 거기 가면 또 미용 재료 값도 들고 하니까 뭐 하러 거기에 가서 또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런 데 가면 다 배우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한꺼번에. (재학생, 이선미)

따라서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결정할 때 그 준비에 드는 비용보다 내가 지불해야 할 노동의 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에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면담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고등학생 신분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으로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호텔 뷔페 서빙, 편의점, 택배 상하차 등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든 일들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회상할 때 ‘진상’ 손님을 만나 힘들었다거나 평소 하지 않던 청소, 서빙 등을 하느라 ‘몸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이들은 가능하면 이런 종류의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무소에서 전표를 입력하는 일이) 처음에는 할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단순노동이잖아요 계속 입력만 해요. 손목도 너무 아프고 마우스를 만지니까. 눈도 아프고 다섯 달이 뭐라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일을 해 봐야지 그래서 다섯 달 하고 그만뒀어요.(재학생, 이수영)

(다시 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나 쉬워 보이는 거. (졸업생, 이미영)

이런 경험 속에서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내가 재미있는 일’, ‘내가 즐거운 일’로 귀결된다.

쪽 팔려서 안 갔다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 인생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지방대 이런 데 가서 어영부영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개네랑 어울리다가 졸업 막바지에 취업준비에 열 올리고 그러다가 결국 중소기업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봉 2500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이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호 학생은 연 2500 이상 벌 자신이 있어요?) 연봉은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상관 있어요?) 지루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 회사원이랑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젊은 세대하고 많이 만나는 그런 거. 나이 들어서. (졸업생, 김정호)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건데요. (확실히 피자집은 아니고) 네. 그래서 계속 보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나의 길을 뭐가 그렇게 불투명하게 만들까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 그거의 단점만 보이고 나중에는 다른 직업이 보이고 그러니까 제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는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좋아할지 말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네. 하면서 힘들어도 되는데 제가 좋아해야지 힘든 것도 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데 힘들면 그거는 정말 빨리 그만둘 것 같아서. (졸업생, 김지훈)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다소 적은 돈벌이나 힘든 노동은 견딜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아르바이트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고, 불안정한 경제형편

때문에 이사를 다녔던 경험이나 빗 독촉을 받았던 경험,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 등을 떠올리면 돈벌이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경우 이들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즉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나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면담대상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뭐가 제일 불투명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알바만 하면서 살기는 싫거든요. 알바만 하면서 사는 거는 제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제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알바만 계속 한다는 게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중략)... 진짜 공부를 3학년 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도 힘들었는데 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 하려고 또 그렇게 몸을 불사르고 싶지 않다.) 네. 아직 철이 덜 든 거일 수도 있는데...(졸업생, 김지훈)

김지훈은 낮은 수능 성적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현재는 작은 피자집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평생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다시 진학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대학에 진학한 이후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내가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김지훈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지 않고 대학 진학에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진로는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고민하겠다고 미뤄두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면담대상자들이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최종 종착지로 삼는 삶은 ‘일하지 않는 삶’이었다. 40대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 상당수의 면담대상자들이 자신의 가게를 한 두 개쯤 차려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은 관리역할만 하면서 취미나 여행 등 한가로운 개인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30대에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일하고 있겠죠. 돈도 모으고 있으니까 집도 더 좋은 집으로,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을 것 같아요...(중략)... (30대는 그렇게 살고, 40대는 뭐하고 있을까요?) 40대는 돈을 더

모아서, 제가 고양이도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카페 같은 거 차려서 일 없을 때는 번역일 하면서 그런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학생, 정다진)

(41살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 했으면 카페가 조금 더 커지고 저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하면서 저는 돈으로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졸업생, 이수영)

(40대에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옷 사업이나 음식점도 차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리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음식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옷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음식점을 차리는.) 네. 옷 사업도 하면서 음식점도 하고. ...(중략)... (50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뭔가 낚시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한가로이. (내 가게들을, 나는 사장님이 되고 일들을 시키고 낚시 하러 다니고) 제일 이상적인. (재학생, 장도언)

요즈음 맥주집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좀 허름한 가게를 사가지고 자기 인테리어 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중략)...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가게를 하나쯤 내는 게 아주 장기목표?) 네. 그래야지 50, 60 돼서도 장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전까지는 뭘 해서 돈을 모으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구나.) 네. 그게 고민이고, 일단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좋은데 늙어서 놀면서 일하고 싶고요. 그때는 일 하면서 돈 모으고. (졸업생, 김지훈)

만약에 진짜 돈을 많이 벌면 일 안 하고 그냥 샅만 차리고 저는 안 나가도 되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 네. 바지 사장인가 그냥 그런 (관리만 하는 거로?) 네. 그냥 놀까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아마.(재학생, 이선미)

이상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면담대상자들은 대체로 카페를 차리거나 음식점, 맥주집 등을 차려서 40대 이후에는 ‘놀고 싶다’ 고 했다. 이선미의 경우 네일아트를 배워서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최종 종착지는 가게를 차려 ‘노는’ 삶이었다.

이런 생각은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면담대상자들

이 꿈꾸는 자영업은 일을 하는 데 들이는 노력 대비 벌어들이는 돈을 두고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이렇게 노동의 최종 목적을 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이들에게 있어 대학 진학이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³⁴⁾. 경험과 경력이 큰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의 특성상 굳이 4년 이상의 시간을 대학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대학과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이들은 대학은 내 돈을 졸업장으로 바꾸어 주는 곳, 노동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산출이 충분한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조건들-너적하지 못한 가정형편, 낮은 성적 등-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데 들여야 하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비용, 시간에 비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지방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비진학을 선택했다. 또한 이들은 노동이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게,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훌륭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가게 하나 정도 차려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돈을 벌면서 자신은 ‘일하지 않는 삶’이었다.

4. 소결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일반고 안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선택은 실패로 간주되고,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은 그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회와 학교에서 부유하는 위치에 놓였다. 이들은 대학 이외의 다른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로 인해 졸업 이후로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학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34) 하지만 이런 인식이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도록 만든 원인인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후에 만들어진 인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면담이 이루어지던 시점은 이미 면담대상자들이 비진학을 결정한 후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대학 비진학을 염두에 두고 일반고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면, 결정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즉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결정이 번복되는 사유와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8명의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의 협의 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재학생과 16명의 졸업생을 선정하였다. 졸업생 중 12명은 졸업 후 1~2년 이내인 청소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졸업 4~5년 이내의 청소년들이었다. 면담대상자들은 성비와 서울·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비율을 고려하면서 선정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 실태, 진로계획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낮은 학교성적이었다. 더불어 면담대상자들을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함께 느끼면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형편은 개인차를 고려하고도, 대체로 여유롭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면담대상자들은 시의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바로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졌다. 성적은 이들이 원하는 상급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었으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진학을 포기 혹은 유예하고 있었다. 동시에 대학보다는 취업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 비진학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들 중 늦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더 늦게는 수능 성적을 받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다. 결국 일반고 내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결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와 좌절의 반복된 경험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의 경우, 취학 전부터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정이 가진 자원 내에서 가능한 교육적 지원들을 받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받는 교육적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얻는 어중간한 성적은 학교 내 관심과 지원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행이 아니고는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고 지내던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세간의 인식을 이기지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한다. 이후는 그 이전보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인지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이들은 소위 '인서울'대학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하는 자책만 깊어졌다. 이 같이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도와 좌절의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면담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절대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면담대상자들에게 성공은 대학졸업장이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면담대상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비진학을 결정 한 이후,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로 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기로 했으니, 돈이라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면담대상자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서비스업과 노동직, 단순 제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낮은 임금과 힘든 육체노동의 특징을 가진다. 대신 이 아르바이트들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면담대상자들 중 아르바이트를 진로계획과 연결하여 하는 이들은 없었고, 대부분 용돈벌이와 가게에 보탬이 되는 수준에서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이외의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내고 있었다. TV시청, 게임 혹은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불규칙적인 생활로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다.

명확하게 방향을 결정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면담대상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수강을 원하는 이들도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맡김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반이나 직업위탁교육으로 진로를 선회한 이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편에 속했다.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의 청소년들과 비진학의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대학이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학과 노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비진학의 결정과 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졸업장을 ‘비싼 자격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을 학문탐구나 지적활동을 하는 곳으로 떠올리는 이는 없었다. 이들에게 대학은 그 졸업장의 가치와 내가 투자해야 할 비용을 따져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판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불안이 졸업 이후까지 지속된다. 다음으로 면담대상자들은 일이나 노동을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했다. 일의 내용보다는 일자리의 급여와 노동강도를 우선 순위로 따졌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은 중국에는 자영업을 꿈꾸고 있었다. 진로계획이나 준비가 구체화되지 않을수록 사업체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외의 면담대상자들도 40대 이후에는 가게를 차려서 사람을 두고 ‘놀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노동은 결국 어떤 일도 하지 않기 위한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노동에 대한 이런 인식은 대학 비진학의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이 꿈꾸는 삶이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대가가 불확실한 대학에 투자할 필요는 사라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받아드리기에 앞서 연구 방법 상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심층면담의 설계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대상자들의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단위의 표집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면담대상자들의 지역 편향성을 극복해보고자 했으나,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면담에 읍면지역 거주자 혹은 유사한 지역 배경을 가진 면담대상자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면담대상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둘째 면담대상자들의 섭외 과정에서 편향성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학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면담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직접 신청을 한 경우라서, 대학 비진학 결정 이후 일정 정도의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탐색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적인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이 같은 한계를 연구조건 하에서 최대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을 섭외하면서 극복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면담 대상자들의 연령이 현재 고3,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하여 대학 비진학 결정 이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비진학 결정 사유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표집된 면담대상자들은 인문계고 내에서 부유하고 있는 비진학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교육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으며, 졸업 후 불안정한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다만 이후 이들의 삶의 궤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 과제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논의되기 바란다.

제 VII 장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 개발

1. 필요성 및 목적
2.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안)

제 VII 장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 개발³⁵⁾

1. 필요성 및 목적

이 장에서는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들은 특성화고 전입학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변경 전입학제와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위탁 교육사업, 그리고 진로역량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진로 설계와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정책 사업,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과 후 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진학의사가 없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진로역량을 키우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효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에서도 방과 후 서비스 사업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풀려고 하기 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정책 차원에서 전입학이나 위탁 수업, 진로교육 관련 교과 수업과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방과 후 서비스의 틀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한다면 보다 뚜렷한 정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을 활용하여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업을 2014년 말부터 추진 중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시안으로 작성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용한 비진학 청소년 대상 청소년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모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5) 이 장은 한도희 초빙연구원(공동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2.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안)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으로 학업부진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꿈이 없거나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입시경쟁에 밀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들은 진학이라는 목표가 사라지면서 향후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의욕저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진학의사가 없으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잠재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롭게 자신의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한 민주사회시민,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동기부여와 활력을 갖도록 체험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현재 중학교 2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한 「(가칭) 고등 행복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으로 한 「고등학생 방과후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비진학 및 미취업 예정 청소년을 발굴하여 개별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 및 직업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표 VII-1 고등 행복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안) 개요

사업명 : 고등 행복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안) 개요

- 기 간 : 연중(12개월: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 학기 주중(주4일) : 16:00~21:00(선택 2~3시간)
 - 학기 주말(월2회) : 다양한 현장체험 및 지역사회참여활동
 - 방학(여름,겨울) : 여름 집중 직업캠프, 겨울 인턴십(직업현장연계)
 - * 학기 주말(월2회) : 다양한 현장체험 및 지역사회참여활동
- 대 상 : 40,000명(전국 대학 비진학 및 미취업 예정 고등학생), 1차 시범 4,000명
 - * 지역내 고등학교와 연계 1차적으로 학교추천, 2차 지역사회 발굴추천 등
 - * 선발기준 : 취약계층 가정 고등학생 우선선발
 - * 성별구분없음, 인문계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참가비 무료
- 시 설 :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및 지역사회 다양한 체험터
- 인 력 : 청소년지도사, 직업지도관련 전공자 등
 - * 직업 현장체험과 관련한 지역내 직업체험(작업장) 연계협력을 통한 실제 직업전문가 연계지원
- 체 계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중앙고등지원센터 운영지원
 - * 기본운영계획(여성가족부), 실체운영 및 관리감독(지자체)
 - * 예산 국비(80%), 지방비(20%) 매칭사업
- 예 산 : '17년 2백억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40억원)
 - 전국 50개소 1단계 사업운영(1개소 연간운영 4억원 규모)
 - * '17년 50개소(2백억원) → '18년 125개소(5백억원) → '20년~ 500개소(2천억원)

이 프로그램은 비진학 및 미취업 예정 고등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자존감 및 꿈 형성, 둘째, 참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설계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VII-1>은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 개요(안)이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12개월로 개학 시점인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진행한다. 학기 중(주 4일)에는 주 4일 수업 종료 후 2~3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학기 주말(월 2회)에는 다양한 현장 체험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진행한다. 방학 중(여름, 겨울)에는 집중 직업캠프와 직업 현장과 연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대학 비진학 및 미취업 예정 고등학생들로 57,882여 명이며 1차 시범사업으로 5,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한다. 57,882명에 대한 근거는 비진학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4장 프로그램 대상자 규모 추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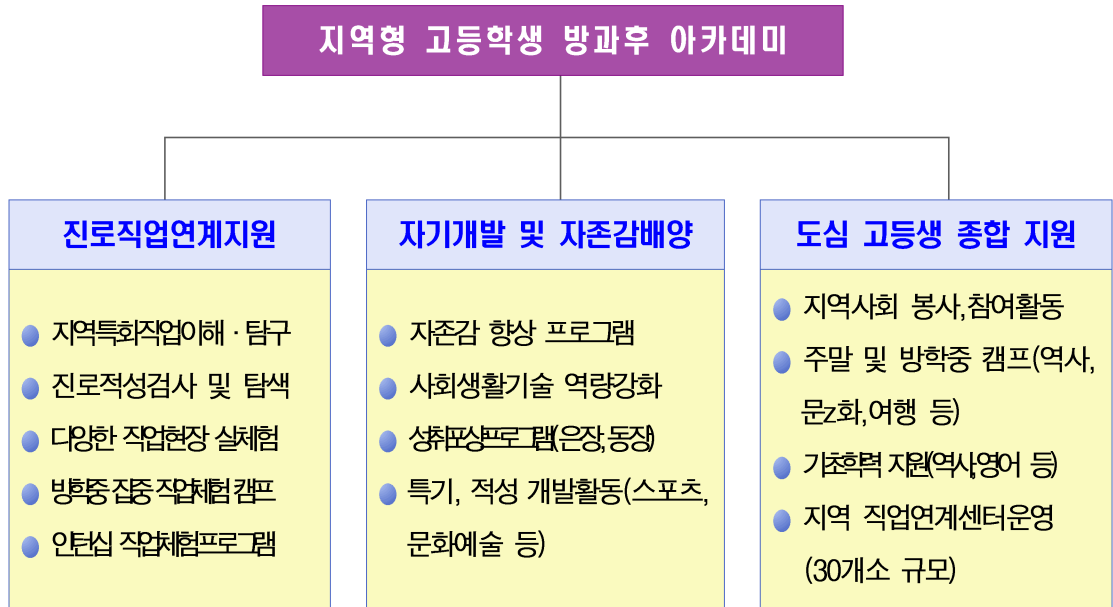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수련시설이 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센터에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청소년지도사와 직업지도 관련 전문가들이며 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중앙고등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본 사업이 진행되는 2017년도 예산은 2백억 원이며 전국 50개소에서 1단계 사업을 2016년도에 연간 4억 규모로 추진한다.

2) 프로그램 모형

프로그램 모형은 도심형과 지역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심형은 청소년수련관(시설, 기자재, 인력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의 선정은 고등학생 청소년인구 5천명 이상, 취약계층 고등학생 청소년 1천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40명을 대상으로 하거나 수요에 따라 80~100명을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그림 Ⅶ-1】 도심형 고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그림 Ⅶ-2】 지역형 고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공공유희시설을 활용하고 고등학생 청소년인구 5천명 이하, 취약계층 고등학생 청소년 1천명 이하 도시로 50명을 기본형으로 50~60명이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과 지역형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1·2차년도까지 80대 20으로 설정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년차부터는 슬라이딩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국고지원비율을 낮추어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Ⅶ-2 2016년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

《 도심형 : 30개소 》

○ 도심형 센터 : 450백만원 × 30개소 = 13,500백만원

－ 1개소 운영단가(국비) : 563백만원(80% 450백만원)

- 인건비 : 5명×28백만원 = 140백만원(센터장 1명, 청소년지도사 4명)
- 사업비 : 399백만원
 - － 주중 전문강좌: 2개 과정×4개 반×5만원×260일 = 104백만원
 - * 자존감 형성 및 강화프로그램, 특기·적성 개발활동(스포츠, 문화예술, 환경 등), 성취포상제프로그램
 - － 주말 전문체험 : 5개 반×30만원×24일 = 36백만원
 - － 급·간식비 : 80명×5천원×260일 = 104백만원
 - － 방학 집중 진로캠프 : 80명×30만원 = 24백만원
 - － 방학 직업 인턴십(작업장) : 50개소 × 일5만원 × 48일(2개월) = 120백만원
 - － 인턴십 청소년지원비: 80명×월7만원(교통비 등)×2개월 = 11백만원
- 운영비 : 30백만원(월2.5백만원×12개월= 30백만원)
 - * 공간이용료, 제세공과금, 출장비, 회의비, 간행물 등

《 지역형 : 20개소 》

－ 1개소 운영단가(국비) : 373백만원(80% 300백만원)

- 인건비 : 3명×28백만원 = 84백만원(센터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 사업비 : 259백만원
 - － 주중 전문강좌(3개 과정)×2개 반×5만원×260일 = 78백만원
 - * 자존감 형성 및 강화프로그램, 특기·적성 개발활동(스포츠, 문화예술, 환경 등), 성취포상제프로그램
 - － 주말 전문체험 : 3개 반×30만원×24일 = 22백만원
 - － 급·간식비 : 50명×5천원×260일 = 65백만원
 - － 방학 집중 진로캠프 : 50명×30만원 = 15백만원
 - － 방학 직업 인턴십(작업장) : 30개소 × 일5만원 × 48일(2개월) = 72백만원
 - － 인턴십 청소년지원비: 50명×월7만원(교통비 등)×2개월 = 7백만원
- 운영비 : 30백만원(월2.5백만원×12개월= 30백만원)
 - * 공간이용료, 제세공과금, 출장비, 회의비, 간행물 등

《 중앙지원단 》

○ 중앙지원단 구성·운영: 50백만원

- * 전문가 컨설팅, 사업평가, 효과만족조사연구, 사업관리운영 등

법적(제도적) 환경조성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은 1개소 당 청소년지도사가 최소 3명, 많게는 5명이 배치되도록 하며 참여학생 1명당 20에서 25명 선을 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운영방식은 지역사회 고등학생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두고 지자체 직영이나 전문단체 위탁 중에서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중앙 단위에는 고등학생 방과 후 지원센터 중앙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컨설팅, 평가 실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워크숍, 고등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지원, 종사자 직무교육 및 연수 운영, 실적보고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 사업효과성 연구 및 신규 운영모델 개발, 전문적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표 VII-2>와 같이 2016년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 법적 기반 마련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법적근거 조항이 되는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 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사업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I-3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u>진로·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Ⅶ-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사항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u>진로·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 3. <u>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에 맞는 방과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4.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5.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6.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사항
제33조의4(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 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개발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33조의4(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 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개발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u>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 사회성함양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실시</u>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5.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종합지원)도 위와 같이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제도 운영이 중학생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고등학생 대상 정책 추진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도 담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VII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 VII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³⁶⁾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 본 후 정책대상자로서 비진학 청소년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수생 규모를 제외한 순수 비진학 청소년의 인구 규모를 역량 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인구 규모를 산출하였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2차 자료 분석 및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대학 비진학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하며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소통 부모와의 소통 역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향후 진로에 대한 대화 여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치 않은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물질적 보상이 직업선택 및 직업을 갖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적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의 작용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잠재적

36) 이 장은 윤민중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집필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음.

비진학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비진학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면담대상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비진학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불안은 고3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들은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근로와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단순 제조업 또는 서비스직에 근무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및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을 기반으로 장기 진로계획과 연결하는 이들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졸 비진학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직업교육을 받아 본 청소년은 10명 중 1.6명으로 다수의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현재 대학 비진학,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은 거의 없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전반적으로 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실제로 일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고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접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등과 같은 ‘맛보기’ 형태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참여 형식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 후 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이 연구는 방과 후 서비스 사업에 주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에 기초한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학업부진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서비스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현재 중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고등학생 방과후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 운영이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행령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도 담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고와 직업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종 직업들을 발굴하여 인턴십, 도제교육, 산학협동교육 등을 강화해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실무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축소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 열악한 근무조건, 학력에 따른 내부 노동시장 불평등과 같은 노동시장 불안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와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배, 김기현 (2004). 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고등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49, 21-39.
- 강영배, 김기현 (2014).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2007). 취업성공패키지.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III-1). 세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 (2010a).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0b). 진로교육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교육부 (2013a).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세종: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b).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a).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b). 2014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a).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b). 고졸취업자에 대학교육 기회 활짝 연다. 보도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운영방안 매뉴얼[안]. 서울: 교육부 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운영매뉴얼. 세종: 교육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기현 (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2), 65-93.
- 김기현 (2015).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안국,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25-148.
- 김양분 (2013). **2013 한국교육중단연구: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명, 이광호, 노혁, 이해정 (1990).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연구*, 2, 49-60.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주 (2007).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다중상호작용방식. *한국사회학*, 41(6), 171-203.
- 김혜원, 이병희, 윤자영 (2009).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박나연 (2014). **NEET가 장기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상현 (2012). 미진학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 과제. *고용이슈*, 5(2), 04-25.
- 박진희 (2012).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시사점. *고용이슈*, 5(2), 28-41.
- 백병부, 김정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2012). 비진학 청소년 영킨 실태에 대한 이야기. 2012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a). **2014 「일반고 점프업」 추진 기본 계획[안]**.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b). **2015학년도 일반고교 학생 직업교육 운영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청 (2013.4.24).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보도자료.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교육사회학연구*, 20(3), 83-103.
- 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 (2014).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부.

- 신선미, 오은진 (2014). **고졸 여성청년층의 진로·취업 및 경력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세호 (1990). 21세기 한국의 발전과 환경교육의 추진방향. **환경교육**, 1, 5-14.
- 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 (1991). **고졸 비진학자의 진로실태 조사연구(RR91-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엄기호 (2013).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서울: 따비.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윤형한, 신동준 (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THE HRD REVIEW**, 15(1), 36-63
- 이상준, 이수경 (2013). **2013 비진학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렬, 강병식, 반정호, 손혜경, 홍영표 (2012). **고졸 미만 학력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은정 (2007).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교육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필남 (2014). 고졸취업 확대 정책이 고졸취업자 일자리의 질에 미친 영향과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 분석. **고용패널학술대회, 고졸노동시장I**, 129-148.
- 장명희, 김종우, 최동선, 박철우, 나승일, 이영호 (2012). **고졸 취업 및 후진학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상수, 손병선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장석민 (1990).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촉진대책. **직업교육연구**, 9(1), 19-39.
- 장석민, 서정화, 윤병희, 전현중, 안영수 (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명 (2009). 5·13 대학정책 분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7, 9-49.
- 전병유, 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태 현황과 정책과제(정책연구 2003-0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희진 (2013). 고졸채용 확대 정책이 고교 졸업자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추계, 1-27.
- 조한혜정 (2014).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채창균 (2008). **유휴청년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박동열 (2013). **일반고생의 직업교육 수요 충족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종희 (1985). **한국 무직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준호 (2007). 사회자본의 직업성취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고졸 청년층의 사회 연결망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2), 115-137.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publ/list?itemCode=02&survSeq=&menuSeq=0&division=&word=>에서 2015년 10월 29일 인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병수 (1990).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연보9001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영준 (2014).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진단. **THE HRD REVIEW**, 17(4), 50-59.

.....

부록

부 록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면담 질문가이드

1)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

- ✓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어떤 학생이었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으며,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지 등등 자유롭게.
 - (초→중, 중→고 진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염두에 두었던 점이 있나요?
 -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왜 현재(혹은 졸업한) 고등학교를 선택했는지?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유형 중 일반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 각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교사, 친구, 부모님, 형제자매 등)
- ✓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고1 때 입학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친구들과 잘 지내야겠다?)
 - 1학년 때 혹시 대입을 겨냥해서 참여했던 활동, 동아리들이 있는지?
 -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여럿 참여했을 것 같은데 자신은 어땠는지? 참여했다면/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계기나 이유로?
 - 2학년 때는 어땠는지? 주로 어떤 활동/공부에 시간을 보냈는지?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에선 가장 중요한 학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땠는지?
 - 3학년 올라와선 어떤지(재학생)/어땠는지? 대학진학이 현실이 되는 시점. 진로/진학 상담을 해봤는지, 어떤 조언들을 들었는지, 대학진학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언해줄만한 사람이 있었는지(선배, 교사, 친구, 부모 등)
 -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 관심사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주로 한 고민은 무엇인지? 그 고민은 해결이 되었는가?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현재 상태는?

✓ 과거를 돌아보니 ‘대학’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지?

- 막연하게나마 ‘대학은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
- 관심 있었던 학과나 전공 등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런 일(진로)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 ‘대학에 가기 위해 이런 것들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
-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사건이 있는지? (형, 누나, 친척 등이 대학에 갔다든지, 인상 깊었던 티비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등)

✓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은 언제부터인지?

- 무엇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여러 요인들 중)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 ‘좋은 대학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왜 이런 생각?
 - 인서울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나 취업으로 유명한 지방대학 등도 고려해볼만 한데 아예 진학 자체를 포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심정은?
- (답답하다, 슬프다, 막막하다 등의 응답일 때) 왜 그런 기분이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무엇이 가장 아쉬운가?
- (대학 비진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데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 (대학 비진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어떤 도움, 계기가 있었으면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까? 어떤 유인가가 있었을 때 대학 진학을 고려해봤을까?
- 대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측면인가? 그런 특성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
-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
-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동생, 사촌, 후배, 미래의 자식 등)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해줄 말은?

2) 현재 생활 실태

<재학생> -학교생활 초점

- ✓ 곧 수시 원서 시즌이고, 친구들은 입시 준비에 매진할 시기인데 학교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하루를 이야기해 달라.
 - 학교생활이 의미 없거나 재미없지는 않은지?
 -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혹은 어떻게 버티는지?
- ✓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한 친구,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 ✓ 교사들은 현재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알고 있나? 안다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없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한다면 어떤 일? 아르바이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나? (평소 관심 분야와 관련 있나? 그냥 시급 기준으로?)
 -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는가? 일의 종류, 시간, 급여는? 만족도는?
 - 현재의 아르바이트에 과거 경험이 관련되어 있는지?
- ✓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학교생활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지?
 -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불리한 점은?

<졸업생> -일상 초점

- ✓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떻게 지냈는지? (졸업시기부터 월별, 분기별로 자세히)
- ✓ 현재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 (전형적인 하루 일과는 어떤지?)
- ✓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일?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나? (평소 관심 분야와 관련 있나? 그냥 시급 기준으로?)

-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는가? 일의 종류, 시간, 급여는? 만족도는?
- 현재의 아르바이트에 과거 경험이 관련되어 있는지?

✓ 다른 자격증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나?

- 자격증 내용은? 자격증 정보의 출처는? 준비도는?
- 그 자격증이나 시험이 미래의 할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3) 앞으로의 계획

✓ 언젠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가?

- 있다면 언제쯤? 어느 대학(전문대/4년제?) 어느 전공?
- 수능을 다시 봐서 입학할 예정인가? 등등 (대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

✓ 취업할 계획이 있는가?

- 단기 알바가 아니라 정규 직장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쯤?
- 취업에 관련된 정보는 보통 어디에서 얻는가?
-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정보를 모으고 있다든지, 학원비를 모으고 있다든지)
-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취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졸 학력 외에 대학 비진학 때문에 갖는 불리한 점이 있다면?)
- 취업 과정에서 가장 답답한/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취업 과정에서 도움/조언을 구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재학생이라면 교사? 부모님? 친구?)

✓ (남학생이라면) 군입대 계획?

✓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경우) 왜일까? 무엇이 가장 내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가?

✓ 나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10년? 30년? 50년?

-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은?

4) 정책 욕구

(대부분은 위의 질문들 속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 어떤 도움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 ✓ 학교에서 도움을 준다면? (진로지도, 진학지도일 것으로 예상. 혹은 일반고의 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평범한 다수의 일반 학생 포함-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등)
- ✓ 학교 밖에서 도움을 준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

2.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 및 기초통계

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SD)
성별(남성)	남성=1, 여성=0	.56 (.50)
자산 규모	부동산과 금융자산 총액 5천만원 미만=1, 5천만원 이상~4억원 미만=2 4억원 이상=3	1.95 (.55)
부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5.46 (1.29)
모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4.94 (1.04)
양부모 가정(친부모)	양부모 가정=1,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유형의 보호자=0	.9 (0.30)
형제자매 수	형제 · 자매 수	2.19 (0.67)
학급 석차	학급 석차 단위(%)	48.05 (27.01)
수능 성적(백분위)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언어(0.87), 수리(0.78), 외국어(0.91)	0.01 (1)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없음=1, 있음=0	.16

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SD)
보호자(아무도 없음)		(.37)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고등학교 이하=1, 2~3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대학원(석사)=4, 대학원(박사)=5	3.45 (0.92)
미래진로대화	부모와 대화 여부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어떻게 살지 대화(0.64),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0.76),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0.73),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문항에 대한(0.60)	-0.01 (1)
사회적자본	부모의 관심정도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대화시간(0.50), 학업 및 성적(0.64), 친구(0.74), 친한 친구의 부모(0.60), 학교생활 (0.73), 생활습관(0.67), 개인적 고민(0.67)	-0.01 (1)
미래직업계획 (있음)	있음=1, 없음=0	.72 (.45)
자아성숙도	자아인지 능력 세부 항목(1~5점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0.75),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지(0.70),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0.67), 결단력(0.65), 계획실천능력(0.63),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0.54)	0.01 (1)
고교유형 (공립)	공립=1, 사립=0	0.45 (0.50)
고교계열 (문과)	문과=1, 기타=0	0.55 (0.50)
지역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1, 읍·면지역=0	.48 (0.50)
지역 (시군구(동))	시군구(동)=1, 읍·면지역=0	0.33 (0.47)
일반고 진학이유 (대학진학)	대학 진학 목적=1, 구체적인 계획 없었음 및 기타=0	.73 (0.44)
학교만족도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0 (0.80)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있음)	있음=1, 없음=0	0.59 (0.50)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공부 및 향후 진로=1, 기타=0	0.63 (0.48)
잠재적 비진학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 계획=1, 진학계획=0	0.04 (0.19)
고졸 비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1, 대학 진학=0	0.03 (0.18)

+p<.10, *p<.05, **p<.01

Abstract

A Policy Study of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for Youth Who Do Not Attend Colleg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for youth who do not plan to attend college. Analysis of various sourc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sets showed that youth who decide not to enroll college often suffer from the lack of adequate technical and behavioral competence and struggle to enter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Furthermore, findings indicated that these youth do not possess sufficient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that promote them to plan their future career and long-term life plan. As a result, substantial number of youth tend to stay unemployed or either find a temporary, low-skilled and low-paid, job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ed an extension of after school program that can develop the necessary capacity for labor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o not plan to attend college. The current after school program is design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ereas our suggested program extends the participants eligibility to high school students and provide the opportunity to these youth to acquire necessary skills and competence to facilitate the entrance to the labor market. As a way to implement our suggested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we discussed the necessary policy procedures and implication on the youth development policy in South Korea.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한·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자·김희진·이민화·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자·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한·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한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라·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상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화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 · 최홍일진성화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 · 최홍일진성화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한황세영
-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종김기한한도희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자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한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한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종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한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종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잔·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자·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자·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잔·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자·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종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오해섭·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할을 미치는 47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사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명기획 전화 044) 868-754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93-9 93330